

알제리

정보수정일자: 2012. 11. 05.

작성처: 알제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 1
- 2. 정치사회동향 / 4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7

II. 경제

- 1. 경제동향 및 전망 / 9
- 2. 주요 산업 동향 / 13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33

III. 무역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34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37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39
- 관세제도 / 42
- 주요인증제도 / 44
- 지적재산권 / 45
- 통관운송 / 46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50
- 외국기업 투자동향 / 53
- 우리기업 투자동향 / 56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59
- 진출형태별 절차 / 6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65
- 조세제도 / 67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70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 71
- 2. 물가정보 / 74
- 3. 바이어발굴 / 75
- 4.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77
-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 79
- 6. 진출성공, 실패사례 / 80
- 7. 이주정착 가이드 / 82
- 8. 출장가이드 / 85
-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107
-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109



1992 MAGELLAN Geographix: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2012년 9월 기준)

국명	알제리 인민민주주의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위치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연안(모로코, 서사하라,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등 7개국과 접경, 국경선 6,343 Km, 해안선 998Km)
면적	2,382천 km ² (한반도의 약 10배, 아프리카 1위, 세계 9위)
기후	북부: 지중해성(10-30도), 남부: 대륙성 및 사막기후
수도	알제 (Algiers)
인구	3,710만명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2. 9월 추정치)
주요도시	알제 포함 수도권지역(Greater Algiers/483만명), 오랑(Oran/115만명), 콘스탄틴 (Constantine /81만명), 안나바(Annaba/58만명)
민족	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언어	공용어-아랍어 및 베르베르어, 상용어-불어
종교	이슬람 수니파(98%), 카톨릭(2%)
건국(독립)일	1962년 7월 5일 (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인민공화제 (5년 임기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2009. 4. 9 대선에서 90% 지지율로 3선)
의회	양원제 (5년 임기 하원 462석, 6년 임기 상원 144석)
주요정당	국민해방전선(FLN, 208석), 국민민주당(RND, 68석), 녹색알제리동맹(AAV, 46석), 사회주의전선(FFT, 21석), 독립당(Independants, 19석), 노동당(PT, 17석), 알제리국민전선(FNA, 9석) 등 * 하원의석 기준, 2012년 5월 10일 선거 결과
국제기구가입	IAEA, IBRD, ILO, IMF, ILO, OPEC, UN, WHO, WIPO 등
군사력	육군 320,000, 해군 22,000, 공군 54,000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2년 9월 등

나. 경제지표 (2012년 9월 EIU 추정치)

GDP	US\$ 2,249
실질GDP성장률	2.6%
1인당 GDP	US\$ 8,614 (PPP기준)
실업률	10.8%
소비자물가상승률	8.5%
화폐단위	DZD (Algerian Dinar)
환율	US\$1=DZD 74.38
외환보유고	US\$ 1,994억
총 외채	US\$ 45억
주요자원	- 원유 (생산량 5530만 톤) - 천연가스 (생산량 1921억 m³) - 철광석 (생산량 101만 4천 톤) - 인광석 (생산량 152만 5천 톤) * 이상 2010년 기준 (자료: IMF)
산업구조	석유가스산업(34.7%), 공공서비스업(13.5%), 농업(8.4%), 제조업(5.0%), 기타(6.1%) * 2010년 GDP 기준 (자료: IMF)
교역규모	(수출) US\$ 726.6억 (원유/가스류가 총 수출액의 98% 이상) (수입) US\$ 441.9억 * 2011년 통계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2년 9월

다. 알제리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추정)	2012 (예상)	2013 (예상)
경상 GDP(십억\$)		171.7	138.1	162.0	206.0	224.9	254.8
실질 GDP 성장률(%)		2.4	2.4	3.3	2.5	2.6	5.0
PPP 기준 1인당 GDP(\$/인)		7,803	7,937	8,133	8,443	8,614	9,237
물가상승률(CPI,%)		6.7	5.7	3.9	4.5	8.5	3.4
실업률(평균,%)		11.3	10.2	10.0	10.0	10.8	10.0
이자율(여신,%)		8.0	8.0	8.0	8.0	8.0	8.0
인구(백만 명)		34.7	35.3	36.0	36.3	37.1	37.1
경상수지(백만\$)		40,600	7,780	18,200	28,470	30,890	36,169
외환보유고(백만\$)		143,544	149,347	162,915	183,122	199,495	207,033
대외채무(백만\$)		5,935	5,424	5,276	4,708	4,488	4,317
디나르화 평균환율	대미달러	64.58	72.65	74.39	72.94	74.38	73.15
	대 유로화	94.97	101.22	98.70	101.51	95.08	92.35
통화증기율 (%)	통화(M ₁)	17.3	1.1	14.6	24.1	16.9	18.6
	총통화(M ₂)	16.0	4.8	13.5	19.9	15.6	11.9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2년 9월

라. 한-알제리 관계 (2011 년 기준)

체결협정	전략적 제휴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 투자보장협정, 해운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교역규모	(수출) US\$ 11.2억불 / (수입) US\$ 1.3억불
교역품	(수출)승용차(2.7억불), 화물자동차(1.4억불), 합성수지(1.01억불), 철구조물(0.53억불), 건설중장비(0.52억불), 철강재용기(0.48억불), 자동차 부품(0.36억불), 배전및제어기(0.34), 화학기계(0.29억불), 컬러TV (0.23억불) , (수입)나프타(1.27억불), 아연괴 및 스크랩(0.01억불),
교민현황	대우인터내셔널(1인), 삼성물산(1인), LG상사(1인), 삼성전자(3인), LG전자(5인), 경남기업(3인), 대우건설(3인), 한화건설(1인), LH공사(1인), 한국통산(2인), KT(2인), 공간건축(2인), 동명기술공단(3인), 우림건설(3인), 주알제리 한국대사관 (8인), KOTRA(2인), 기타 자영업 종사자 및 현지 건설 현장 파견 인력 등 2,300여명 체류

2. 정치 사회 동향

가. 개요

1996년 11월의 개정헌법에 따라 알제리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복수정당제에 의한 의회 구성과 사법권의 독립 등 3권 분립 체제의 정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1999년 4월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화합 정책 추진으로 정치안정을 이룩하고, 고유가에 따른 경제상황 호전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대통령 직선제 시행, 복수정당제 운영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다만, 잔존테러, 사회주의 잔재, 경직된 관료주의, 정부의존적 경제구조 등은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 국회(상·하원)에서 헌법 개정('08.11.12)을 의결한 바 있는데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및 대통령의 권한 강화, 총리제 도입, 여성의 정치적 권리 확대 노력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2011년 1월부터 물가인상, 주택난, 실업 등 민생고에 대한 시위로 시작하다가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의 영향으로 야당 연합이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발전시켰으나, 알제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국민들의 안정 추구 성향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알제리 내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5월 10일 시행된 국회의원 총선에서 총 462석의 의석 가운데 여당인 FLN(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국민자유전선)이 208석, RND(Rassemblement national démocratique, 국민민주연합)가 68석을 차지하였다. 불과 46석을 차지하는데 그친 이슬람 정당연대 AAV(Alliance de l'Algérie verte, 녹색알제리동맹)는 선거 결과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다른 정당들은 선거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알제리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42.90%(알제리 국내 44.38%, 해외 14%)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지난 2007년 총선 투표율 35.65%보다 증가한 수치였다. Tizi Ouzou 지역의 불참률은 80.16%에 달하였으며, 대체로 카빌족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였다.

한편, 전체 의석 중 31.38%가 여성으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성 의원들은 145명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체 462석 가운데 3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성 의원이 389석 가운데 31석(7.96%)을 차지했던 2007년 총선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나. 대통령

알제리 국적의 40세 이상 이슬람교도로 국민의 보통, 비밀, 직접선거에 의한 유효표의 절대다수 득표로 선출되며 임기 5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군통수, 외교정책 결정, 국무회의 주재, 정부수반 임면, 대통령령 서명, 긴급명령권(의회 휴회기 중), 일반사면, 국제조약 체결, 영예 수여권, 하원해산권, 정부요직 임명권(헌법기관의 장, 군 요원, 국무회의가 결정하는 정부 기관장, 국가위원회 의장, 행정부 사무총장, 중앙은행 총재, 치안판사, 보안책임자, 도지사)을 행사하며, 대통령 유고 시 국가평의회 의장(상원 의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009년 4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현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이 90.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대통령의 입지강화 및 정치·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3연임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직의 재선까지만을 허용한 기존의 알제리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14년까지이지만, 2012년 현재 74세인 대통령의 후계자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 헌법

복수 정당제의 정당 체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교는 이슬람, 국어 및 공식 언어는 아랍어임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 화합을 위하여 2002년 4월부터는 Tamazight어(베르베르어/따마지흐)도 공식 국어로 추가했다.

라. 행정부

알제리의 중앙 행정 조직은 최고기관인 대통령, 정부 수반(국무총리에 해당) 및 32개 부처로 구성되며 대통령, 정부 수반(Chef du Gouvernement) 및 각부장관으로 구성된다.

2012년 9월 4일,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대대적인 내각교체를 단행하였다. 개혁을 위한 발걸음으로 전 알제리 수상 Ahmed Ouyahia의 뒤를 이어 새로운 알제리 수상 Abdelmalek Sellal이 임명되었으며 전 수상(Ahmed Ouyahia)은 고집스럽고 완고하며 비타협적인 성격이었던데 비해 새 수상(Abdelmalek Sellal)은 좀더 온화하고 융통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 밖에도 통신부장관 Mohand Oussaid Belaïd, 법무부장관 Mohamed Charfi, 토지 및 환경계획부장관 Amara Benyounès, 교육부장관 Abdelatif Baba Ahmed, 노동부 및 사회보장부 장관 Abdelaziz Ziari 등이 새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장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시행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임무라고 명확하게 선언함으로써 전문가들은 전 수장과 비교했을 때 업무방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알제리에 특별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지방행정조직

알제리에는 지방 행정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조직된 행정 단위는 도(Wilaya/48개) 및 면(Commune/1541개), 그리고 도(Wilaya)업무 위임 차원의 조직 성격인 군(Daira/227개) 단위가 있다.

이외 특별체제의 조직으로 수도 알제와 남부 일부지역은 지방행정조직 중 별도 체제로 운영. 수도 알제는 구(arrondissement)로 분할되고, 각 구(arrondissement)는 선거구 단위가 되며, 구(arrondissement)차원에서 선출된 구의원들이 수도 알제의 “시의회(l'APC d'Alger)”를 구성한다.

바. 입법부

알제리의 국회는 상원(CN: Conseil de la Nation)과 하원(CNT: Conseil National de Transit)으로 구성되는 양원제(bicameral parliament)로 운영된다.

1989년 2월 헌법개정으로 유일정당(one-party) 제도를 폐기하고 복수정당제를 도입했는데 1990년 6월 알제리 역사상 최초의 다당제하의 지방선거와 1991년 12월에 시행된 총선에서 이슬람세력 "회교구원 정당(FIS/1989년 창당)"이 승리하자 군부가 개입하여 1992년 1월 Bendjedid 대통령을 축출하고 동 총선결과를 무효화하는 외에 FIS 정당을 해체 (1992년 3월)하여 헌법적 유고 상태가 초래된 바 있다.

이후 1995년 11월 대통령선거와 1996년 11월 28일 헌법개정으로 상/하 양원제도를 도입하여 1992년 무산된 바 있는 복수정당제하의 첫 선거를 실시하여 1997년 6월 하원의원 선출, 1997년 10월에 APC 및 APW 지방 의원을 선출하고 1997년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중앙 및 지방 입법기관을 구성하기에 이룸. 그 이후 2002년 5월 제2차 하원선거가 실시되어 5년 임기의 389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하원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1) 하원-국가인민회의 (ASSEMBLEE POPULAIRE NATIONALE/APN)

임기 5년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며 선출방법은 보통, 비밀, 직접선거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있다. 하원의 의석 수는 총 389석으로 인구 8만명에 1석, 초과 4만명당 1명이 추가되고 인구 35만 이하의 도는 최소 4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 회기는 3월과 9월에 2회 개최되며 회기는 최소 4개월간 지속된다. 의회에서 선출되는 의장의 임기는 의회 회기 중이며 최종선거는 2012년 5월 19일에 있었다. 하원의 주요권한으로는 입법권, 정부감시권 및 대정부 질의권, 조약·협정비준 동의권, 내각해산권, 외교정책심의·결의권이다. 2012년 2월, 알제리 내각에서 하원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하원의 의석 수는 389석에서 462석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2년 5월 10일 선거에 따른 주요 정당 별 의석 분포는 국민해방전선(FLN, 208석), 국민민주당 (RND, 68석), 녹색알제리동맹(AAV, 46석), 사회주의전선(FFT, 21석), 독립당 (Independants, 19석), 노동당(PT, 17석), 알제리국민전선(FNA, 9석), 기타 74석 등으로 되어 있다.

2) 상원-국가평의회(CONSEIL DE LA NATION)

임기 6년으로 겸직이 불가하며 선출방법은 총 의석수의 2/3는 면의원(APC) 및 도의원(APW)에 의하여 면의원(APC) 및 도의원(APW)중에서 비밀선거로 선출되며, 1/3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매 3년마다 상원의원의 1/2이 교체되고 있다. 상원 총 의석 수는 144석이며 헌법상 하원 의원 정족수의 1/2이하로 규정되고 있다. 알제리의 48개도에서 2명씩 선출되어 96명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8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연 회기는 3월, 9월 2회에 걸쳐 최소 4개월 회기가 지속된다. 상원의장 교체 시마다 새로 선출되며 대통령 유고 시 6개월 대행하며 이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실시. 상원의 주요 권한은 하원과 대동소이하나, 법률안이 국회통과에는 하원통과 후, 상원에서 3/4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하원 양원합동 회의는 대통령 및 하원 재적의원 2/3 이상 요청 시 개최 된다.

2006년 선거에서는 국민해방전선(FLN) 29석, 국민민주당(RND) 12석, 평화운동당(MSP) 3석, 문화민주당(RCD) 1석, 무소속 3석 등이 당선된 바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알제리 경제협력 추진

2003년 12월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 가능성이 최초 부각된 이래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 방문 시 양국 정상간 합의한 전략적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45개 정부 관련 부처, 경제단체,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알제리 경제협력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알제리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 한 바 있다.

실질적인 대알제리 경험 추진을 위해 2006년 5월 우리나라의 민관합동조사단이 알제리를 방문하여 양국간 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현장조사활동을 수행한 이래 2011년 7월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양국 간 경험 T/F회의가 개최되었다. 2010년 4월 27일 서울에서 제 7차 경험 T/F 회의가 개최되어 정책(알제리 산업개발 정책), 산업·IT, 건설·교통(석유분야, 시디압델라 신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사업), 농수산(씨감자 생산기술 개선사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되었다. 최근 2011년 5월 25일과 26일 알제리에서 진행된 8차 경험 T/F 회의에서 산업·IT, 신 재생에너지, 건설플랜트, 농수산 등 5개 분과별로 회의를 갖고 알제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원, 산업협력 시범사업, 신 재생에너지 협력, 신도시·고속도로분야 협력, 씨감자·새우양식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자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하였다. 민관합동 사절단 또한 현지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산업, 개발협력(KSP), 건설·플랜트, IT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알제리 측은 자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2010~2014년) 추진을 위한 한국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지분보유 제한, 제3국인 비자발급 문제, 실적 인증서 영사확인 문제, 통관 지연 등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2012년 5월 30일 서울에서 양측 총 1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진행된 제 9차 경험 T/F 회의에서 ‘협력’, ‘산업·IT’, ‘건설·환경’, ‘에너지·자원’, ‘농수산’ 등 5개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KOICA),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지원(KDI)(협력분과), 산업협력 시범 사업 추진 및 정보통신교류센터 등 ICT 분야 협력,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투자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 협력 확대(산업·IT), 산업단지 노하우 전수, 신도시 관련 경험 공유, 환경 및 수자원분야, 철도항만분야 정보 공유 등 협력 확대(건설,환경분과), 2차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새우 양식장 건립 지원, 삼림분야 및 농업 유통기술 협력(농수산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12년 9월 13일 알제에서 우리 국토해양부와 알제리 교통부는 양국간 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향후 국토부는 우리 기업의 북아프리카 항만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간 협력 관계 강화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별 수요에 맞는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 한-알제리 공동 협력기금(Fund) 조성

양국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2006년 제1차 경험 T/F회의에서 양국간 공동산업협력기금 조성방안을 제안, 초기 기금으로 양국이 각각 1백만 불씩, 총 2백만 불을 조성하여 한-알제리 양국간 경제협력사업비로 활용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동기금은 알제리의 신도시 개발, 어족자원조사, 철광석 개발, IT, 사하라 관개사업, 항공우주, 에너지 자원 탐사 등 타당성 조사 및 연구사업과 알제리 경제·산업개발 전략 등 정책컨설팅, 프로젝트 컨설팅사업, 사절단 교류 시 체재비 부담 등 산업기술인력의 교류협력 사업, 양국간 자원 포럼, 항만 포럼, 도로건설 포럼 등 각종 협의체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양국이 매년 각각 2백만 불씩 총 4백만 불을 자국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 알제리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등 유망분야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인수하기 위해 알제리 담당부서인 민영화투자자유치부와 협상 중이며 민간 기업측에서도 가전, 조선분야의 공기업의 인수하기 위해 꾸준히 협상 중에 있으나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알제리 수자원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타진을 위해 2008년 6월에 해외건설협회 주관으로 30여 기업이 방문하여 현지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9년 제6차 경협 T/F회의의 부대행사로 국내 중소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기업 10여 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알제리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라. 알제리 산업정책(Blue Print) 자문

한-알제리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알제리 민영화투자자유치부에서 작성한 알제리 산업 개발정책 청서를 우리나라의 국책 경제 산업연구소에서 정책 자문 시행 중이다.

마. 한-알제리 신도시건설 양해각서 체결

2007년 1월 15일 한-알제리 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알제리 부이난(Bouinan) 지역의 신도시 건설에 대한 한-알제리 양국정부(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 - 국토개발환경부 셰리프 라흐마니 장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기업들이 이를 전담 추진할 별도 법인인 BNT를 설립하였으나 2012년 현재 주재국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바. 알제리 신도시건설 입찰에 한국기업 수주 및 프로젝트 진행

알제리 내 14개 신도시 건설추진에 따른 입찰이 시작되면서 한국기업의 입찰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2008년 4월에는 부그줄 신도시 입찰 수주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08년 9월 시디압델라 신도시 입찰 수주는 경남기업 컨소시엄이 따내는 등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경험을 살린 사업참여 기회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정책

1) 경제자유화 및 대외개방 경제정책 기조에서 폐쇄적인 조치 일부시행

1980년 대말 정부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탈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래 현재 발전, 건설, 통신 등 분야에서 개방하는 등 기존의 개방경제, 시장자유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4년 IMF 금융지원 조건하에 경제개혁, 자유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경제개혁 중에 있었으나 공기업 민영화, 금융개혁이 내부사정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개혁 및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고유가의 혜택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이 실현되고 있어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2005년 하반기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 되고 현재 WTO가입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모든 무역거래에 대한 신용장 거래 의무화, 외국기업이 투자 시 지분의 49%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이 2009년부터 도입되어 경제자유화 기조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2) 테러종식과 에너지수입 증가로 인한 정치, 경제 안정으로 경제개혁 추진

강력한 리더십으로 집권 3기(2009.5~2014.4)에 돌입한 “부테플리카” 정부는 최대 정책과제로 국민화합(national reconciliation) 달성을 설정했다. 2005년 9월말 국민대화합을 위한 국민 투표에서 대사면 조치가 통과되어 내부적으로는 테러를 종식시키면서 정치, 사회안정을 이루었다. 외부적으로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연간 300억불을 넘는 외화가 유입되어 현재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0~2014)을 추진중이며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경제개혁 프로그램도 진행시키고 있다.

그간 알제리정부는 1,200여 개에 달하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 비효율적인 공공기업 구조조정과 금융분야 개혁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개혁 작업이 정치권과 노조 등 반발세력과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으나 경제개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고 실업 해소와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 공사 발주

현재 공식적으로 10%의 안팎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총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2010~2014년 기간 동안 2,860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천명했으며 투자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회 기반 시설, 즉 도로·철도·항만·공항·통신 등이며 아파트나 빌딩·댐 건설이나 수력발전·수로 건설 등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도 해소하고 경제인프라도 구축하려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추세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Hydrocarbons(원유 및 가스등) 판매 수입의 사용처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인 실업해소와 인프라 확충에 두고 있으며 날로 확대

되고 있는 민간부문에 금융지원이 부족해 민간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부패스캔들, 입찰 시 알제리 기업에 대한 25% 가격 특혜 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신 수입정책 등 시장경제 체제로의 본격 경제개혁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 재조정이 진행 중이며 통상법 및 기업법 등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 재정, 재화 및 서비스 분야를 자유화하고 그 운용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 중. 한편 관세 및 세제개혁, 투자관련법령 및 공기업 민영화 법령이 재개정(2001.7)되어 알제리 정부의 법 제도적 정비는 EU 준 회원국으로 가입을 가능하게 했으며 현재 WTO 가입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신 수입정책, 세무조사강화, 중앙은행의 은행구조조정을 위한 사전단계로 여신감독 강화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어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05년 하반기부터 수입업 법정 최소자본금을 \$12,000에서 \$260,000로 대폭 상향 조정해 자격요건을 강화 하는 신 수입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동조치의 배경은 '05년 9월부터 알제리-EU간의 자유무역 협정 이 발효 되고 현재 WTO 회원가입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간 IMF등에서 권고해 온 은행개혁 등을 통해 알제리의 후진적 경제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외국기업의 알제리 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5) 대표적 공기업인 알제리 텔레콤 포함 민영화 본격 추진

민영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산업 분야에 걸친 50여 개 주요 기업 그룹의 143개 자회사를 민영화 추진 대상으로 기 선정(2001.11)한 바 있으나 실제 민영화 작업은 노조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현재 주요 민영화 법안이 정치, 경제사회적인 이유로 진척 이 더딘 편이나 외국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인 통신 및 발전분야 등 비 전략적인 분야에는 개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6) 최근 경제동향

지속적인 고유가 구조 및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개혁.개방화 정책 추진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7%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외채 조기상환 및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석유·가스 판매수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프로젝트 사업에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10~'14) 기간중 인프라 건설, 산업다변화, 신기술 개발 등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할 예정이다.

Yousfi 에너지광물부장관은 2012년 상반기 동안의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정상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Benissad 前재무장관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37\$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향후 3년 동안은 국제금융위기가 알제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재정정책

지난 2009년 4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팽창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 알제리정부는 2000년대 초반 20%를 상회하는 실업률에서 최근 2011년에는 10%로 안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관계로 정치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 성장률을 5~6%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지난 2009년 알제리의 연간 GDP 1,746억 불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석유/가스 부문 (Hydrocarbons) 이 45.9%, 농업 7.6%, 제조업 5%, 서비스업 20.1%, 기타 3.4%로 구성되어 원유 및 가스로 대표되는 Hydrocarbons관련 산업이 알제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동 부문의 수출비중이 전체수출의 98%에 달할 정도로 동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고유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에 힘입어 2001년 총 U\$80억 규모의 경제도약 4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지난 2005-2009년 중 총 U\$600억 규모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경제다변화를 위해 총 2,860억불(신규 사업에 1560억불) 투입 등 인프라구축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와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정부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고유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지난 5년간 흑자를 기록 중이며 고유가로 인한 안정적 재정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수년간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 통화정책

알제리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알제리 중앙은행 (BDA)은 할인이자율(Discount rate)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알제리 디나르화 통화안정에 노력 중이다. 일반 국영은행 및 시중은행의 대부이자율은 8.0%로 인하되어 중앙은행 할인이자율과 일반은행의 대부이자율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IMF등 국제금융기관에서는 알제리정부의 통화정책이 원유 및 가스부문산업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며 채권시장 등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국영은행간 경쟁요인이 미미하며 지불시스템의 낙후 등으로 통화정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와의 제휴협정 발효(2005.9월), 2006년 말을 목표로 진행해왔던 WTO 가입협상(2012년 현재까지도 협상 추진 중), 시장 개방과 경제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영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개혁을 추진 중 에 있으나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각종 규제와 취약한 금융환경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 및 수입 제한을 위한 디나르화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알제리 중앙은행은 1달러 당 76.01디나르의 환율을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인플레이션

1996년 20%에 달했던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억제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한 결과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2~3% 선대의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다시 5%대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8~2002년 기간 중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7%이며 2010년 5.0%로 다소 높아졌으나 개발 도상국 중 알제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 모범국으로 평가된다. 그간 유로화의 강세지속으로 인해 디나화 표시 수입 단가가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었다. 최근, 유로화는 약세로 돌아섰으나 달러대비 디나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대외교역전망

2011년도 알제리의 무역 수지는 284.70억 달러로 전년 182.00억 달러 대비 56.42% 증가하였다. 이 중 수출은 726.60억 달러로 전년 570.90억 달러 대비 27.27% 늘어났으며, 수입은 441.90억 달러로 전년 388.90억 달러 대비 13.62% 증가하였다.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2년 9월)

품목별 수입과 관련해서는 산업장비가 157.08억 달러로 전체수입의 33.81%를 점유하였고, 반제품이 104.80억 달러, 식료품이 97.55억 달러, 소비재가 72.70억 달러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식료품 수입은 전년 동기 60.58억 달러에서 97.55억 달러로 61.03%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수입 중 점유율도 14.97%에서 21.00%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출은 원유가의 상승에 따라 탄화수소 에너지 수출이 712.41억 달러로 전년 555.27억 달러 대비 28.30%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전체 수출 중 점유율은 97.07%로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1년도 알제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20.78%), 이탈리아(13.47%), 스페인(9.79%), 프랑스(9.01%), 네덜란드(6.98%), 캐나다(6.35%) 순으로 최근 대비 수출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프랑스(20.78%), 이탈리아(9.93%), 중국(9.86%), 스페인(7.15%), 독일(5.40%), 미국(4.60%), 아르헨티나(3.84%) 순이며 우리나라는 주요 수입대상국 중 9번째(3.46%)이다.

2008년까지 고유가 지속 및 원유 가스 등 에너지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은 지속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의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하였다. 하지만 본격적 경제개발 시행으로 수입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상용차, 통신기기, 건설중장비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주력수출상품은 승용차, 상용차, 통신기기, 건설중장비 등이며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수출은 2012년 1월 1.26억 달러로 6위를 차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1.52% 감소하였다.

2. 주요 산업 동향

알제리 경제는 석유가스부문(Hydrocarbon Industry)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알제리 산업구조를 보면 석유, 가스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수출의 98%(2011년 기준)와 전체 GDP의 절반가량, 재정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알제리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행한 관계로 정유, 가스, 석유화학, 산업장비, 전기 전자산업, 금속, 제철, 철강, 제강, 식품, 전력, 시멘트, 섬유, 기계산업(화물차, 버스 기타) 등 일부 중화학부문의 비효율적 국영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재를 포함한 여타 기초 제조업 등은 발전이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 산업별 GDP구성은 석유, 가스산업 비중이 34.7%, 농업부문 8.4%, (이상 1차 산업) 석유 가스 에너지 산업 이외 제조업 5%, 건설이 10.4%(이상 2차 산업), 서비스산업이 21.9%, 공공서비스가 13.5%(이상 3차 산업)를 차지한다.(자료: 2012년 IMF)

가. 석유 및 가스

알제리는 원유생산량에서 아프리카에서 3 번째, 세계에서 12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원유수출기구(OPEC)기구에서 4 개 아프리카 회원국중 하나이다.

1) 개발 경과

- 1890년대 알제리 북서부 Chliff지역의 표층에 소재한 광상에서 최초로 유전을 발견했다.
- 1948년, 알제(Alger) 남서부 150km 지역에 위치한 Oued Guetirini 유전의 지하 100~650m 지역에서 최초로 상업적 원유를 발견했다
- 50년대 이후 사하라지역 석유.가스전 본격 개발
- '53~'56,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Edjeleh 및 Hassi Messaoud(최대규모) 유전과 Hassi R'mel 및 In Amenas 가스전 발견했다.
- Hassi Messaoud 유전은 알제리산 원유의 1/2을 차지하는 대규모 유전으로 '56.1.15 원유가 발견(지하 3,338m)되었으며 이후 800여개의 평가정을 굴착했다
- 사하라 남서부 지역 개발('80~'85)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추진('90년대)했다.
- Sonatrach과 합작투자한 CAMISEA(페루)사가 '04년에 최초로 배당금을 수취했다.
- 이후 Tin Fouye, Alrar, In Salah 등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다.
- 2000년대 들어 북부 지중해 연안지역에 대한 석유.가스 탐사 추진 중 이나 아직은 탐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 '00.10월 튀니지 국경에 소재한 Annaba 연안에서 Western Geophysical社 주도로 지진파를 탐지했다.
- '03년부터 광구개발 입찰공고 시 북부 해안지역까지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시행 중이다

2) 탐사 및 개발

□ 석유·가스 확인매장량(콘덴세이트 포함)은 약110억TOE 수준

- 회수율(taux de Récupération)은 원유 24% 및 천연가스 67% 수준이다.
- 회수가능 매장량 중 원별로는 천연가스 69%, 콘덴세이트 10%, LPG 4% 및 원유 17%로 구성된다.

□ 1만㎢당 평균 9개의 탐사정을 시추(세계평균: 100개/만㎢)

- 외국기업의 참여(50 여개) 확대로 활발한 탐사활동을 전개한다
- '00~'06 년간 탐사계약 43 건, 35 억\$(외국기업 20 억\$) 투자, 356 개탐사정(983 천 m) 시추 및 68 개 유정을 발견했다

□ '00~'06년간 개발(Exploitation) 부문에 Sonatrach, BP, Statoil, Repsol 등을 중심으로 약 250억\$(외국기업 140억\$)을 투자

- In Salah 가스전(BP-Statoil 참여, 25 억불 투자, 90 억㎥/년 생산규모)
- In Amenas 가스전(BP-Statoil 참여, 17 억불 투자, 90 억㎥/년 생산규모)
- Gassi Touil 가스전(Repsol 참여, 36 억불 투자, El Andalous LNG 설립)
- Ourhod, Zarzaitine, Boosting de Hassi R'mel, MLN 석유·가스전(Sonatrach 단독 투자)

석유·가스 탐사 추이

구 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굴 착	m	102,704	92,642	76,482	122,614	160,945	184,728	21,2506
	개	36	37	28	41	73	64	77
지진파(2D)	km	8,640	7,116	8,398	11,006	8,176	7,627	11,646
지진파(3D)	km	276	711	2,571	2,874	3,315	4,978	8,638
발 견	개	9	7	6	7	13	9	18

자료: 알제리 에너지광물부, 2012. 3월 기준

3) 원유·천연가스 생산

'06 년도 석유·가스 생산은 174 백만 TOE 를 기록하여 '00 년(152 백만 TOE) 이후 연평균 2.3%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 원유 생산은 일 평균 1.4 백만 B 을 기록하여 '00 년(0.89 백만 B/일) 대비 연평균 7.8% 증가했다.
- '80 년에는 석유·가스 생산량 중 석유가 87%를 차지하였으나, 가스전 발견이 확대되면서 '06 년에는 50% 수준으로 균등화한다.

석유·가스 생산 추이

구 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원 유	천톤	58,384	57,147	61,537	69,855	74,328	77,110	77,305
	천B	474,143	464,074	497,908	562,201	597,270	618,673	619,294
천연가스	백만 m³	139,499	140,740	139,998	137,634	144,281	151,775	149,509
L P G	백만 m³	8,243	8,604	8,694	8,454	8,567	8,601	8,404
석유제품	천톤	20,082	21,007	20,434	20,806	18,286	17,724	19,011

주: LPG는 유전·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로 정제과정에서 회수한 가스 제외

자료: 알제리 에너지광물부, 2012. 3월 기준

4) 내수공급 및 수출

□ 생산된 원유는 대부분 송유관(Oléoduc)을 통해 알제리 북부 지중해 연안에 소재한 정유 공장으로 이동

- 송유관 설비증설(Haoud El Hamra - Arzew, 823 km, 6 억불)을 통해 송유능력을 1.5 백만 B/D 수준으로 제고했다.

□ 북부지역 Arzew, Skikda, Alger 및 남동부 지역 Hassi Messaoud 정유공장에서 정제 처리된 석유제품은 내수용으로 공급

- Alger(259 만톤/년), Arzew(283 만톤/년), Skikda(132 만톤/년) 및 Hassi Messaoud (56 만톤/년) 정유 공장 별로 각 지역을 담당하여 공급한다

□ 석유제품 수요확대 추세에 따라 정제설비 신·증설 계획 추진

- Adrar(신설): 연산 60 만톤, CNPC(중국기업, 70%)와 합작투자(총 186M\$), '07 년 가동예정이다.
- Skikda(증설): 연산 5 백만톤, CNPC 투자(EPC 계약, 총 380M\$), '10 년 가동예정이다.
- Tiaret(신설): 연산 15 백만톤, '12 년 가동예정이다.

□ 최근 6년간 석유·가스 부문의 국고수입은 총11조DA(1,570억\$) 수준에 이룸('00년 11,740 억DA → '06년 27,450억DA)

연도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구 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총소비	천Toe	27,619	27,610	29,195	30,644	32,161	34,469	35,380
석유제품	천톤	9,044	9,453	10,247	10,584	10,327	11,572	11,963
천연가스	천 m³	19,845	19,398	20,243	21,432	22,224	23,227	23,740
전 력	GWh	20,759	21,900	22,979	24,936	25,909	27,387	28,612

자료: 알제리 에너지광물부, (2012. 3월 기준)

□ Arzew, Bejaia, Skikda 등 지중해 연안 항구를 통해 유럽 및 남미 지역으로 원유, 석유 제품을 수출

-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부지역으로 수송하여 가스 상태로 내수 또는 수출용으로 공급하거나, Arzew(액화설비 3기) 및 Skikda(액화설비 1기)에서 액화처리(-162 °C)한 후 선박을 이용해 유럽 또는 미주지역으로 수출
- 석유·가스 수송을 위해 석유 파이프라인(Oleoduc) 15개, 가스 파이프라인(gazoduc) 11개 및 석유 전용항구 3개를 구축. 알제리-스페인(MEDGAZ, 80억 m³/년) 및 알제리-이탈리아(Galsi, 80억 m³/년)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지중해 해저에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이다.
- 알제리의 경우 천연가스 수출물량의 약 90%를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 의존한다.
- 알제리-니제르 가스배관망(TSGP, 4,500 km, 200 ~ 300 억 m³/년, 100 억\$ 투자) 건설을 계획 중이며, 영국계 PENSPEN/IPA 가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다.

석유·가스 수출 추이

구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석유·가스 수출 총액	금액(십억\$)	21	19	18	24	32	46	54
	물량(Mtep)	123	118	121	130	137	145	140
원유·제품	금액(십억\$)	12	10	11	14	20	30	35
	물량(Mtep)	55	53	56	63	71	75	74
천연가스	금액(십억\$)	9	9	8	10	11	16	19
	물량(Mtep)	68	64	65	67	65	70	66
비 석유가스 수출 총액	금액(십억\$)	0.134	0.130	0.115	0.117	0.135	0.188	0.249

자료: 알제리 에너지광물부, (2012. 3월 기준)

5) 원유법 개정

가) 2006 년 7 월 9 일 국무회의는 2005 년 4 월 28 일자의 석유법(05-07)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에너지 시장에서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개정안의 주요한 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탐사-생산 계약과 관련해 SONATRACH(알제리 석유공사)은 의무적으로 최소 51%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개정전에는 SONATRACH(알제리 석유공사)이 직접 탐사-생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30%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었다.
- 새로운 세금이 도입됐는데 이는 2006 년 8 월 1 일부터 소급적용되고, 브랜트 원유가가 30 달러 이상일 경우 5-50% 한도내에서 적용된다.

나. 광물 자원

1) 광물자원 개발추이

석유·가스의 경우처럼 금, 은, 철, 텅스텐,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 알제리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광물이 사하라 지역에 분포한다.

대리석, 철광석, 오닉스 등 극히 일부 광종만이 북부지역에서도 함께 채굴이 가능하다.

2) 주요 광종(鑛種) 분포현황

금광(gisements d'or)은 Hoggar 지역, 특히 Tirek, Amessmessa, Tiriine-Hnanane et In Abegui 지역에 분포한다.

은광(gisements d'argent)은 Ougqta 지역, 다이아몬드는 Reggane 지역에 주로 분포 한다. Hoggar 지역은 금 외에 우라늄(Timganouine, Abankor 지역) 및 텅스텐(Ait Oklan, Enhine 지역)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북부지역은 Oeunza & Boukhadra(Tebessa 지역), Hnini(Setif 지역) 등의 철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철광석 외에 Filfila, Krystel, Guendou, Aïn Defla 지역에서 대리석, Takbalet, Bou hanifia 지역에서 오닉스를 생산한다.

석회석(Calair)은 Aïn Temouchent, Tebessa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망간은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Guettara 에 유일하게 존재 한다. 다만, 망간은 광석에 함유된 비소(arsenic)의 제거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미개발 중이다.

석고(gypse)는 Sidi Bel-Abbes, Arzew 지역, 황(soufre)은 Chelif, Tebessa 지역, 장석(feldspath)은 Aïn Barbar 지역에서 생산한다.

3) 광물자원 탐사·개발 및 생산

최근 수년간 중국, 호주, 인도 등 외국기업의 알제리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크게 확대

- AGMA(호주): Enor 지분의 52%(13백만\$) 보유, Tirek Amessmessa 금광(Tamanrasset 소재) 개발 참여중이다.
- Mittal Steel(인도): Ferphos 지분의 70%(10백만\$) 보유, Tebessa 철광산 개발에 참여 중이다. (자사 소유 El-Hadjer 제철소 공급용)
- AWMG(호주): Terramine Austraila(호주, 65%) 및 ENOF-ORGM(알제리, 35%) 합작회사, Oued Amizour 아연광(Bejaia 소재)을 개발 중이다.
- gyptian Orascom(이집트): 자사 소유 M'sila(시멘트 제조사)에 석회석 공급을 위해 12백만\$ 투자했다.
- Patnership Agreement(중국): ORGM-Sonatrach(49%)과 Shaolin(중국, 51%)간 제휴 협정, Tamanrasset(금)·Bechar(구리)·Setif(아연) 광산을 개발했다.
- Protocole Agreement(중국): 알·중 에너지부간 El-Abed 납/아연광 개발을 위한 협정서 서명, 12억디나르(17백만\$)를 투자했다.

나) 광물 생산은 '00~'06 년간 연평균 10% 수준 증가하였으며, 금, 철, 인광석 및 골재가 생산 증가세를 주도했다.

- 동 기간 중 1,000여개 중소기업이 광산개발 사업에 신규 참여하여, '06년말 기준 460억 DA(657백만\$)의 매출총액(Chiffre d'Affaires) 기록했다.

주요 광물 생산 추이

구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금광석	kg			369	365	593	637	377
철광석	천톤	1,645	1,291	1,200	1,378	1,554	1,668	1,996
인광석	천톤	877	939	741	905	820	878	1510
암 염	천톤	195	87	117	120	95	94	128
골 재	천㎥	7,986	8,542	11,691	13,769	17,022	22,816	28,031

자료: 알제리 에너지광물부(2012. 3월 기준)

다. 전력 및 신 재생에너지

1) 발전설비 건설동향

- 1936년에 알제 동쪽 200km 지역에 위치한 Ighzer N'Chbel 수력발전설비를 통해 최초로 전기를 공급했다.
- 이후 풍부한 석유·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 960년대초 Haoudh El-Hamra 및 Alger-Port에 최초의 가스터빈발전소('60) 및 氣力발전소('61)를 연차적으로 건설했다.
 - 가스터빈 발전설비는 총 전력설비의 1/2(49.6%)을 담당하고 있다.
- 발전설비는 00년도부터 06년도까지6년간 평균 5.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06년말 기준 8,000MW의 설비를 보유 중이다.
 - 전력생산설비(MW): ('00) 5,900 → ('06) 8,000(5.2%/년↑)
 - '00~'06년간 총8기 2,625MW의 발전설비(화력7, 수력1) 구축
 - Alger(420MW), Oum el Bouaghi(292MW), Illizi(9MW), Berrouaghia(480MW), Jijel(100MW), Arzew(321MW), Skikda(827MW, 캐 ANC 합작), Naama(176MW)
-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 약2,800MW의 발전설비 추가 건설 중이다.
 - Tipaza주에 Hadjret El Ennous 화력발전소 건설(1,227MW)
 - 캐나다 SNC Lavalin(51%)과 합작투자, 총826백만\$ 소요
 - Ain Temouchent주 및 El Taref주에 각각 Terga 및 Koudiet El Derraouch 화력발전소 건설(각800MW, 총1,600MW)

- 한편, 개정 전력법(Loi N°02-01)이 전력분야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함에 따라 Sonelgaz (전력생산 공급회사)도 조직 재정비를 추진했다.
- 제1단계로 배전분야에 대해 4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담당 권역 별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조정했다.

2) 전력생산 및 소비

가) 전력생산 및 소비는 00 년도부터 06 년도까지 6 년간 평균 5.5% 내외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 전력 생산(GWh): ('00) 25,008 → ('06) 35,007(5.8%/년↑)
- 전력 소비(GWh): ('00) 20,759 → ('06) 28,612(5.5%/년↑)

전력 생산 및 소비 추이

구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전력 생산	GWh	25,008	26,256	27,403	29,192	30,885	33,611	35,007
전력 소비	GWh	20,759	21,900	22,979	24,936	25,909	27,387	28,612

자료: 알제리 에너지광물부, (2012년 3월 기준)

3) 新再生에너지

- 태양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반면 인구가 적은 사하라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이용 설비 공급을 확대 중이다.
- 태양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은 남서부 사하라에 소재한 Adrar로서 동 지역은 풍부한 지하수(60조 m³)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잠재량

구분	해안지역	고원지역	사하라
면적(%)	4	10	86
일조기간(h/y)	2,650	3,000	3,500
평균에너지량(kwh/y)	1,700	1,900	2,650

나) 국영석유공사 등 3 개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신 에너지기구(NEAL, New Energy Algeria)를 설립하여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 NEAL 출자 지분: Sonatrach 45%, Sonergaz 45%, Sim(10%, 사기업)
- 일반적으로 신 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태양, 풍력, 조력, 지열 등 기존의 재생 불가능한 화석에너지와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
- Laghouat 주에 스페인 Abener 社와의 합작투자(총 3 억\$)를 통해 150MW 급 태양광, 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 남서부 모로코 국경과 인접한 Tindouf 주에 10MW 급 풍차(Eolien)를 이용한 농장을 건설
- Sonelgaz그룹 기존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대체 할 거대한 재생에너지관련 회사 설립

- Sonelgaz CEO는 합작 회사 NEAL의 해체를 선언하고 기존 NEAL의 지분과 사업을 흡수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맡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SPE(알제리 전기회사)나 NEAL이 가지고 있던 재생에너지개발 방식과는 달리 새롭게 진행할 예정
 - 알제리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은 2011년에 채택되어 재정참여, 기술전수 및 유럽전기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10,000메가와트에서 최대 22,000메가와트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알제리 정부는 인구분포가 낮고 도시로부터 격리된 사하라 및 고원지역에 태양광 전력 설비 보급을 추진 중이다
- 「농촌전화사업계획(Programme National d'Electrification Rurale, '95 ~ '99)」에 따라 사하라지역 18개 마을에 태양광 전력설비를 보급했다.
 - 「경제성장프로그램(Programme de Soutien à la Croissance, '05 ~ '09)」에 따라 북부 고원지대 및 남부 사하라지역 소재 16개 마을에 태양광 전력설비를 보급했다.
 - 고원지대 스텝존(Zone Steppique)에 거주하는 주민 3천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광·풍력 혼합 관계시설을 공급했다.
- 알제리 정부는 총 전력 생산량 중 신 재생에너지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15년까지 5%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라. 농업

알제리는 북부 지중해변에 총 2.4백만 sqkm의 경작지를 보유해 아프리카에서 제2의 경작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 농업국이다. 경작가능면적은 국토면적의 3.4%에 불과한 8.2백만 ha 이며 경작가능면적의 18.5% 만 현재 경작 중이다. 알제리의 식량 자급율은 55%이며 경작지의 1/3은 국가소유이나 민간분야에서 관리되고 있다.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업개발 계획(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PNDA)을 입안해 지난 2001년 7월 확정되어 시행 중. 동 계획은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체 고용인력의 1/4이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지난 19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총GDP생산의 10%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지난 1994년 이래 알제리정부는 식량 자급자족 정책을 점진 적으로 포기하고 부족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농업부문에서 시장개방정책을 시행 중이다. 1987년까지만 해도 국가소유였던 경작지의 60%가 현재는 민간에 불하되어 분배 되었으나 대부분의 농가에 대한 은행여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작을 위한 자금부족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중이다.

IMF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제리정부에 전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해 효과적인 토지등기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중이며 알제리정부는 최근 완전한 사유 농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 생산 농산물은 곡물류 특히 밀, 보리, 감자, 콩류이며 최근 곡물생산은 강우에 따라 수확량이 유동적이다. 알제리는 곡물류를 매년 10억 불 정도의 곡물류를 미국, 캐나다,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사하라 오아시스에서 재배되는 알제리산 대추야자(Fresh dates)는 비 에너지제품 중 최대의 수출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작면적은 72천 ha에 7.5백만의 야자나무에서 생산되고 있다. 올리브 오일은 매년 수확량이 유동적이거나 연간 평균 150,000 hl를 생산 중인데 향후 200여 개의 오일생산 공장을 증설을 추진 중이다. 100,000 ha의 올리브생산지를 복구할

계획으로 총 262,000 ha의 올리브 경작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알제리 정부는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인데 BADR은행을 통해 농업개발 자금을 신설해 자금대여회사를 신설해 농가를 지원 중이며 부채상환연기와 재배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마. 철강

알제리 국영 철강회사인 Entreprise nationale de sidérurgie사는 알제리에서 비 석유 가스 부문의 최대기업이며 El-Hadjar 철강단지내의 최대기업이다. 동사의 생산능력은 연산 2.2백만톤, Sider사의 조강능력은 826천톤으로 감소했는데 13개의 용광로가 생산성 저하로 폐쇄되었다. El-Hadjar철강단지는 1999년 Societe Algerienne de Fabrication Siderurgique (Alfasid)사에 의해 재 건설되었고 2001년 인도 LNM Group 사의 자회사인 Ispat International이 Alfasid사에 지분 70%를 매도해 가장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4월,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기업 ArcelorMittal의 마그레브 지역 CEO인 Vincent Le Gouic은 알제리 국내 생산량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ArcelorMittal 그룹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하여 전세계의 많은 공장들을 폐쇄하였지만 알제리에서는 현재 연간 100만 톤 이하에서 140만 톤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바. 자동차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는 국영 트럭 및 버스제조사인 Société nationale des véhicules industrielles(SNVI)사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구조 조정 중이다. 동사는 가동율이 40%에 불과한데 동사를 현대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은 US\$25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알제리는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알제리는 프랑스 Renault사와 자동차 합작공장 설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Renault는 최종적으로 튀니지를 선택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독일 Volkswagen사에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도 도출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2012년 Renault가 다시 한번 알제리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는 듯 보였으나 9월 4일 내각이 교체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양측은 대부분의 조건에 합의를 하였으나 Renault측이 협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5년간의 특별권-타 자동차 회사들의 알제리 공장 설립 불가-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협상 체결은 아직 멀어보인다.

알제리는 자동차 부품 하청생산에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알제리 내에서 자동차 관련 중소 하청업체는 300개에 불과하며, 생산력 또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사. 건설

알제리는 현재 주택공급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어 중기적으로 주택건설부문이 가장 활기에 찬 부문이다. 현재 알제리에는 공공임대주택(public social rental housing)이 대세이나 주택 공급이 시장수요에 부족한 실정으로 알제리는 1가구당 거주인원이 7명으로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 이런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 간 매년 175,000호의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외 기존 노후화된 주택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행에 따라 외국건설기업이 알제리에 대대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는 공사규모 약 70억불의 고속철도 건설프로젝트가 오는 2009년까지 1240km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총 공사비 110억불 규모의 남북 연결 고속도로와 알제리 고원지대 연결 고속도로 공사도 입안 단계에 있음. 이외 사하라 남부지역인 인사라-타마라세트를 연결하는 총 연장 720km의 수자원개발사업(Water Supply Pipeline Project) 등이 추진 중이다. 이외 신도시 및 신 항만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에 힘입어, 알제리는 1800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를 바탕으로 SOC, 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외 민자유치나 日 및 유럽계 금융기관 등 공적 원조기관의 자본유입에 의한 대규모 민간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2025년 목표 장기계획 SNAT(Schema National d'Amenagement du Territoire)과 실행계획인 국가개발 5개년 계획(Programme quinquenal)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국토를 정비중에 있는데 '05~'09간 제1차 국가개발계획으로 1,200억불을 투자중이며, '10~'14간 제2차 국가개발계획을 1,500억불 규모로 수립 중이다.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4~'09년간 100만호 건설에 이어 '10~'14년간 추가로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09~'11 년 우리업체 수주 사업

(단위: 천 달러)

참여업체		공사명	금액(천 달러)
'09	경남기업	시디압델라 신도시 인프라 설계 및 시공	483,190
	경동기술공사	동부구간: 220km(Tebessa-Batna)	6,503
	공간종합건축	부이난 신도시 개발청사 설계	831
	공간종합건축	시디압델라 신도시 개발청사 설계	837
	대우건설	Arzew LNG 트레인 건설 프로젝트	279,222
	대우건설	알제리아 오만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	3,000
	대우건설	젠젠항 항만 구조물 연장공사	148,648
	동명기술	부이난 신도시 기본계획 심화	2,976
	동명기술	부이난 신도시 진입도로의 설계	799
	동명기술	시디압델라 신도시의 서부도시 외곽도로 실시 설계	760
	동명기술	알제도 노후 관거 개량을 위한 조사 및 진단연구	1,519
	동명기술	중부구간: 495km(Batna-Tiaret)	9,378
	삼성 ENG	스키다 정유 프로젝트	2,589,731
	삼안	수도권 개발방향 사전조사	52
	삼안	시디압델라 신도시 기본계획 심화	731
	삼우증권사	알제리 소나트라 컨벤션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작성	106
	삼우증권사	알제리 소나트라 오란 컨벤션 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128
	건원	엘무라디아 주상복합	679
'10	공간종합건축	부자레아대학 설계 및 감리	1,765
	대우건설	알제리아 오만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	40,000
	동명기술	티지우주 지역 상수시설 실시설계	719
	건원	시페 드 밀레니엄 주거 프로젝트	2,658
	건원	알제리 엘 지와 주거단지	3,093
	지엔아이종합	주알제리 홍보관 컨셉디자인	228
	지티에스이엔	부이난 홍보관 건설 컨설팅 서비스	17
	효성	하시 메사우드 변전소 프로젝트	68,603
	효성에바라	아인세프라시 하수처리장 시공 및 운영	20,280
'11	경동 ENG	동부구간: 220km(Tebessa-Batna)	291
	경동 ENG	베자이아항~ 동서고속도로, 아니프 IC 관통고속도로 100km 실시설계	1,608
	경동 ENG	스킵다항~동서고속도로 연결 고속도로(40km)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1,233
	공간도시종합	주알제리앙골라대사관및관저	720
	공간종합건축	부그즐신도시국립환경 및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CNEDD)	514
	농어촌공사	알제리남부지역(사하라) 개발 타당성 조사사업	109

대우건설	Arzew LNG 트레인 건설 프로젝트	15,000
대우건설	알제리아오만비료공장건설프로젝트	1,200
대우건설	젠젠컨테이너터미널설계및시공	252,477
동명기술	MAO-Mascara-Mohammadiasig 상수도 실시설계	975
동명기술	부이난신도시진입도로의설계	79
동명기술	시디압델라신도시의 서부도시외곽도로실시설계	10
동명기술	중부구간: 495km(Batna-Tiaret)	533
동일기술공사	부이난신도시진입도로의설계	60
동일기술공사	중부구간: 495km(Batna-Tiaret)	400

(자료: 해외건설협회)

아. 시멘트

알제리 주택 등 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겨냥, 중동지역의 최대 시멘트제조업체인 이집트 Orascom Construction Industries사가 알제리에 현지투자를 통해 진출했다. 동사는 현지 합작 파트너와 공동으로 Algerian Cement Company (ACC)사를 설립해 지난 2004년 4월 수도 알제 남서쪽으로 240 km지역에 M'Sila 시멘트생산공장을 건설해 가동 중이다. 동사는 연산 550,000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내부마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가 주요 생산품목이다.

알제리정부는 지난 2001년이래 12개의 국영시멘트회사의 매각을 추진 중이나 뚜렷한 성과는 없다. 동 국영 시멘트사들의 생산능력은 연산 11백만톤이나 장기간 설비투자과 보수유지가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 생산은 8백만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Pharaon Commercial Investment Corporation 사가 Beni Saf plant of Le Groupe de Ciments de l'Ouest 사의 지분 35%를 취득해 연산능력을 1백만 톤으로 증설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자. 섬유산업

알제리의 섬유산업(Textile Industry)은 1980년대 이후 침체와 위기를 반복, 2003년 말까지 섬유산업분야의 누적 적자액이 146억 디나르(약 2억불)에 달했다. 국영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섬유산업 침체의 타개책으로 현재까지 67%의 인원감축 시행, 전체 봉제공장의 2/3인 100여개의 공장 폐쇄 및 민간기업에 매각 등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그간 알제리산 섬유제품은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공급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열위, 유행에 뒤떨어지는 패션 등 전반적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인근 모로코, 튀니지 등 인근 마그레브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섬유산업 설비 가동율이 35%미만에 머물러 왔다.

알제리는 섬유원단(fabrics & yarns) 및 부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왔는데 연간 수입 규모는 80억디나르(약 1억 천만 달러)에 달하며 현재 알제리의 섬유업계는 그간의 내외부의 시장여건 변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투자여력이 있는 50여개 미만의 업체만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

알제리 국영섬유산업은 Textile Manufacturing Cotton Group (TEXMACO)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동 그룹은 섬유산업 모든 분야(cotton, wool, silk, industrial and synthetic fabrics)에 걸쳐 57개의 자회사(subsidiaries) 거느리며 알제리 섬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기초섬유산업분야는 knitting과 hosiery 분야의 십여 개 미만의 중소형 생산공장이 남아 가동되고 있는 실정으로 daily cloths, professional garments, furniture items, shirt making, hosiery and knitting items에 집중 생산된다.

알제리의 섬유류 수입은 주로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유럽(터키)와 아시아(중국산)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알제리바이어들은 섬유제품 수입 시 제품 질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며 섬유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요는 상존하고 있으며 섬유류에 대한 수입 관세는 30%이며 17%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차. 정보통신(IT) 산업

알제리 정보통신 산업은 기본적으로 열악한 인프라시설투자, 정보 마인드 확산의 부족, 정정불안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성장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1990년대의 장기 내전 상황과 여기에 2003년 5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통신망 훼손은 알제리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알제리 IT 산업은 발전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타 개도국들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낙후. 컴퓨터의 활용도 일부 지역 및 공공분야에 한정된다. 통신망의 25% 정도가 일부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의 통신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알제리의 IT 발달수준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근 마그레브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져 있다. 알제리의 PC 및 인터넷 보급률은 각각 20%, 10%로 열악한 수준이다.

ICT 발전 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구분	2010 년		2008 년	
	순위 *152 개국 중	점수	순위	점수
대한민국	1	8.40	1	7.80
UAE	32	6.19	32	5.63
알제리	103	2.82	105	2.41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1

세부지표별 ICT 발전지수 추이

세부지표		2010 년			2008 년		
		조사수치	발전지수	순위	조사수치	발전지수	순위
ICT 이용	인구 100 명당 인터넷 이용자	12.5	0.56	111	10.2	0.42	101
	인구 100 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2.5			1.4		
	인구 100 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0			0		
ICT 접근성	인구 100 명당 유선전화 회선수	8.2	3.34	97	8.9	2.57	103
	인구 100 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	92.4			78.5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	8,120			913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20.0			12.4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	10.0			3.4		
ICT 활용 능력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86.6	6.32	100	85.4	6.06	102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30.6			24.0		
	성인 문자 해독률	72.7			72.7		

자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1

이처럼 알제리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IT 부문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투자부족은 물론 인적자원 및 발전전략의 부재 등과 같은 전반적인 ICT 역량의 부재에 기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IT) 산업이 알제리의 새로운 성장 섹터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알제리는 아직까지 정보화의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으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알제리 IT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막 피어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상승기조에 따른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금융 등의 공공부문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통신망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선진국 사업자들의 투자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2010-2014년 간 총 1500억 디나르 (약 20억불 가량)를 투자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에 전산 교육 장비 보급, 5백억 디나르 (미화 7억불 가량) 및 전자 정부 실현 (1천억 디나르, 미화 13.5억불 가량)에 힘쓰고 있다.

전자 정부 사업은 공공 서비스를 발달시키고, 행정기관과 기업들을 현대화해주는 시스템으로서 국민들의 행정 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 시스템으로 모든 행정 서류와 양식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 기업, 행정기관들을 위해 2013 e-알제리 정책 안에서 약 400개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전산 인프라 보급관련, 정부는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전산기기 도입 계획을 구체화 하였는데, 중학교에는 전산실이 마련되었고, 초등학교에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방침은 인터넷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교육기관에서 실행될 것이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연결선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사용 관련 전문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정보통신기술 사용의 보편화와 더불어, 공무원, 학생, 실업자, 농촌 여성, 주부를 대상으로 전산과 통신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을 포함한다.

1) 통신시장

현재 알제리 통신시장은 기본적으로 통신 인프라의 낙후성, 낮은 컴퓨터 보급률 등과 같은 하드웨어 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통신시장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알제리의 정보화 확산에 따라 IT 관련제품의 수입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EIU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알제리의 IT 제품 수입시장 규모는 최소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알제리 IT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IT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또한 한국산 IT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는 사실이다.

2) 이동전화

알제리의 이동전화 인구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당시 9만 명에 불과했던 이동전화 가입 인구가 2008년에는 2,700만 명을 상회했다. 2003년에만 해도 알제리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10%선으로 인근의 튀니지나 모로코 (30~40%)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8년에는 86%를 상회했다.

2000년 이후 알제리의 이동전화 보급 속도는 마그레브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알제리의 이동전화 사용 인구는 모로코를 추월하였으며 이집트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알제리의 이동전화 시장이 급팽창한 것은 무엇보다도 낙후된 유선전화망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수요가 이동전화로 몰렸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유선전화(AT사 독점) 신청자 중 50만 명이 대기상태에 있었고, 대기기간은 평균 7년이나 소요되는 등 유선시장이 크게 낙후되었다. 이동전화의 수요팽창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알제리의 경우 유선전화 환경이 극히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체수요가 이동전화 가입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알제리 이동통신 시장의 급팽창은 경쟁체제의 도입에 의해서도 견인되고 있다. 현재 알제리의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제3의 사업자까지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2001년 7월 Orascom Telecom사(이집트)에게 제2의 이동통신(GSM) 사업면허를 부여한 데 이어, 2003년 말에는 중동지역의 메이저 통신업체인 쿠웨이트의 Wataniya사에게 제3의 이동통신 사업면허(04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부여했다.

업체별 가입자 경쟁현황(2011년 2분기 기준)을 보면, Orascom사가 1,596 만 명으로 43.4%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이며, 그 다음으로는 알제리 국영통신공사(AT)가 34.8%(1,279만명), Wataniya사가 21.9%(805만명)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2001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AT사는 통신망 부족과 높은 요금 체계로 인해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Orascom사는 통신망 확충사업 및 선불카드(Pre-Paid) 등을 통해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AT는 경쟁업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데, 2003년 4월에는 스웨덴의 Ericsson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회선의 이동통신망 증설을 추진했다. AT사는 2003년부터 42개 지역에 대해 CDMA 무선가입망(WLL)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통신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WLL 사업은 AT사의 주요 사업 분야로서, 브로드밴드 사업 다음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이동전화 업체별 가입자 분포 현황(2008년 기준)

이동전화 업체	시스템	서비스 개시일	시장 점유율
Algerie Telecom	GSM 900	1999년 2월	29%
Orascom Djezzy		2002년 2월	52%
Wataniya Nedjma		2004년 8월	19%

자료: 알제리 통신규제 기구(Post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authority) 2008년 12월

최근 이동전화 업체별 가입자 분포 현황(2011년 2분기 기준)

이동전화 업체	시스템	서비스 개시일	가입자 수(천명)	시장 점유율
Algerie Telecom	GSM 900	1999년 2월	12,790	34.8%
Orascom Djezzy		2002년 2월	15,964	43.4%
Wataniya Nedjma		2004년 8월	8,051	21.9%
합계			36,805	100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 2011. "North Africa Telecommunications Report Q4 2011."

이와 같이 알제리 휴대폰 시장은 민간업체인 Orascom Telecom Algeria, Wataniya Telecom Algeria, 그리고 국영업체인 Mobilis Algeria Telecom(ATM)이 과점중이다. 2005년까지 Orascom이 시장점유율 53%로 1위를 유지했지만, Wataniya와 AT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52%에 이르렀던 Orascom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에는 43.4%로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AT의 점유율은 29%에서 34.8%로, 그리고 Wataniya의 점유율은 19%에서 21.9%로 늘어났다.

3) 인터넷

인터넷 사용 열기도 확산되고 있다. 알제리의 인터넷 시장은 발전초기 단계에 있지만 1998년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 당시 5만 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4년에는 85만 명으로 늘어나 불과 4년 만에 무려 7배나 증가했다. 2011년 기준으로 6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인터넷 호스트의 수도 1999년 220개에서 2004년에는 944개로 늘어났다. 인터넷

호스트가 늘어났다는 것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의 수가 많아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만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확산에 따른 서비스 공급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s)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만 해도 10개 미만에 불과했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수가 2004년에는 35개사로, 2009년말에는 73개로 늘어났다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인터넷 산업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알제리 정부는 광통신망 구축을 통해 현재의 다이얼 업(dial-up) 방식의 인터넷 접속방식을 초고속통신망(broadband) 방식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주요 도시지역에서는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AT사는 수도 알제시를 비롯한 일부 도시지역에서 2003년 11월 ADSL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대중화(2013년까지 가입자 600만 명 목표)를 위해 주요 지역에 ADSL 30만 회선 구축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이처럼 인터넷 인구가 단기간에 급팽창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부당국의 요금인하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알제리 정부는 인터넷 사용 장려차원에서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요금 인하를 적극 권고해 왔다. 그 결과 알제리의 인터넷 사용요금은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과 이집트 등은 높은 인터넷 접속료와 사용료로 인해 인터넷 보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알제리의 인터넷 사용요금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터넷 보급 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알제리의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10%로 주변의 이집트나 모로코에 미치지 못하며, PC 보급률 역시 20%로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형편이다. 알제리의 인터넷 사용자는 주로 대도시 지역(Algiers, Oran, Constantine)의 기업 및 관공서이며, 주된 용도는 이메일 또는 정보자료 검색이다. 알제리의 인터넷 보급률이 저조한 주된 요인은 국민소득 대비 높은 가입비와 컴퓨터 구입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알제리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관련 장비의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음다. 다만, 낮은 컴퓨터 보급률과 국민소득 대비 높은 통신요금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확산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 의약/의료용품 제조

알제리 정부가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보건과 그 기반시설, 서비스 및 설비이다. 알제리 정부는 일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지만 현재 알제리 시장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70%는 수입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알제리 국내외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국내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전문의약품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부족현상을 겪는다.

SAIDAL 그룹은 유일한 국영 의약품 제조업체이며, 국내 생산의 85%를 차지한다. 현대화 및 개발 계획을 통해 2013년까지 2배의 생산량 증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 시장점유율이 총 35~4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그룹은 세 개의 자회사 PHARMAL, BIOTIC 및 NTIBIOTICAL를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간 및 공공회사가 약 44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15%의 생산은 민간 제조업체에서 담당한다.

2012년 2월 알제리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알제리는 2014년까지 의약품의 70%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목표이다. 알제리는 2011년 의약품 수입에 25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 수입 비용을 줄이고 2014년까지 일반 의약품의 생산과 소비의 70%를

국내생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알제리 의약품 시장에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요르단의 'Hikma Pharma'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90년대에 알제리에 진출한 Hikma Pharma 그룹은 2000년대부터 알제의 Staoueli에 첫 공장을 건설했다. 2012년 현재 Hikma는 알제리에서 판매되는 5683가지의 약품들 중 912개를 취급하고 있다.

다. 식품산업

1) 미곡생산

주식인 파스타와 곡류 기반 식품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수의 민간기업들이 파스타 (식품 소비의 30%), 쿠스쿠스 (밀을 찌서 만드는 북아프리카 전통 음식), 세몰리나 (푸딩이나 파스타를 만드는 데에 이용 되는 거친 밀), 밀가루 등을 생산한다. ERIAD Algérie는 밀을 기초로 하여 세몰리나, 밀가루, 파스타, 쿠스쿠스 등의 식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국영기업이다. ERIAD는 1970년대에 설립되었지만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경영에 기반하고 있는 까닭에 시장의 혁신에 비하여 뒤떨어진 상태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몇몇 민간 기업들은 양질의 제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 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고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기업의 예로 동부지역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LIANA과 전국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는 SIM (Semoulerie Industrielle de la Métidja)를 들 수 있다. LIANA의 1일 생산량은 600천kg이며 이 중 300천kg은 거친 밀이며 나머지 300천 kg은 부드러운 밀. LIANA는 시장의 약 8%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와 경쟁을 고려할 때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Hanaoui Groupe, Blanky Groupe와 같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

2) 식용유 / 마아가린 / 버터 제조

식품 산업에 이용되는 지방 제품과 기름은 1997년까지 유일한 공영 기업인 ENCG의 독점 하에 있었다. 1983년에 설립된 ENCG는 채유(菜油), 해바라기 기름, 마가린, 버터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지방 제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서 몇몇 민간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 들었는데 여기에서 강력한 기반을 다지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Cevital로서 이 회사는 지방 제품 생산을 시작한 최초의 민간 업체이다.

현재, Cevital는 시장의 60%, ENCG는 거의 40%를 담당하며 나머지 2% 정도는 몇몇 민간 업체로 구성.

3) 설탕 제조

설탕(연간 약 1백만 톤 소비) 생산부문은 매일 1,600톤을 정제 (연간 560,000톤)하는 Cevital이 지배 중. Cevital은 국립 설탕 생산업체인 ENASUCRE와 함께 시장의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생산은 정제 및 포장을 의미.

4) 음료 제조

알제리 음료 생산분야에서 활동을 개시한 최초의 민간 업체는 1921년 설립된 Hamoud Boualem으로서 극심한 경쟁, 특히 COCA COLA, PEPSI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등장 이후 가열된 경쟁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배중이다. 현재 중/대 규모의 생산 용량을 가진

음료 공장이 60여 곳에 이르며 Hamoud Boualem에 이어 NCA(Nouvelle Conserverie Algérienne)와 COCA COLA가 그 뒤를 잇고 있다.

5) 포장부문

식품 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포장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활발한 실정이다. 식품의 포장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이 다수 있고 포장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국영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Tonic Emballage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부문에 이 외에도 다수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Tonic Emballage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 중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아직도 개척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 물, 환경시장

1) 개요: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등장

가) 현재 알제리 환경분야는 제도와 법령의 정비를 통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 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활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PNAEDD, Plan national d’action environnementale et Développement durable)’은 2001~2010 년까지 실천할 다양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해 유발자가 세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환경기금의 조성을 통한 국가 환경공해방지 기금(FEDEP)을 통해 재정이 지원된다.

FEDEP 의 용도는 기업의 공해 감소나 방지노력을 지원 내·외국 컨설팅 회사의 공해방지 연구 재정지원, 공해방지관련 신기술투자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외에도 해안선보호 국가기금, 사막화 방지기금이 있다.

공포된 법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쓰레기 관리, 제거에 관련된 2001.12.12 의 01-09 법
-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촉진에 관련된 2004.8.14 의 04-09 법
- 장기적 발전 측면에서 재난 시 위험 감소, 관리에 관련된 2004.12.25 의 04-20 법
- 물과 관련된 2005.9.4 의 05-12 법

2) 행정기관: 국토관리-환경-관광부

환경분야는 국가핵심현안중의 하나로 이로 인해 2000 년 이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했다. 국토관리-환경부(MATE)는 2006 년 6 월 관광분야까지도 그 권한이 확장됐다. 국토관리-환경-관광부(MATET)는 사회-경제발전 속에서 환경적 현안문제를 담당하는데, 그 내용은 공해, 소음 방지, 생태계와 녹지 보호, 관리, 감독, 환경교육, 국제협력 등이고 이를 위한 환경, 장기적 발전 연구소 (ONEDD), 환경 교육 연구소(CNFE), 쓰레기 관리청(AND), 탈공해 생산기술 국가연구소(CNTPP) 등이 있다.

이 기관 이외에 MATET 는 각 도(ولاية) 단위에 다른 국가기관, 도, 지방자치체와 공조해 국가 단위에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MATE 는 물 정수와 관련해서는 수자원부(MRE)와 재생자원과 해수담수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광업부(MEM)와 협조를 하고 있다.

3) 미래 계획: 폐기물 관리

2005-2009 년을 위한 경제성장지원 5 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는 365 억 디나르(4 억 2500 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50%가 기계, 교육, 수거장비, 매립장 관련 장비, 폐기물을 통한 비료 생산, 병원폐기물 소각로, 폐기물 재생을 위한 가정쓰레기 관리 프로그램(PROGDEM)과 특수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PNAGDES)에 쓰였다.

4) 물 정수

수자원부(MRE)는 2005~2009 년 5 개년 공공투자 계획의 일환으로서 150 억 달러가 물과 정수분야에 투자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2006 년 47 의 댐이 2010 년에는 72 개로 늘어나고 물 저장능력이 52 억㎥에서 78 억㎥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0~2014 년에 추진될 5 개년 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 270 억 달러가 투자되어 물의 원활한 공급과 위생, 홍수 방지를 위해 총 35 개의 댐과 34 개의 하수처리시설 등 3000 건 이상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5) 해수 담수화

정부계획은 사업자가 BOO(Build Operate and Own)방식으로 운영하는 13 개 해수담수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226 만 입방 m 의 담수처리능력을 보유하였다.

2010 년-2014 년간 추진될 새로운 5 개년 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 8,500 만불을 투자하여 8 개의 추가 담수처리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EU-알제리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인데 2005년 9월 발효되었고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완전 자유무역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

1단계 리스트 (협약발효 직후 유효)	2단계 리스트 (협약발효 2년 후 5년간에 걸쳐 적용)	3단계 리스트 (12년간 점진적 철폐)
- 중간재 - 원자재 - 화학공업용 반제품 - 금속공학 - 섬유 - 건축재료	- 의약품 - 기계장치 - 전기 및 전자설비 (가전제품 제외) - 철도운송설비 - 자동차 수리 부품 - 제어, 측정 설비 기구	- 소비재 - 재고품

하지만 최근 9월 1일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020년까지로 관련 계획의 연기가 이루어졌다.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분야

- 알제리-EU간의 최근 협정에 따르면, 25가지에 해당하는 농산품에 대한 의무수입할당제가 취소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우유, 마가린, 치즈 등의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들에 대한 새로운 의무수입할당제가 생길 것임.
- 이미 알제리는 2010년 9월에 36개의 농산품 의무수입할당제 폐지를 추진한 바 있음.

○ 산업제품 분야

- 2012년 9월부터 관세 철폐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었던 1058개의 유럽 제품에 대한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
- 자동차 및 부품, 전기모터, 전기변압기, 발전기류, 배터리류, 전화기, 케이블 선 등 생산에 민감한 82개 품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관세가 복원되며, 관세 철폐 효력 발효 날짜는 기존 협정이었던 2012년 9월보다 4년 미루어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절단기, 자동차단기, 조립형 케이스, 스위치차단기, 전등, 크레인 및 지게차, 음식냉동고,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2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페인트류, 광택제류, 샴푸,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든 운송 및 포장제품, 대리석 도자기, 수도 가스 분야 밸브, 목재 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은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미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관세가 복원됨.
- 화장품, 종이, 화장지, 의류, 신발, 카페트, 식기류,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등 617개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관세 인하가 유보될 것임. 이후 관세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0%가 될 것임.

현재 가입 협상 진행 중인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준비 일환으로 통상법 및 기업 STATUS와 같은 법, 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1) 무역수지 동향

구분	2008	2009	2010	2011 (추정)	2012 (예상)	2013 (예상)
무역수지(백만\$, FOB)	40,600	7,780	18,200	28,470	30,809	36,169
상품수출(백만\$, FOB)	78,590	45,180	57,090	72,660	76,526	85,737
상품수입(백만\$, FOB)	37,990	37,400	38,890	44,190	45,636	49,568
서비스수지(백만\$)	△7,590	△8,690	△8,330	△7,800	△8,322	△9,519
이전수지(백만\$)	2,780	2,630	2,650	2,400	2,106	1,876
외환보유고(백만\$)	143,544	149,347	162,915	183,122	199,459	207,033
대외채무(백만\$) *External debt stocks	5,935	5,424	5,276	4,708	4,488	4,317

자료: EIU Country Report 2012년 9월

가. 연도별/국가별 수출입

□ 수입동향

순위	국가명	수입액(US\$백만)			점유율(%)			증가율(%)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0/2011
	총계	39294	40473	47247	100	100	100	16.74
1	France	6160	6100	7119	15.68	15.07	15.07	16.71
2	China	4751	4441	4740	12.09	10.97	10.03	6.73
3	Italy	3695	4052	4679	9.4	10.01	9.9	15.47
4	Spain	2971	2637	3429	7.56	6.52	7.26	30.02
5	Germany	2765	2342	2560	7.04	5.79	5.42	9.32
6	United States	2005	2089	2166	5.1	5.16	4.58	3.68
7	Argentina	807	1216	1783	2.06	3	3.78	46.69
8	Brazil	884	902	1760	2.25	2.23	3.73	95.12
9	Korea, South	1120	1975	1616	2.85	4.88	3.42	-18.19
10	Turkey	1746	1515	1399	4.44	3.74	2.96	-7.66

(자료: World Trade Atlas 2012)

□ 수출동향

순위	국가명	수입액(US\$백만)			점유율(%)			증가율(%)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0/2011
	총계	45194	57053	73490	100	100	100	28.81
1	United States	10365	13827	15138	22.94	24.24	20.6	9.48
2	Italy	5702	8778	10448	12.62	15.39	14.22	19.03
3	Spain	5402	5909	7191	11.95	10.36	9.79	21.71
4	France	4424	3776	6538	9.79	6.62	8.9	73.16
5	Netherlands	3265	4164	4920	7.23	7.3	6.69	18.16
6	Canada	2439	2971	4462	5.4	5.21	6.07	50.19
7	Brazil	1466	2415	3236	3.24	4.23	4.4	33.98
8	United Kingdom	1142	1290	2857	2.53	2.26	3.89	121.51
9	Turkey	2002	2704	2527	4.43	4.74	3.44	-6.54
10	India	507	1565	2238	1.12	2.74	3.05	43.02

(자료: World Trade Atlas 2012)

나. 품목별 수출입: 상위 10 개 품목

□ 주요 수입품목

HS code	품목명	수입액(US\$백만)			점유율(%)			증가율(%)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0/2011
84	Machinery	7361	8752	8221	18.73	21.62	17.4	-6.06
87	Vehicles, Not Railway	4798	4084	5037	12.21	10.09	10.66	23.35
10	Cereals	2314	1951	4022	5.89	4.82	8.51	106.2
85	Electrical Machinery	3336	3010	3482	8.49	7.44	7.37	15.68
72	Iron And Steel	2524	1967	2998	6.42	4.86	6.35	52.39
73	Iron/Steel Products	4980	4422	2903	12.67	10.93	6.14	-34.35
30	Pharmaceutical Products	1743	1672	1962	4.44	4.13	4.15	17.37
39	Plastic	1189	1319	1678	3.03	3.26	3.55	27.2
04	Dairy,Eggs,Honey,Etc	863	994	1544	2.2	2.46	3.27	55.35
17	Sugars	569	679	1163	1.45	1.68	2.46	71.37

(자료: World Trade Atlas 2012)

□ 주요 수출품목

HS code	품목명	수입액(US\$백만)			점유율(%)			증가율 (%)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0/ 2011
27	Mineral Fuel, Oil Etc	44443	56087	72265	98.34	98.31	98.33	28.84
28	Inorg Chem;Rare Erth Mt	194	241	413	0.43	0.42	0.56	71.39
17	Sugars	9	234	268	0.02	0.41	0.37	14.67
25	Salt:Sulfur:Earth,Stone	94	55	141	0.21	0.1	0.19	157.5
72	Iron And Steel	105	77	59	0.23	0.14	0.08	- 24.12
29	Organic Chemicals	54	60	45	0.12	0.1	0.06	- 23.63
79	Zinc+Articles Thereof	37	61	36	0.08	0.11	0.05	- 40.98
41	Hides And Skins	12	19	32	0.03	0.03	0.04	66.37
22	Beverages	24	29	28	0.05	0.05	0.04	- 1.82
70	Glass And Glassware	17	27	27	0.04	0.05	0.04	0.34

(자료: World Trade Atlas 2012)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알제리 교역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증감률)	354,545 (57.9)	340,203 (△4.0)	390,606 (14.8)	768,091 (96.6)	863,063 (12.4)	1,094,919 (26.9)	1,495,609 (36.6)	1,122,237 (△25)
수입 (증감률)	240,486 (25.5)	166,227 (△30.9)	577,540 (247.4)	646,508 (11.9)	844,723 (30.7)	688,359 (△18.5)	286,903 (△58.3)	130,428 (△54.5)

(자료: KOTIS)

2)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알제리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96	36.6	1,122	-25
1	7411	승용차	308	1.4	270	-12.2
2	7412	화물자동차	181	-31.5	136	-25
3	2140	합성수지	89	41.4	101	13.1
4	6152	철구조물	46	195.6	53	13.8
5	7251	건설중장비	82	12	52	-36.6
6	6161	철강재용기	50	36.2	48	-5.4
7	7420	자동차부품	25	28.8	36	43.3
8	8423	배전및제어기	38	1,500.60	34	-11.1
9	7216	화학기계	66	944.8	29	-55.6
10	8211	칼라TV	16	437.3	23	44.9
11	8500	전선	16	848	22	36.9
12	7131	공기조절기	86	159.2	21	-75.5
13	6141	철강관	44	30.1	19	-57.9
14	8241	세탁기	7	-46.3	18	155.7
15	6171	주단강	41	73.7	18	-57
16	7419	기타자동차	17	55	16	-9.1
17	7112	펌프	12	1,128.60	15	25.1
18	7512	밸브	19	-14	11	-38.4
19	8230	냉장고	11	-33.6	11	1.9
20	7901	기타기계류	5	1,218.20	11	99.6
2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9	54.3	9	6.2
22	8421	변압기	6	886.3	9	55.6
23	3203	타이어	12	2.5	9	-23.9
24	4360	편직물	4	420.3	9	150.3
25	8151	계측기	1	1,938.00	9	1,466.80
26	7902	기타기계류부품	11	-23.5	8	-27.2
27	7413	특장차	7	-16.5	6	-10.8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8	6172	주철	4	97.4	6	67.7
29	6134	아연도강판	3	13.8	6	69.6
30	3204	타이어튜브	1	-49.4	5	447.1
31	8153	자동제어기	3	138,596.70	4	27.9
32	8155	분석시험기	1	2,396.60	4	239
33	8137	소프트웨어	1	8,723.20	4	231.6
34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	4.3	4	29.6
3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8	95.5	3	-58.8
36	7521	고속도강및초경공구	4	144.3	3	-13.8
37	8121	무선전화기	1	-69.8	3	129.7
38	7290	기타산업기계	8	5,135.30	3	-64.6
39	7262	용접기	1	-22.8	3	258.1
40	8332	변성기	0	671.4	2	133,059.20
41	8147	의료용전자기기	2	28.4	2	24.2
42	8352	축전지	4	40.7	2	-38.9
43	9509	기타의료위생용품	1	42.4	2	142.9
44	7242	식품포장기계	0	-25	2	318
45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1	10	2	132.6
46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	278.3	2	124
47	3102	플라스틱관	2	77.5	2	-7.1
48	7522	수공구	0	-77	2	798.7
49	7511	볼트및너트	2	315.1	2	-37

□ 우리나라의 품목별 대알제리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86,903	-58.3	130,428	-54.5
1	1334	나프타	37,630	-84.3	127,034	237.6
2	6261	아연괴및스크랩	0	-	1,461	-
3	411	참치	381	6,287.50	470	23.4
4	7902	기타기계류부품	0	-	429	-
5	2512	고지	35	-	292	731.1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23	-57.2	273	22.6
7	451	어육	599	14.7	156	-74
8	8153	자동제어기	12	47.6	61	402.9

* MTI 4 단위 분류 (자료: KOTIS)

3. 수입규제제도

1) 수입 규제 제도

공산품 및 주류 등 모든 상품이 수입이 자유화된 개방시장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대 알제리 시장 진출에는 규정상 제한이 없으나 각종부품 등 일부 품목은 규격인증 등의 사유로 세관통관단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터키 등 제3국에서 가전 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의 급격한 시장유입으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어 일부 제품에 대해 세관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9.1일부로 발효된 알제리-EU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단계적인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따라 EU의 농산물, 원자재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관세가 폐지되었고 오는 2017년까지 품목별로 매년 관세가 인하되어 제로관세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역외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알제리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역규모 증대를 가져와 비EU산 국가의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알제리의 기초산업 미 발달로 반 덤핑법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나 우리나라의 주종수출 품목인 원자재, 정보통신제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이 단계적인 관세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시장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진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수입 금지 품목

수입 금지 품목은 소수이나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중고 자동차, 중고 건설 중장비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2005년 하반기부터 금지되어 있다. 이외 수입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제반 규격 및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통관이 안되고 있으며 최근 조류 독감으로 외국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3) 수입 허가 품목

모든 국가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 규제사항 아래 예시와 같다.

- 동식물 수입 시 검역관계 확인서류 및 보건당국의 수입 허가증
- 의약품 수입 시 보건당국 허가
- 화학 약품 수입 시 관련 당국의 수입 허가 및 안전 하역 방안
- 정기 간행물 및 특별 간행물 수입 시 관련 당국 허가
- 영화 수입 시 당국의 허가(필요 시 검열)
- 측량단위 수입 시 당국의 사전 검토
- 전쟁 물자가 아닌 모든 무기류 수입 시 당국의 허가
- 폭발물 수입 시 당국의 허가
- 음식물 수입 시 품질 보증서 및 균질 보증서

4) 관세

수출입 허가 또는 금지 품목, 각 품목의 관세는 알제리 관세청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http://www.douane.gov.dz>)

알제리정부는 WTO 가입을 앞두고 복잡한 관세율을 단순화(원자재 5%, 반가공 제품 15%, 완제품 30%)했고 투자유치를 위해 동일품목이라도 생산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알제리 내에서 조립 및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산업 육성정책과 고용창출을 위한 수입제도를 운영중이다.

□ 반덤핑 상계관세

알제리 세관법 제8조는 덤핑수입 상품 또는 원산지국(또는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수혜한 모든 상품 그리고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알제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수입품 등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비관세 장벽

□ 규격인증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현재 규격인증, 검사 라벨링 등과 관련 우리제품에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만한 제도는 없으며 품목별로 유럽 각국에서 통용되는 검사 및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예: 자동차 검사 및 규격 등)는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알제리 정부는 최근 국가 표준 검사 센터를 설립, 각종 표준, 제품인증 제도를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체제로 정비하려는 노력을 경주 하고 있는 바, 그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된다.

□ 환경관련 규제

우리와의 교역에 있어 환경분야 규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경관련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품목(예: 식물, 화학약품)수입 시에는 관련 당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오존층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판명된 화장품 및 기타 물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2002년 환경보호관련 세율을 인상(담배 1갑당 2.5DA) 또는 신설(휘발유 1L당 1DA)하고, 환경오염 발생 원인제공자(예: 병원)에게 소각 장치 등 환경보호 설비를 갖추도록 규제되고 있어 오염소각 장비 또는 장치 관련 우리 기업의 대 알제리 시장 개척 시 주의해야 한다.

6) 2009~11년 보충재정법(LFC)

□ 외국인 투자 시 지분 49%로 제한

외국인의 경우 알제리 투자를 원할 경우 지분의 49%까지만 허용하며, 나머지 51%는 여러 알제리 회사로 분산 가능하다.

□ 지불조건 신용장으로만 허용

기존의 오픈어카운트, DA, DP 등의 지불조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L/C로만 지불하도록 2009년 7월 26일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 일반 소비자들 소비재에 대한 대출금지

알제리 정부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동 법안을 입안. 자동차 등 알제리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고 알제리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 수입절차를 밟기 위한 위임장 금지

당초 알제리 내 CEO들만이 무역 시 수입절차를 밟도록 하려 하였으나 알제리 정부는 한발 물러나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한해 위임장을 새로 제정하여 1인에 한해 당해 선착장에서 대리인 자격 부여. 선착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 다른 대리인 지정 가능하다.

4. 관세제도

알제리는 수입상품 분류 국제기준(HS CODE)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세율을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목표로 개방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관세율(DD)조정(원자재5%, 반가공 제품15%, 완제품30%)해 자본이 생산활동과 투자에 유입 되도록 유도해 국내경기 활성화와 생산가격 인하를 통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동일 품목이라도 생산공정에 쓸 품목이면 관세를 5% 또는 15%를 적용, 알제리 내 조립, 생산을 유도해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입정책을 취하고 있다.

해당 생산시설 확충관련, 기존 공기업의 민영화나 신규 산업체 창업을 지원목적으로 특혜를 부여, 외국자본의 대 알제리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알제리 수출 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련세목은 관세, 특소세 등이 있으며 세율은 품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세부 정보는 알제리세관(www.douane.gov.dz)에서 취득할 수 있다

알제리정부가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부가해 오던 임시추가관세(Temporary additional duty/TAD)가 2006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폐지되어 관세 제도가 3가지 세율로 단순화되어 대 알제리 수출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정부는 지난 2001년 8월 IMF의 권고에 따라 관세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당시 최고관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한 반면, 최저관세율은 폐지하고 관세율을 5,15,30%로 3가지로 단순화해 시행해 왔다. 이외 별도로 지난 2002년 1월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추가관세(TAD)를 신규로 도입해 외국산 대다수 완제품 수입에 한시적으로 수입관세 외에 추가로 임시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2006년부로 폐지되었다.

그간 알제리는 지난 2005년 9월 1일부로 EU와의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체결과 WTO가입을 위한 무역시스템의 국제적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체제 정비 등 하고 있으며 무역장벽이 점차 제거되고 있는 중이다.

알제리는 EU와 모든 상품에 대한 무관세 통관 시점을 협의 중이었으며 결국 오랜 협정 끝에 원래 협상하였던 2017년이 아닌 2020년으로 해당 시점을 3년 연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농산물 및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발효의 날짜가 또한 연기 되었으며 약 85억 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 세목 및 세율

- 관세(DD): 0%, 5%, 15%, 30% 의 4개 세율이 적용되면 세부 상품별 적용세율은 알제리 세관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특별소비세(TIC): 10%-90%간의 6개 세율 적용
- 추가임시세(DAP): 40% (2001.7.19 보충재정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매년 전년대비 12%씩 인하 적용되어 왔으나 2006년. 1월 1일부 폐지됨)
- 부가가치세(TVA): 7%, 17%의 2개 세율이 적용

- 세관수수료(RD): CIF가격 x 0.4%
- 세관서류 양식세(RFD): CIF가격 x 2%: CKD(원자재) 및 SKD(반가공품)에 대한 세율

알제리는 국내 생산 활동 및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원자재나 반가공품을 수입, 알제리 내에 서 조립하는 경우, 관세(DD) 적용에 있어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품수입에 대한 이러한 유리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산업부 소속 기술위원회(COMITE TECHNIQUE)로부터 CKD 또는 SKD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필요서류와 조건이 구비 되었을 경우에 규정상으로는 신청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승인 여부가 판정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관세율을 적용할 때 또 하나의 변수는 투자촉진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사업의 실현에 직접 관계되는 물품의 수입에는 세율적용상 특혜가 부여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알제리 투자촉진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 주요인증제도

일반제품의 경우 알제리는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인 CE마크와 국제규격인증인 ISO 등 대부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알제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수입되는 제품 중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부 제품들은 관련부서의 기술규격 사전 인증과 세관통관 시 사후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제리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Telecommunication 산업 분야와 식품 분야로, 이동 통신 기기 수입은 알제리 통신규제위원회(ANRT)의 규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의 경우 알제리 보건부 산하의 The Central Pharmacy of Hospitals에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통신기기 제품은 최소 한달 의약품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 선적전검사
 - 종전에는 자체검사서류 제출로도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타기관 검사서류 제출만 허용(특히 L/C 및 D/P 거래 시)
- 외국수입업체 등록조건 강화
 - Ouyahia 총리는 2009년 5월 총리령 09-181호(09.5.12)을 통해 외국수입업체의 등록 조건을 강화

총리령은 상품 수입후 별도의 가공과정 없이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알제리에 진출한 외국수입업체는 자본금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기등록된 외국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최근 7월 26일자 관보에 게재 알제리 정부는 상기 규제를 통해 알제리의 수입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08년의 경우 400억불 어치의 상품을 수입)

6. 지적재산권

알제리는 제도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국제산업재산권, 상호 등이 보호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성 방송 수신용 스마트 카드, 각종 소프트웨어, 영화 및 음반 CD 등 불법 복제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저작권협회에 의하면 알제리가 중동 아프리카권국 중 제1의 불법 복제국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중국, 아시아5국에 이어 알제리가 세계 7번째의 불법복제 오명을 안고 있으나 WTO가입을 앞두고 국내각종 제도가 국제수준으로 개혁 중이라 조만간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국제저작권보호기관(INAPI)에 의하면 2004년 18만건의 불법 복제상품이 적발 되었다고 발표 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6만 9천건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난 수치로 최근 들어 불법 복제상품 유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U\$8,400만에 해당하며 불법 복제상품의 주유입 경로는 연간 3백만 명에 달하는 재외거주 알제리게 여행객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주로 CD, DVD, 카세트, 소프트웨어 등이다.

알제리 산업재산권 보호기관(INAPI/www.inapi.org)에는 184,976개의 상호(Trademark)가 등록 되어 있는데 주로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의 기업 브랜드이며 이중 10% 정도인 18,000건의 알제리상호가 등록되어 있다.

알제리 내 지적재산권 등록은 상업등기소인 CNRC(Cente National du Registre du Commerce /CNRC)가 담당하고 있다. 국제특허(Patents)는 4,000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알제리기업의 특허가 489건이며 나머지는 외국기업이 특허이다. 특허권은 알제리 관련기관에 등록된 후 20년간 보호가 된다.

알제리는 지난 1973년 세계 Copyrights협약을 비준하여 서적, 공연물, 영화, 음반 등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을 보호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은 ONDA(Office National du Droit d'Auteur)가 있다.

7. 통관/운송

1) 통관

□ 통관절차

상품 통관절차의 특수성상 통관업무는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요구되는 관계로, 회사별 전담직원을 두거나 통관 수속대행사를 활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알제리 세관당국은 통관 자동관리 시스템(SIGAD)을 도입해 컨테이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스캔시스템을 설치해 수입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품 하역을 위한 항만 물동량 처리능력 부족으로 상품통관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알제리 내로 공항, 항구, 국경세관을 통해 수입상품이 도착하면 화주는 통관을 위해 항공운송의 경우 (LTA/ Letter of Aerial Transport), 해상운송시는 B/L(Bill of Lading), 육상운송의 경우 L/V(Letter of Trip)를 구비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통관대행사를 통해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나 통관신고서(Customs Entries)를 작성하고 수입업자의 무역등록증(Trade Register)과 사업자등록증(Fiscal Card) 사본을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수입상품 검사는 상품검사와 서류검사로 이원화되어 시행되며 상품검사는 인보이스상의 상품가격, 상품상태, 세관분류, 상품원산지, 중량 등을 검사하게 되며 서류검사는 원산지 증명 선적서류, 인보이스, 규격증명서 등 제반 통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검사하게 된다

세관당국(Inspector)에 의한 수입물품 검사절차를 하게 되며 상품별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상품은 2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상품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4개월내 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에 처해진다.

수입품검사 후 통과되면 검사관은 합격통지서를 발행하고 수입관세와 제세를 납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통관대행사에 하역비, 부두사용료, 검사비용 등 제반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은 스캔 절차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자에게 최종 인도되어 수입통관절차가 종료된다.

알제리의 통관제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불문자료인 세관법(CODE DES DOUANES)을 구입하거나 알제리세관 웹사이트 (<http://www.douane.gov.dz>)에서 사전에 통관에 필요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 상품 통관 시 필요서류-통관사 대행

인보이스 송장원본, EXI (공급업자 주문 수락서로, 공급자 소속국 세관의 확인필요),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 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PLI Cartable(수출업자명, 상품형태 상세 및 선박명 등 기재) 및 송금장 Fiscal Card(세무서 발행), 공급업자의 Packing List,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관세 납부증서가 필요하다.

2) 운송

□ 무역항 및 공항 개황

알제리의 해안선은 1,280km 이상이며, 45개의 항구 중 11개 항구가 혼합형 무역항(무역, 어업, 석유), Béthioua(Oran), Skikda 동부 등 2개 항구가 석유항, 31개 항구가 어업 관련이며, Sidi Fredj에 레저항 한 개가 있다. 주요 무역항으로는 중앙에 수도인 알제(Alger), 서쪽 오랑(Oran), 동쪽 안나바(Annaba)항이 있다.

알제항은 알제리 수입물동량의 30%(700백만톤 가량) 컨테이너의 70%를 처리하고 있다. 알제항은 현재 효율적인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연간 500,000 TEU에서 800,000 TEU까지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알제항 동쪽 360KM 지점에 위치한 쟈젠항(Djen djen)에서도 14,000 TEU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2014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알제항의 물동량이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알제리 교통부(Ministry of Algery)는 2009년 10월 1일부터 non containerized cargo(非컨테이너화물)를 운송하는 선박의 알제항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알제 시내에서 17KM 떨어진 850 ha 면적의 후아리 부메디엔 알제 국제공항은 (Aéroport d'Alger Houari Boumediene) 알제리를 통과하는 주요 항공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알제리에는 알제 국제공항 이외에도 10개의 국제공항과 16개의 지방 공항이 운영 중이다.

□ 운송 통관회사

- Compagnie: Compagnie Algérienne de Transit International -C.A.T.I.
 - Address: 35 avenue Malika Gaid -El Biar- Alger.
 - Tel: +213 21 90 08 13
 - Fax: +213 21 90 05 55
 - Mobile: +213 61 50 53 78 (D.BEN HAMIDA), +213 61 67 00 02 (M.YAHIAOUI)
- Compagnie: Sarl Transelect Logistique Transport
 - Address: 20 rue de la fontaine -El Biar- Alger
 - Tel: +213 21 92 15 18 / +213 21 92 50 25
 - Fax: +213 21 92 06 43 / +213 21 92 06 45
 - Contact: Mr. RAHMANIA.
- Compagnie: El AMANA TRANSIT
 - Adresse: 02 rue Maurice Ravel - Alger
 - Tel / Fax: +213 21 63 94 95
 - Mobile: +213 61 52 56 90 / +213 70 92 52 81
 - Contact: (Mr. S.SBAA)
- Compagnie: Global Shipping and Logistics Services
 - Adresse: 04, Rue Sidhoum Smail (ex Rue A) cite sociale les sources -Bir Mourad Rais- Alger 16300 , Algeria.

- Tel: 021.54.48.66
 - Fax: 021.44.59.77
 - E-mail: gsIs@globalshipping.com.dz / globalshipping_gsIs@hotmail.com
 - Contact: A.BELHARRAT.
- GEMMA SOCIETE GENERALE MARITIME
 - Adresse: 2, rue Jawaharlal Nehru BP 368 RP, 16100, Alger Centre. Algerie.
 - Tel: +213 21 74 73 00 / +213 21 74 77 55.
 - Fax: +213 21 42 38 25 / +213 21 74 76 73.
 - Email: gemasie@gema-groupe.com / gemadg@gema-groupe.com
 - Site Web: www.gema-groupe.com
 - Contact: Mr. Belkadi Boualem (PDG)
- CMA-CGM
 - Adresse: 65, bd Benyoucef Benkhedda, 16405, Hydra. Alger, Algérie.
 - Tel: +213 21 54 64 72
 - Fax: +213 21 69 31 61
 - Email: age.genmbox@cma-cgm.com
 - Site Web: www.cma-cgm.com
 - Contact: Mr. Hani Lazhar (Directeur Général), Mr. Amroun Arezki (Gérant)
- Transit Merabtene
 - Adresse: 28, boulevard Zirout Youcef, 16100 Alger Centre. Algérie.
 - Tel: +213 21 71 81 02 / +213 21 71 81 07 / +213 21 71 81 12 / +213 21 71 81 13 / +213 21 71 81 11
 - Fax: +213 21 71 81 10 / +213 21 73 56 38
 - Email: transit.merabtene@caramail.com
 - Contacts: Mr. Merabtene Abdelhamid (Directeur Général), Mme. Merabtene Safia (Assistante du Directeur)
- Nashco National Shipping Company
 - Adresse: 1, Rue des frères Oukid BP 370 RP 16307, Casbah Alger, Algérie.
 - Tel: +213 21 71 34 47 / +213 21 71 34 42 / +213 21 71 34 43 / +213 21 71 34 44
 - Fax: +213 21 71 34 43 / +213 21 71 34 44 / +213 21 71 22 38 / +213 71 34 44
 - Email: dalg@nashco-dz.com
 - Site Web: www.nashco-dz.com
- MAERSK Algérie
 - Adresse: 47, lotissement La Petite Provence, 16405, Hydra, Alger, ALGERIA.
 - Tel: +213 21 60 50 00 / +213 21 48 48 71
 - Fax: +213 21 60 50 18 / +213 21 60 50 17
 - Email: algsalimp@maersk.com / algsalexp@maersk.com
 - Site Web: www.maersksealand.com
 - Contacts: Mr. Ginkels Gunther (Directeur Général), Mr. Agli Wysem. (Directrice des Ressources humaines), Mme. Boucheffa Meriem (Directrice Commerciale)

- FILTRANS INTERNATIONAL TRANSIT TRANSPORT
 - Adresse: 5, rue de Biskra (Lavigerie) BP 165 RP, 16212 Mohammadia. Alger, Algérie.
 - Tel: +213 21 53 94 61 / +213 21 82 93 13
 - Fax: +213 21 82 39 11 / +213 21 82 93 12 / +213 21 53 07 33
 - Email: dec@filtrans.net / dg@filtrans.net / alger@filtrans.net
 - Contact: Mr Benhocine Mohamed Said (President Directeur Général)

IV. 투자

1. 투자환경

1) 긍정적 요인

□ 지속적 경제성장세

최근 5년간 GDP는 연평균 3.5%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인당 GDP도 '04년 6,605\$로부터 '11년 8,443\$로 증가했다. 오일머니 유입에 힘입어 외채 조기상환 및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알제리 경제가 2012년에도 건실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실질 GDP성장율(%)이 2011년 2.5%에서 2012년 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IU 자료, 2012년의 성장률은 예상치

□ 주요 천연자원 보유

- 아프리카 지역 내 원유 매장량 3위(세계 16위) 및 천연가스 매장량 2위(세계 10위)의 자원부국
 - 생산량 기준으로는 아프리카 지역내 최대 천연가스 생산 및 3위의 원유 생산국
 - * 원유 매장량('11, 억배럴): ①리비아 415, ②나이지리아 362, ③알제리 120
 - * 천연가스 매장량('11, 10억㎥): ①나이지리아 5,210 ②알제리 4,502 ③이집트 1,940
- 알제리산 원유(Sahara Blend)는 저유황 경질유(API 43.5o~47.5o, 황함유율 0.09%)로서 등유, 나프타 등 고급유종 수출 양호
 - * 석유제품수출: 나프타 34%, 등유 12%, 경유 25%, IPG 4%, 기타 25%
-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Exploration Bid Rounds) 방식을 통해 자국의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사업을 외국자본에 개방
 - * BP, Shell, Anadarko, Total, GDF, Repsol, CNPC, Petro Vietnam 등 20여개 외국 석유사가 알제리 정부와 탐사계약 체결

□ 지정학적 중요성

- 알제리는 중동·아프리카·유럽 3대륙을 연결하는 마그레브 경제대국으로서 아중동 및 유럽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 특히, 국토의 4/5를 차지하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은 언어적 의미(아랍어로 ‘불모의 땅’을 의미)와는 달리 막대한 에너지·자원 부존
 - * 석유(Hassi Messaoud), 가스(Hassi R'mel), 금·우라늄(Hoggar), 은(Ougarta), 다이아몬드 (Reggane), 철(Tindouf), 텅스텐(Ait Oklan) 등

□ 신흥 잠재시장

- 고유가 등에 따른 구매력 확대, 산업 다 변화정책 추진에 따른 투자재 수요 증가 등 교역 시장으로서의 중요성 증대
 -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설장비, 건자재, 선박 등 유망
- 우리나라와는 양국정상 교환방문('03.12 및 '06.3) 이후 각료급 공동 위 및 경험T/F 정례 교환개최 등 경제협력 분위기 활성화
 - 대통령 국민방문('06.3) 이후 대알제리 교역은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던 중 2011년 주춤
 - * 대 알제리 교역추이(백만 달러): ('08) 1,708 → ('09) 1,783 → ('10)1,782 → ('11) 1,252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및 이집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지역 5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등
 - 원유, LNG, LPG, 석유제품 등 에너지가 총수입의 99.5%를 차지
 - * 남아공(금·철·동·유연탄) 및 라이베리아(알루미늄)는 광물자원이, 나이지리아 (원유·천연가스) 및 이집트(천연가스·나프타)는 석유·가스가 수입의 대부분

2) 부정적 요인

□ 정국 불안요인 존재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테러 지속
 - 2006년 결성된 마그레브 지역 알카에다(AQIM) 조직 테러 주도
 - 정부기관, 경찰, 군인 및 외국인 대상 테러
 - 오스트리아 관광객 납치 등 외국인 납치 혹은 납치기도
 - 알제 시내 주변은 치안에 큰 문제가 없으나 동쪽 리비아 국경 지대 부근, 남부 사하라 지역 등은 아직도 테러 단체에 의한 위협이 지속.
-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 상존
 - 세계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나 경기가 회복되는데 2년은 적어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알제리로의 투자진출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 있음
 - 최근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EU의 경제 위기의 여파가 알제리까지 미칠 우려가 있음.

□ 사회주의 경제의 잔재인 비효율적 행정시스템, 관료주의, 부패, 정부의존적 경제구조 등 성장저해 요인 잔존

□ 제조업 낙후

- 자원형 저개발 경제구조
 - 알제리는 전형적인 자원형 저개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국가경제 발전이 석유산업에 의해 좌우

3) 기타

□ 에너지재정수입 활용한 경제개발계획(2010-2014) 추진 중

고유가 지속으로 2011년 말 기준 약 1,831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와 매년 3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중단기적인 신용상태 양호로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 투자리스크가 감소 추세.

□ 투자장려분야

알제리는 고용창출, 수입대체효과, 산업화 달성을 위해 외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 자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희망한다. 통신, 방산, 자동차조립, 전기.전자, 의료, 섬유, 철강, 금속, 기계, 비료, 중.소형조선 등이 유망.

2. 외국기업 투자동향

1) 개요

외자유치를 위해 2001년 8월과 2006년 7월에 각각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그 내용은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간 차별 폐지, 내외국인 투자자 간 법적 동등대우 보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특혜부여, 투자자본 및 수익금의 송금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선진기술 및 노하우 전수는 물론 자국 내 고용창출, 수입대체 효과, 산업화 달성을 목표로 외자유치 확대에 주력한다.

알제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국내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2000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점진적인 FDI 확대: 알제리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국내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2000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표 1-1]은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점인 2002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의 대 알제리 투자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외국인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석유일변도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의 비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알제리 투자신고 변화 (2002 - 2011)

(US\$ 1: DZD 72.58(2011))

연도	건수	고용	총액(DA/백만)
2002	1 053	37 028	164 110
2003	2 805	54 948	306 028
2004	1 464	34 197	268 553
2005	1 160	53 010	420 923
2006	2 665	72 519	561 231
2007	5 091	97 355	684 507
2008	8 012	107 643	1 841 108
2009	9 471	82 149	517 604
2010	7 760	75 492	436 281
2011	7 803	140 110	1 378 177
총합	47 284	754 451	6 578 522

자료: 알제리투자개발청 (ANDI)

지역별 투자현황(2002 - 2011)

지역	투자건수	총액(Million of DA)
유럽	230	313 200
유럽연합	190	272 550
아시아	31	512 196
미국	9	58 821
아랍국가	174	1 258 036
아프리카	1	4.51
호주	1	2.974
복수 국가 공동 투자	5	14 641
총합	451	2 164 378

자료: 알제리투자개발청 (ANDI)

[표 1-2]는 세계 지역별 대 알제리 투자현황을 보여줌. 2002~2011 년 기간 중 가장 많은 투자건수를 보이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지역이다. 식민지배 중주국인 프랑스의 알제리 투자규모는 투자총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외국인투자규모에는 한참 못 미친다. 현재 알제리에는 약 800 여개의 프랑스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는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에 알제리에 아랍계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아랍계의 알제리 투자규모는 유럽과 아시아,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아랍자본의 알제리 투자는 통신 및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6 년에는 아랍자본이 알제리 비 석유산업 외국인투자의 80% 이상을 차지. 최근에는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부문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투자도 열기를 띠고 있다.

산업별 알제리 투자현황(2002 - 2011)

(DZD: US\$: 72.65(2009))

분야	투자건수	%	총액(백만/DA)	%	고용인원	%
농업	847	1,79 %	69 733	1,06 %	51 331	6.80%
BTPH	9 023	19,08 %	1.031 134	15,67 %	186 424	24,71 %
제조업	5 310	11,23 %	2.723 249	41,40 %	205 163	27,19 %
보건의료	507	1,07 %	51 190	0,78%	11 135	1,48 %
수송	26 534	56,12 %	666 409	10,13 %	150 136	19,90 %
관광	358	0,76%	719 118	10,93 %	46 935	6,22 %
서비스	4 700	9,94 %	1.075 728	16,35 %	84 277	11,17 %
무역	2	0,00 %	37.514	0,57 %	15.5	2,05 %
정보통신	3	0,01 %	204.447	3,11 %	3.55	0,47 %
합계	47 284	100%	6.578 522	100%	754 451	100%

자료: 알제리투자개발청

산업별 외국인 투자현황 (2002 - 2011)

분야	투자건수	%	총액(디나르/백만)	%
농업	8	1,77 %	6.533	0,30 %
BTPH	70	15,52 %	41 981	1,94 %
제조업	257	56,98 %	949 710	43,88 %
보건의료	3	0,67 %	8.589	0,40 %
수송	16	3,55 %	9 351	0,43 %
관광	11	2,44 %	481 321	22,24 %
서비스	85	18,85 %	578 393	26,72 %
정보통신	1	0,22 %	88 500	4,09 %
합계	451	100%	2 164 378	100%

자료: 알제리투자개발청

산업별 외자유입 분포를 보면 BTPH 분야(건설 및 공공사업부문, 석유관련 사업)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석유, 가스분야는 영국, 미국, 호주 기업들이 석유광구 및 가스전 탐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9 년부터 유럽 국가들(독일 중심)과의 협력을 통해 신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DESERTEC 에 4000 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수송 및 제조분야는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의 알제리로 쇄도하고 있는 형국임. 2009 년 이후부터는 정보통신, 수송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 분야는 마그레브 3 개 국가(모로코, 알제리, 리비아)중 가장 낙후된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알제리 정부가 최근 자국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송분야는 도로, 철도, 지하철, 시내 전철 등의 운송분야, 항만확장 등의 시설확충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2011 년에 알제 시내에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2012 년 현재에도 계속해서 연장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음. 향후 수송, 교통분야에 2014 년까지 770 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1) 우리기업 투자진출 현황

□ 1990년대 자원개발 및 부동산분야에 한정 진출

1990년대 초 ㈜대우가 그룹 차원에서 알제리를 북부아프리카의 거점 지역으로 선정해 투자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1990년대 말에는 모든 투자기업이 철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우리기업의 IMF 사태와 테러로 인한 현지 안전문제에 기인했다. 과거 알제리 투자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석유탐사사업, 부동산 운영 등이 있었으나 전부 철수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 진출을 시작하였다.

□ 2006년 하반기 이후 우리기업의 관심 증대

2006년 국민방문이후 한/알제리간 전략적 협정 체결로 정부차원에서 대알제리 경험사업이 추진되었다. 한/알제리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06.9월 1일부로 발효, 우리기업의 알제리 현지활동에는 이론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진출여건이 조성되었다. 최근 알제리 투자법규 정비, 정국 안정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알제리로 경제 호황으로 건설, 석유화학, 수산, 종합무역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우리기업의 현지 법인 과 지사 설립 등 알제리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2011년 12월말 기준 우리기업의 대 알제리 투자는 총 53건, US\$ 202,037천으로 알제리는 우리 나라의 62번째 투자대상국이다. 지난 2011년 12월말 총 16개사가 진출했으며, 업종은 제조업, 건설, 무역서비스업 등이다.

□ 알제리 진출 한국 기업 리스트(2011 년 12 월 기준)

- (주)대우인터내셔널 알제리지사(Daewoo International Corp. Bureau De Liaison D'Algerie)
- 경남기업㈜(Keangnam Enterprises, Ltd.)
- 대림산업 알제리연락사무소(Daelim Industrial Co, Petrochemical Division)
- 대우건설 알제리지사(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Algeria See)
-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Dongmyeong Engineering Consultants)
- 부이난신도시개발㈜(Bnt Development Spa)
- 삼성물산 알제리지사(Samsung Corp. Algiers Liaison Office)
- 삼성전자 알제리지점(Samsung Electronics Algiers Office)
- 성보개발(주) 알제리법인(Sarl Sungbo Development)
- 우림건설 알제리법인(Woolim Construction Algiers Office)
- 우림건설 알제리지사(Woolim Construction Algiers Office)
- (주)공간그룹 알제리법인(Sarl Space Group Strategie)
- (주)KT(Korea Telecom Corporation)
- 한국토지공사 알제리지사(Korea Land & Housing Corp. Algiers Office)
- 한국통산㈜ 알제리지사(Korea Trading & Industries Co., Lt Kti Algeria Office)
- 한화건설(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 LG 상사㈜ 알제리지사(Lg International Corp. Algiers Office)
- LG 전자 알제리지점(Lg Electronics Algiers Liaison Office)

대알제리 투자신고 현황

(금액 단위: US\$천)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비고
총 계	42	16	334,251	53	202,03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년 12월 기준)

2)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투자업체	프로젝트 내용	투자시기	분야	비고
대우건설	Hilton Hotel 건축, 경영	1993. 8월 개관 1996년 호텔 잔여 지분 완전 인수	호텔업	2001.11월 매각,철수
(주)대우	자동차Workshop 건설, 운영	1996. 9월 건립 투자액:약 US\$ 5백만	제조	2003.12월 청산완료
석유개발공사, 대우, 한보, 삼성물산컨소시엄	유전개발사업	1994.11월 석유탐사 계약투자액: US\$2천만	유전개발	1997년철수
삼성물산, 경인에너지 컨소시엄	석유탐사업	1991년스페인Repsol 및 네덜란드 Orange Nassau사 합작	Issaouane 석유탐사사업 30%지분참여	지분보유

3)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 현지 유력 민간기업과의 협력

- 삼성전자의 경우 알제리를 북아프리카 가전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아 2006년 알제리 최대민영 기업인 세비탈(Cevital) 그룹과 생산설비 및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음. 이후 Cevital의 자회사 SAMHA를 통해 연산 TV 20만 대, 냉장고 20만 대, 세탁기 및 에어컨 각 10만 대 규모의 가전제품 위탁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가전제품 생산설비 및 기술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 현지의 유력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및 플랜트 수출을 함께 추진하는 것 역시 하나의 좋은 시장진출 전략이다.

□ 기 진출 다국적기업과의 협력

- 알제리 시장 진출 선발주자인 프랑스, 미국, 이태리, 스페인, 일본, 중국 등은 물론 최근 알제리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및 인근 중동국가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협력 및 Subcontract 등을 통한 진출 추진이 유망하다

□ 민영화 대상 유망 공기업 인수 활용

- 철강, 통신, 전자, 의료, 건설 및 건설장비, 운송기기, 광물분야의 민영화 대상 유망 공기업 경영권 인수 혹은 지분참여를 활용한 진출 역시 유망하다
- 이를 위하여는 각 부문별 SGP(공기업 자산관리공사)와의 지속적 관계수립 및 민영화 대상 공기업 공개입찰 참여가 필요하다
- 관심대상 대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업 투자진흥부를 통한 개별적 공기업 인수 의사 제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직접투자

-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활용한 석유화학부문에 대한 직접투자는 물론 알제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발전 및 전기부문, 제약부문, 엔지니어링 및 자동차부문, 식품가공 부문 등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유망하다
- 직접투자 관련 산업 투자진흥부 및 ANDI(투자개발청)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법(Investment Code/1993.10.5) 제정 시행

- 투자 자유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간 동등 대우 보장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는 투자법규(Investment Code)를 공포했다.
- 1995 년 5 월, 투자등록 등 투자절차에 대한 편의 제공 위해 ‘알제리 투자진흥청(APSİ) 설립했다.
- 주요 조항은 투자 자유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간 구분 폐지 및 법적 동등대우 보장, 투자촉진 관련 특혜 부여 시 국가개입 세금감면 등에 한정, 투자자본과 수익금의 이전 보장, 투자신청 서류 심사.결과 통보에 대한 최대 소요기간(60 일) 설정, 투자관련 분쟁 시 국제중재 보) 등이다

2) 신 투자법(New Investment Code/2001.3) 제정, 투자법령 정비

- 2001 년 8 월, 기존 투자유치 관계법을 및 공기업 민영화 법률 재정비 하고,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투자유치 단일 창구인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을 설립했다
- 2001 년 재정비된 투자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령 01-03(2001):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일반규정
 - 행정명령 01-281(2001): 알제리 투자위원회(CNI)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명령 01-282(2001): 알제리투자개발청(ANDI)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
 - 투자는 투자자의 국적, 법인 또는 자연인 및 국내 거주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외국인투자는 기간산업(통신, 전기, 가스 등)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가능
 - 투자신고시 기본적 제시사항은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고용인원, 관련 기술, 자원 조달계획, 환경보호 요건, 투자관련 계약, 예상 투자 기간 등
 -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장 내용은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는 동등한 대우 보장, ANDI 결정에 대한 이의 시 지방법원 항소나 중재가능,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전액 환전가능 등

3) 2009 년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 시행

- 2008 년 7 월 Bouteflika 대통령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따라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재무에 대한 추가법에서 제정 및 시행중이다.
 - 단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했다.
- 오일 및 가스 부문 외 여타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저조, 높은 실업률 및 알제리 은행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알제리 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조달을 하는 반면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이익이 국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비판 등에 따랐다.
- 주요 추진 예정 정책내용은 외국자금을 동반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알제리 측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과 면제받은 세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4 년간에 걸친 알제리 내 재투자 의무화, 판매법인의 알제리 지분 최소 30% 의무화 등이다.

4) 탄화수소법 개정안 발표

- 2012 년 9 월 알제리 에너지 및 광물부 장관 Youcef Yousfi 는 알제리의 탄화수소 투자 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 장관에 따르면 원유와 가스 생산에 대한 주요 세금은 기존 탄화수소법과 같이 총 수익에 대해서가 아닌 채굴수익률에 근거하여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원 개발 및 채굴에 대한 위험성과 난이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석유가스 회사들은 오랫동안 높은 세금과 외국소유주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경영적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국제에너지회사들에게 직면한 비용상승에 대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상승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5) 투자 인센티브 제도

□ 일반 인센티브

- 수혜 대상
 - Executive decree No. 07-08 of January 11, 2007 의 appendix 1 에 명시된 일부 활동 등을 제외한 모든 투자
- 투자이행 단계
 -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된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이행을 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사업수행 단계
 - 3 년간 Corporate income tax(IRS, l'Impot sur le benefice des societes) 및 Tax on professional activities (TAP, la Taxe sur l'activite professionnelle) 면제

□ 특별 인센티브

- 수혜 대상
 - 정부지정 특별 지역 내 투자
 - 환경보호, 자연자원 보존,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에 도움이 되는 청정 기술(clean technologies)을 사용하는 투자 등
- 투자이행 단계
 -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된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이행을 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0.2% 할인세율 적용
 - 투자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알제리 정부 측 부담
- 사업수행 단계
 - Corporate income tax(IRS) 및 Tax on professional activities(TAP)의 10 년간 면제

- 투자자의 틀 안에서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취득시점으로부터 10 년간 면제
- 재정손실 이월(loss carryovers) 및 감가상각 기간 조정(depreciation extensions) 등 투자자의 증진 및 원활화를 위한 추가 혜택

6) 투자 장려분야 및 제한분야

□ 투자 장려 분야

- 선정 배경
 - 석유 및 가스산업 부문 이외 산업생산의 GDP 비중이 5% 미만
 - 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비 알제리 경제 다각화 필요
- 주요 육성 분야
 - 13 개의 각 산업 일류기업(champion) 육성 (공기업 및 사기업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의 민간 부문 개방 예정)
 - 2008 년 8 월 기준 KPMG, Deloitte France 등 4 개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13 개 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마무리 작업 중
 - 중점 육성부문은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가공, 비료, 건축자재, 의약, 전자, 자동차 및 정보통신 산업 등
- 목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십 수립
 - 부가가치 창출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강화
 - 신기술이전, 혁신 및 인적자원개발 등

□ 투자 제한 분야

- 국가경제보호에 관련된 업종은 이 업종의 행사를 위한 인허가를 필요함 (행정부령 n°97-40, 1997.1.19 공포)
- 금융신용법 (Ordonnance n° 03-11 relative a la monnaie et au credit) 제 82 조에서는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의 설립은 금융신용위원회 (le Conseil de la monnaie et du credit, 위원장은 국립중앙은행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
- 부동산업에 관련된 행정부령 n° 97-154 (Decret executif n° 97-154, 1997. 5. 11 공포) 제 5 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의 행사는 주택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진출형태별 절차

1) 법인 설립

□ 현지투자진출 방법

-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하는 방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별
 - 설립 절차는 법인이나 지사나 동일한 절차와 과정으로 설립되고 있지만, 소요비용과 구비서류 다소 상이
 - 현지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려면 과실송금, 제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알제리 내 영업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 설립 바람직함
 - 연락사무소(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단기적 특수 비즈니스수행을 위한 한시적 계획이 있고 이후 추가적 비즈니스 활동이 없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2~3 년 단기이거나 제한된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연락사무소(지점, 지사)가 설립

연락사무소 / 법인 설립의 장단점 비교

진출형태	장 점	단 점	소요비용
연락 사무소	- 설립 및 철수 용이 - 설립비용 저렴 - 단기 특수활동시 설립	- 영업 활동 제한, 본사 연락 사무소 활동 국한 - 보증금 예치 - 본사 파견직원 제한 (현지인 고용 의무)	보증금US\$20,000 등록비US\$1,400
법인	- 현지 영업 활동 편리 - 과실송금 보장 등 법적보장	- 설립 및 철수복잡	자본금 DZD 1백만 (약 US\$14,000)

- 투자 신청은 외국인 투자자가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www.andi.dz)에 투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내용은 투자대상 분야, 투자지역, 고용인원, 관련 기술·재원 조달 계획, 감가상각표, 투자계획 재정 평가서, 환경보호 요건, 예상 투자기간, 투자관련 계약 등이 포함.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개발청(ANDI)에 특혜를 신청하면 투자개발청에서는 행정절차 지원 등 편의가 제공되며, 투자 신청 후 투자 관련당국에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투자허가 여부 결과 통보에 최대 60 일이 소요. 프로젝트성 대규모 투자의 경우 총리실에 직속된 국가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후 허가 여부를 결정.

□ 법인 설립

-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방식은 단독 투자법인과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방식으로 대별
 - 신 투자법에 의하면 국가전략산업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49%까지 지분보유 가능
 - 투자방식에 상관없이 구비서류 및 절차는 동일. 합작투자시 지분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설립후 운영상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주명부, 의결권 등 정관 작성에 유의.

□ 법인설립 절차

- 법인설립을 위해 알제리 현지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자본금을 입금 - 현지 컨설팅사나 변호사와 협의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취하되, 회사종류, 회사명, 자본금, 주주 명부, 주식 1 매당 가격, 업종, 본사 소재지, 대표자 등을 결정하고 운영비를 위한 별도의 외환구좌 개설, 일정기간의 운영비를 입금하고, 업종에 따라 무역등기소(National Center for Trade Registry)에 등록.

상호 등록



무역등기소(CNRC: National Trade Registry Center)에 등록
(필요 서류: 사무실 임차계약서, 자본금 입금 은행 증빙, 출생증명
포함 주주 명부, 대표 및 이사회 간부 내역서, 현지신문 공고 증빙서 등)

□ 법인 형태

- 상법에 규정된 회사형태로는 주식합명회사(SPA), 유한책임회사(SARL), 개인회사(EURL), 연락사무소 등이 있음
- 주식합명회사(SPA): 알제리 상법 592조
 - 최소 파트너(주주) 수: 7 명(정부출자 회사 제외)
 - 법정 회계 감사관 임명
 - 최소 자본금: DZD 100 만
- 유한책임회사(SARL): 알제리 상법 564조
 - 설립에 필요한 파트너(주주)는 최소 1 명, 최대 20 명으로 파트너 수가 20 명을 초과할 경우 주식합명회사(SPA)로 전환 필요
 - 법정 회계 감사관의 임명은 선택사항
 - 최소 자본금: DZD 100,000
- 개인회사(EURL)
 -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가 1 명일 경우 개인회사(EURL)로 분류.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한 설립절차가 적용
 - 자연인은 오직 1 개의 개인회사의 유일 파트너 가능
 - 개인회사의 파트너는 직접 경영 및 제 3 자 경영자로 임명 가능
 - 개인회사의 파트너는 파트너 회의 소집권한 있으나 위임 불가능

2) 대표사무소 설립

□ 연락사무소 설립

- 상무부의 허가(2 년 단위, 갱신 가능) 필요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은 금지된다. 급여, 사회보장세등의 영업비용은 모회사가 알제리 디나르화로 지급.

알제리 상부 허가 신청
(상공부 소정양식 사용, 지사장 성명, 설립목적 등 명기)



상공부 허가 공문 접수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모기업 정관, 지사 개설 이사회 기록, 지사장 임명장 붙어 번역 후 주한알제리대사관 공증



현지은행 CEDAC(외환구좌) 구좌 개설 후 동 구좌로 지사 설립 비용
(US\$ 20,000) 송금 받아 지사개설 보증금 예치 (추후 지사 폐쇄 시 반환)



동 구좌에서 보증금과 별도로 DZD 100,000 (약 US\$1,400)를
지사등록비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



지사 사무실 임차 계약 및 활동 개시

6. 노무관리

1) 노동력

정부의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및 중시정책으로 인한 교육제도로 인해 비교적 우수한 젊은 층의 풍부한 고등교육 이수 인구 60여만명을 보유하고 있어 인력조달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총인구 3천 2백만 명 중 인구의 75%가 30세 미만의 젊은 인구구성으로 되어 있어 노동력이 풍부하다. 실 실업율이 25%선으로 인력 구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알제리 전역에서 비 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력은 풍부하나 근로자의 경우 취학율이 낮아 노동력은 양질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생산성은 중동특유의 기질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나 여타 아랍 국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이다.

2) 노동법

알제리의 노사관련 법체제인 노동법은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기초는 근로자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계약 집행과 관련한 개별적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3) 고용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며 신문광고,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기관(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의 추천의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고용 전 일정기간(3개월내)의 견습기간을 거치고 고용할 수 있으며 보통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 근로자 및 비 노조 근로자로 구분되며 노조가 없는 업체의 경우 통상 사무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4) 임금

알제리의 임금수준은 저렴한 편으로 최저임금(SNMG: Salaire National Minimum Garanti)은 월 12,000디나르에서 지난 2010.1월 1일부로 월 15,000디나르(약 U\$210)로 인상되었다. 최근 2012년 1월 1일부로 다시 18,000디나르(약 U\$245)로 다시 상승하였다. 알제리 전통적 대표산업인 석유화학과 최근 부상하는IT업종은 여타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2배 정도로 높아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심한 편이다. 최저 임금제(SNMG)를 제외하고는 법정 임금 관리가 없다. 임금 및 봉급은 피고용자 및 고용주간에 자유로이 논의 될 수 있지만,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5) 외국인 고용

알제리 내에서 외국인이 유급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경찰서 외사계에 거주허가신청서(양식 경찰서 비치), 유효한 여권과 은행발행 은행 구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취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개인사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취업 및 개인사업 이외의 경우는 거주허가 신청사유서 및 기타 생활능력 증빙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CNSS에 가입할 경우 현지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대사관을 제외한 현지진출 모든 사기업은 사회보장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외국대사관도 현지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CNSS에 가입하는 추세이다

6) 사회보장 제도

알제리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은 알제리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영업 개시 10일 이내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장 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 금고(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가입하고, 동 금고에 급여자와 견습자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금고에 납부하는 각출금의 비율은 급여자의 총 월급여중 고용주는 26%, 피고용자 는 9%를 적립하여 사회보장금고에 납부하는데 사회보장세 35%는 수당을 제외한 총 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세 납부는 피고용인이 10명 이하일 경우는 각 분기 이후 30일 이내에 피고용인이 10명 이상일 경우는 매달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세 세부내용

Category	Employer's Share (%)	Employee s (%)	Total (%)
Social Security	12.50	1.50	14.00
Industrial accidents/illness	1.25		1.25
Retirement	9.50	6.50	16.00
Unemployment insurance	1.25	0.50	1.75
Early retirement	1.00	0.50	1.50
Workers' fund	0.50		0.50
Total	26.00	9.00	35.00

자료: Guide to investing in Algeria 2011 (KPMG Algérie)

7. 조세제도

1) 조세체계

조세행정체계는 재무부내 국세총국 산하에 전국을 분할 담당하는 9개의 지역국이 국세를 담당하고 재무부 지역국 산하 기관으로서, 각 주별 1개 및 알제시에 3개, 오란시에 2개 등, 총 51개의 세무감독관청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다.

조세 종류는 직접세와 간접세제도가 있는데 직접세는 법인세(연간 회사 이익의 38% 과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자영업자(매년 신고 소득액에 과세) 및 봉급생활자(고용주가 원천징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알제리정부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며 대부분의 상품은 17%가 부과되며 의약품, 설비 기자재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인 7%가 부과되고 있다.

지방세로는 토지세(토지, 건물, 농지에 대한 평가액의 약 3%), 미화세(도로 청소료 및 쓰레기 수거료), 직업활동세(연간 회사 거래액의 2.55%), 일괄세(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총 봉급의 6%를 한번만 지불)가 있다.

알제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난 2003년 재정법(LOI DE FINANCE)을 대폭 손질하여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신 투자법은 투자지원 관련 조치, 세무행정 현대화와 구조조정, 탈세 방지 조치 강화, 세무시스템의 단순화 및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투자지원 관련 조치

- 투자촉진, 고용창출 및 실업률 완화를 위해 급여세(VF) 세율을 4%에서 3%로 인하
- 투자촉진 법령 (2001.8.20/Ordonnance no 01/03 Relative au Developpement DeL' Investissement)상 명시된 투자의 경우 투자실현과 직결된 장비를 리스로 구매할 경우 혜택 명시
- 종합소득세(IRG) 규정을 개정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조정하고 ANDI(투자진흥청)관할 기업 및 동 기업에 대한 공급자에 부가가치세 공제 환불권을 확대

과세표준액(DA)		세율%
조정 전	조정 후	
60,000 이하	60,000 이하	0
60,001-180,000	60,001-180,000	10
180,001-360,000	180,001-360,000	20
360,001-720,000	360,001-1,008,000	30
720,001-1,920,000	1,008,001-3,240,000	35
1,920,000이상	3,240,000이상	40

자료: Guide to investing in Algeria 2011 (KPMG Algérie)

3) 세무행정 현대화와 구조조정

알제리 재무부내 대기업국(DGE)을 신설해 대기업 납세행정 개선, 절차 단순화를 통한 양질 서비스 제공

4) 탈세 및 세원누수 방지 조치 강화

재수출용 수입에 대한 공제율을 2%에서 4%로 인상, 수입 시 공제하는 동 납부액은 IBS (법인세)선납금으로 IBS세액 정산 시기 공제 납부액을 감함, 원자재 등 재수출용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은 알제리 거주 (알제리)국민이 소유하는 자본금 1천만 DA 이상의 회사로, 알제리거주 국민이 적어도 회사 자본금의 90% 이상 보유하는 회사로 국한함. 단, 동 제한 조치는 '화폐 및 신용위'(CONSEIL DE LA MONNAIE ET DU CREDIT)에 등록된 대리 판매회사(CONCESSIONNAIRE) 및 도매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됨.

송금내역 통보의무를 신설, 관할 도(WILAYA) 세무국에 월간 송금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데 회사, 은행, 환전사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업체는 다음달 20일까지 송금 내역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세법(CODE DES IMPOTS DIRECTS) 192-2조 상의 벌과금 대상임.

기납입 부가세(TVA)의 환불 또는 정산공제를 위한 TVA 납세자 준수사항 신설해 기납입 TVA 의 환불 또는 정산공제 신청 시 통계용 업체번호(NIS), 성명 또는 회사명, 일자 및 거래 영수증, 구매금액 또는 급여액, 기 납부 TVA 금액 등 증빙자료 제출

세금관련 신고 서류 내용상 착오, 누락 및 부정확에 대한 벌과금을 기존 50DA→ 1000DA로 상향조정하고 세금 포탈(기도) 관련 처벌내역을 조정, 현실화했고 사회보장 보험 및 공제 조합, 세무관련 법령 적용상 적발한 위반 내용 통보의무 신설

불법 영수증 발급자 벌과금 징수 규정 신설해 2003.1.1부터 적용 중인데 소매상은 벌과금 5만DA, 도매상 50만DA,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100만DA, 재범자는 상기 벌과금 2배 적용 되며 영수증 없이 운송된 물품 및 동 물품 운송수단은 압수대상임.

5) 세무시스템의 단순화 및 조화

비상업적 직업상의 이익금 평가관련 행정적 평가제도 폐지

- 종합소득세(IRG) 변제 제도 확대: 과세율 15%를 변제하는 변제제도 적용대상을 기존의 '거주목적'의 임대수입에 '상업' 또는 '직업적 행위 행사' 장소 임대수입까지 확대 (임대주의 실제 임대료 신고 장려 목적임)
- 법인세를 납부한 분배소득 또는 분배소득이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으로 계산되었을 경우, 동 분배소득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
- 외국기업 대상으로 월 분할 납부 제도를 신설, 알제리에서 임시로 회사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체 시장가격의 0.50% 비율'로 월 분할 납부함. 동 분할 선납금은 세금 신고 시 정산되어 감해지며 동 신설 납부제도는 자본금이 없는 지사 설치 시 현금으로 환산이 불가한 자본금 기준이 아닌 계약금 기준으로 세금을 선납하도록 하는 제도

- 외국에서 알제리 내 영업활동(관련 회사직원들의 알제리 내 체류기간이 12개월 기준으로 18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을 하는 기업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 재산세(IMPOT SUR LE PATRIMOINE) 과세표준액 조정, 현실화

과세표준액(DA)		세율%
조정 전	조정 후	
8,000,000 이하	12,000,000 이하	0
8,000,001-10,000,000	12,000,001-18,000,000	0.5
10,000,001-20,000,000	18,000,001-22,000,000	1.0
20,000,0001-30,000,000	22,000,001-30,000,000	1.5
30,000,0001-50,000,000	30,000,001-50,000,000	2.0
50,000,000이상	50,000,000이상	2.5

자료: Guide to investing in Algeria 2011 (KPMG Algérie)

- 회사등록(REGISTRE DE COMMERCE)시 제출서류 단순화해 기존 제출 서류 중 '사업장 부동산 납부 증명서'는 생략

8.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 외환관리제도 개황

알제리는 현재 외환거래 자유화가 느리게 진행 중이며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 기술 지원, 관광과 관련한 대금 결제에 제한적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외환 관리법에 의거 모든 외국인은 현지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자국통화인 디나르 표시 보통계좌(Foreign accounts in convertible Dirhams/ CEDAC)와 달러화 표시 보통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달러구좌에서 디나르 구좌로의 환전은 가능하나 디나르 계좌에서 달러화 구좌로 예치해 달러화 인출은 불가능하나 디나르화 계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예치액 한도 내에서 외화 현금으로 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최근 들어 현금거래와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디나르화가 점진적으로 태환되고 있는데, 이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환율은 바스켓제도로 유럽 주요화폐 및 달러화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에서 매일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2) 외환관련 제약

현행 주요 외환규제는 알제리 내 거주자에 의한 자금 이동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 의료 또는 직업 비용을 커버하는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 외환관리 제도 하에서 경제 주체들은 수출입, 국제운송, 보험 및 재보험, 해외기술지원, 관광과 관련한 청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수출입자는 15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알제리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 산하 기관인 외환청(Office de Changes)에서 제반 외환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상거래를 위한 외환거래를 자유화했으나, 내국인의 외환거래는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액 US\$1,000(약75,000디나르)까지만 환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T/T 사전송금에 의한 수입결제는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수입상품이 알제리 세관당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T/T 사전송금은 최대 US\$2,000으로 한정되어 있어 샘플수입 등에만 사용될 수 있어 상품수입 시 실효가 없으나 생산설비용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의 40%까지 T/T 사전송금이 가능하다. 수입상품 세관통관절차 후 즉, 수입상품이 통관이 완료되면 T/T로 100% 송금이 가능하다.

3) 유로화

알제리는 EU 단일통화 출범에 따라 2002년 1월을 기점으로 유로화를 공식 외환으로 등록을 시켰으며 동시에 유럽국들의 화폐를 관리 외환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럽과의 수출입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상품대금지불은 유로화로 계약, 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수입상에 따라 유로화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알제리는 북부아프리카의 지중해연안 경제권(MENA)에 속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과거 120여 년 간의 오랜 프랑스 식민통치경험 등으로 사고방식이 개방화, 서구화 되어있는 편. 일반 소비자들은 위성방송을 통해 실시간 프랑스 등 유럽 상업방송 채널을 시청하고 있어 최신 유행과 신제품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라 알제리 소비자는 개도국과 선진국 소비 시장이 혼재한 특수한 시장으로 유럽에 준하는 시장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전체 인구의 30%인 9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절반 정도가 핸드폰,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며 중, 상류층으로 평가되는 소비자들은 가격은 유럽산에 비해 경쟁적이고 질도 따지는 까다로운 소비패턴을 보인다.

사회주의 영향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빈부 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시장개방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도 최고가품과 중, 저가품 시장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중. 소비인구의 약 3%, 1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층은 유럽산 최고급제품을 선택하며 전체 인구의 대다수인 일반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을 선호해 터키, 중국산 경공업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지난 1990년대초 테러로 외국기업이 철수할 시점에 우리나라 대우브랜드가 진출해 알제리 경제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어 알제리 경제계 및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대우 등 한국산 상품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핸드폰, 자동차 등 대표상품은 유럽산에 비해 대등한 평가를 받으며 유럽, 일본 등 경쟁국 제품과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 브랜드 파급효과로 중소기업형 제품도 터키, 중국산 등과는 차별화되어 평가되며 가격대비 제품경쟁력이 있는 일부 틈새제품의 경우 유럽산보다도 우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배송, 결제조건 등 비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열세에 있다.

다. 유통 채널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된 지 10여년 밖에 경과되지 않아 경제의 기본인 유통 부문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상품 유통구조는 전통적이고 후진적인 이슬람지역 고유 현상 인 도. 소매상간의 유통단계 구분이 애매하고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알제 등 대도시에는 거점 지역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품목별 소규모 상가 및 전문점이 산재하여 중소규모의 도, 소매상이 유통시장을 장악했다.

1) 도매유통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소매점 위주의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알제리에서 백화점으로 불릴 만한 대형 상점은 알제리에 수개가 생겨나고 있으나 전문품목별, 규모나 상품 내용 면에서 백화점 초기의 상태로 유통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문화, 대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수입품 유통구조

국가독점 수입제도의 영향으로 그간 수입제품에 따라 전문화된 중간규모의 유통업자들이 전무 하다가 최근 기계, IT 및 전자 전기제품, 건설장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매장이 다수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중간 수입유통업체들은 외국산 수입품을 컨테이너 베이스로 들여와 알제리 내 주요 지역에 산재한 판매망(대리점)을 통해서도, 소매 유통시키는 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는 테러문제로 인해 상권이 주요지역마다 분리되어 형성되어 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미 발달한 실정이다. 한편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는 직판되거나 해외 유명메이커의 독점공급 에이전트 계약 체결로 유통을 독점 취급하기도 한다. 수입업자 → 도매상 →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각 단계별로 약 20~30%의 유통마진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Ouyahia 총리는 2009년 총리령 09-182호('09.5.12)를 통해 대형 슈퍼마켓 또는 하이퍼마켓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는데 슈퍼마켓 또는 하이퍼마켓과 같은 대형마트의 경우 매장면적의 30% 이상을 알제리산 상품 진열 배정을 의무화한다.

- 300㎡를 초과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시내에 설치할 수 없다
- 매장면적 300~2,500㎡의 대형마트는 200대 이상의 주차공간, 2,500㎡를 초과하는 대형마트는 1,0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유망 상품

- 건설장비: 경제개발 5개년(2010-2014) 계획의 일환으로 인프라분야의 프로젝트 발주 활발로 건설 장비 및 기자재분야의 신규 수요 증가. 연간 15억불에 달하는 건설장비 시장은 최근 발주되는 댐, 고속도로, 발전소, 정유화학시설 등 프로젝트로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 의료기기: 경제개발계획 중 총 15억불의 의료기기 교체 및 설비 도입에 배정, 수입 의존율이 90%, 정부의 국민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대대적 의료시설 현대화로 진단용 의료장비의 수요 지속증가 예상, 유럽국이나 가격경쟁력 대비 품질이 인정되는 X-Ray, CT촬영기, 심전도계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진출가능성이 높다.
- 보안제품: 보안의 생활화로 CC-TV등 보안기기의 수요는 지속되고 건설경기 호황으로 신규 건축 빌딩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장기계 및 기자재: 식음료 및 소비재의 자체생산 및 수요 증가, 석유화학 산업 투자확대로 각종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증가로 관련 기자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금형; 경쟁국 대비 한국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며 알제리 기초 산업 육성 정책으로 금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자동차부품; 연간 5억불의 단일품목으로는 최대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보유 대수로 소모품 등 자동차부품 시장규모 날로 확대 중,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20%선을 유지하고 있어 부품관련 수요는 지속 유지될 전망이다.

2. 물가정보

(US\$ 1: DZD 72.58(2011))

구분	항목	가격(DZ)
식품류	쌀 1kg	150
	계란 12개	120
	쇠고기 등심 1kg	1000
	돼지고기 등심 1kg	없음
	우유 500ml	40
	식용유 1L	80
	생수 1L	14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85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3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없음
	김치찌개 1인분	없음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없음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1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000000
	무연휘발유 1L	22.6
	자동차 등록비	2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576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50
	시내버스 기본요금	10
	택시 기본요금	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9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8
	인터넷 월사용료 (ADSL 256 kb/s기준)	1100~25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20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54355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69855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9085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0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7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45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8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20000~3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98
	연간 국경일수	11
	주5일 근무 여부	O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3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알제리는 기초산업이 미 발달하여 업종, 품목별 조합이나 단체가 부재상태로 전문품목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 기업인 조직인 상공회의소나 경영자 협회 같은 단체가 있을 뿐이다. 전시산업도 미발달 되어 있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바이어발굴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격 바이어 발굴의 첩경은 우선 매년 발행되는 알제리 기업체명부라 할 수 있는 “KOMPASS ALGERIE”를 통해 조사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일일히 C/L를 발송하거나 유선으로 접촉해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알제리 수입업체의 특성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문바이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제품 분류상 세부품목으로 분류되는 전문품목 바이어는 드물고 제품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즉, 전자제품이나 IT제품 등으로 대분류되는 바이어가 다수로 적격 바이어 발굴에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바이어명단을 입수해 거래제안서를 송부해도 회신율이 낮아 비효율적이다. 알제리는 면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안면시장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제3국의 공급업체에게서 설령 양호한 조건의 거래오퍼가 오더라도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장조사기관인 KOTRA 현지 무역관이나 시장조사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1차적으로 관련품목 시장보고서와 바이어리스트를 입수한 후 선별된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세일즈 출장이나 제3국 개최 관련품목 유명전시회에서 미팅을 갖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알제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관련 서비스로는 바이어 찾기 조사대행 서비스,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 서비스, 지사화 서비스, 무역사절단 참가, 현지 전시회 참가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참가 방법은 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SIGMA ALGERIE (International)

- Contact: Mr Slim Boulasnem
- 소재지: Immeuble Ibtissem B3-6 Mohammadia Algiers Algeria
- Tel: (213-21) 82 18 20 / Fax: (213-21) 82 18 26
- E-mail: algerie@e-sigmaconseil.com
- Web site: www.e-sigmaconseil.com
- 주요 업무: 투자관련 국제적 컨설팅사로 시장조사도 수행

□ CAIC (Chambre Algerienn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 소재지: Palais Consulaire, Place des Martyrs, Algiers, Algeria
- Phone: (213-21) 57 44 44 / Fax: (213-21) 62 99 91
- 비고: 알제리 상공회의소

□ ACE (Association des Chefs d'Entreprise)

- Villa le Minaret, 4 Rue Isidore Pouget, Les Tagarins, Algiers, Algeria
- Phone: (213-21) 63 89 29 / Fax: (213-21) 63 91 88
- 비교: 알제리 기업주연합회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알제리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지 못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알제리바이어 중 이메일을 매일 사용하며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비율은 절반도 안되는 실정이며 알제리업체 중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0%도 안되는 실정인데 이나마 전통적인 품목은 거의 없고 최근 들어 IT관련 업체들이 대다수이다.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일부 온라인 무역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불어 버전이며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알제리바이어들은 상용어가 불어로 영어에 익숙한 바이어가 많지 않아 이메일을 통한 교신 등에 문제가 있다.

알제리 바이어들은 상담 시 무엇보다 먼저 공급업체 측의 제품 샘플과 카탈로그 등을 보자고 요청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알제리에는 아직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웹사이트를 통한 e-Catalogue를 검색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상세한 제품설명이 담긴 카탈로그, 샘플, 가격리스트를 보내면서 꾸준히 접촉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조사기관인 KOTRA 현지 무역관이나 시장조사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1차적으로 관련품목 시장보고서와 바이어리스트를 입수한 후 선별된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세일즈 출장이나 제3국 개최 관련품목 유명전시회에서 미팅을 갖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관련기관	웹 사이트주소	비고
KOMPASS ALGERIE	www.kompassalgerie.com	알제리 기업체명부/불어 버전
CACI	www.caci.dz	알제리 상공회의소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알제리와 무역 계약 체결 시 중동의 독특한 시장특성, 기질, 법리 및 관행에 따른 유의점을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정치, 사회, 문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형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관련 공기업, 부처 정책 결정권자나 군부엘리트와 고위 관리층과 인맥 형성을 가지는 것이 향후 계약 이행에 편리하며 현지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합작 투자 또는 공동판매 형식이 적합하다.

대규모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제입찰을 통해 발주되므로 이에 대비해 수주 활동을 전개하거나 현지사정에 능통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알제리 업체의 사고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이슬람의 우월성이나 고유한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며 무슬림의 기질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을 쉽게 믿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할 것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심과 서구 문화에 대한 혐오감이 크므로 서구 문화 지향적인 행동을 자제한다.

가. 계약 성립의 단계

첫째, 중동 지역의 계약에서 유의점은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이슬람의 독특한 계약 관념의 이해이다. 이슬람법이 구두를 존중하여도 국제 거래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약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가 바람직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슬람법에서도 계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 이행되며 계약 자유 및 과실 책임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이 있다. 계약 체결 후 신용장(L/C)이 내도한 후에 생산을 시작한다. 둘째, 승낙의 도달 주의이다. 이슬람법은 격지자 간의 계약에도 도달 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계약서 도착, 견본 도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금지 물품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꾸란에서 금지한 물품과 행위는 제외하여야 한다. 넷째, 제의자의 사망의 경우, 이슬람법에서는 제의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은 피한다. 다섯째, 이슬람법에서는 사기, 착오 또는 강압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며, 취소가 가능하다.

나. 계약의 이행 단계

이슬람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하나님의 뜻(인살라)이라고 믿는다. 소유주는 신이고 인간은 관리자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슬람법은 국제거래 관습(Incoterms)을 존중하며, 위험의 이전은 소유권과 분리 이전한다. 특히 계약에 따른 정확한 계약 물품의 인도가 꾸란에 게시되어 거래의 성실한 이행 (공정성과 정직성을 중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문별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의 하자 담보

이슬람법에서는 하자 담보를 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클레임 제기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간 상거래에서 이자 금지는 제외

이란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상거래에 있어서 9%의 이자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제품 가격의 기재 조정(Under Value나 Over Value)에 대한 제의에 신중하여야 한다.

3) 동시이행 항변권의 불인정

이슬람법에서는 인도와 대금 결제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이스라엘 기피 현상/Israel Boycott Clause

이스라엘 기피는 중동 아랍의 전 국가가 실시하므로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거래를 한다고 해서 모두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경우는 이스라엘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생산인허가를 가지거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생산을 했을 때이다. 이밖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모두 거부당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에 적용되어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요구는 필수적이다.

5) 복잡한 거래 조건의 신용장/L/C에 대한 검토

신용장을 수리하기 전에 거래 조건이 복잡하다면, 즉시 수정을 요청하여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영사 확인, 원산지 증명 또는 중량 증명서 등의 요구가 많으므로 이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신용장(L/C)문제

- 2009년부터 알제리로 수입되는 모든 거래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만 추진 가능하며, 기업들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 보증금이 차등 책정이 되어 신용장 개설 시 애로사항 발생 소지가 있다. 또한 알제리 은행/한국(외국) 은행간 절차 연결이 원활치 않아 대금결제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 통관문제

- 알제리 통관 당국의 일관성 없는 통관원칙으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애로가 있다.

□ FTA 추진희망

- 알제리는 주변의 EU, 아랍지역 등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 한국기업은 한/알제리 FTA 미 체결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하다.
- 아울러 EU 등 경쟁국들과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하여 운송비용도 다수 발생한다.
- 한/알제리 FTA 추진 시 우리 기업에 많은 기회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알제리 중앙은행의 알제리 법인 외화차입 금지조치

- 알제리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현지화인 디나로만 차입이 가능하다
 - 이는 단기외채 증가방지를 함으로써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외화차입을 금지함으로써 특정 기업들의 모기업으로부터의 송금 등도 아울러 금지 되어 현지 진출기업들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한다.

□ 알제리 내 사회보장세 납부문제

- 알제리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인력이 장기파견 되는 경우 고용신고를 통해 소득의 35%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동 사회보장세의 납부 및 관리처는 알제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 의료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 외국인의 경우 1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경우 알제리 연금혜택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파견인력이 10년 동안 체류 할 사유가 없으며, 알제리에서 연금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 알제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프랑스 경우는 이러한 사회보장세를 납부 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리정부도 현재 우리 근로자의 현지 사회보장세 납부 관련 사항을 알제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국내기업 투자 성공사례: 삼성물산-경인에너지 컨소시엄

지난 1991년 11월 알제리 남동부 리비아 국경지대인 이사우에네 광구개발 사업에 우리나라 삼성물산-경인에너지 컨소시엄이 25.5%의 지분참여(삼성물산 17%, 경인에너지 8.5%)를 하여, 1998년말 상업생산 개시 후 현재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2011년까지 매년 20~3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동 광구 운영권자인 스페인의 Repsol-YPF(지분 59.5%), 알제리 국영 에너지사 소나트락(지분 15%)과 공동으로 광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재 가채 매장량 원유 9.1백만 배럴, 평균 일산 6천 배럴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05년 하반기 신 에너지법을 도입, 소나트락의 독점을 폐지하고 동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06년 말 알제리 에너지광물부는 석유가스 광구 국제입찰을 통한 일련의 광구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광구입찰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우리기업의 알제리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참여는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해외기업 투자성공사례: SNC Lavalin (캐나다)

- 프로젝트: Tipaza 소재 1,200MW 발전소(Hadjeret En Nouss) 건설
- 발주기관: SNC Lavalin(캐나다), Mubadala(UAE), AEC(알제리)
- 수주시기: 2005년 12월
- 수주금액: 10억 달러

○ 진출배경/ 수주활동 전개 과정

- 독일 Siemens와 캐나다 SNC Lavalin 간 경합이 있었으나 SNC Lavalin이 수주
- 2006년 7월, 발전소 운영사(SK Hadjeret Ennous) 정관, 부지 임대차계약, 전기판매 계약, 건설계약, 금융조달 및 보험계약 등 발전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9개의 다자간 계약 패키지로 체결
- 알제리 사상 최대규모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알제리 발전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과반수 지분 보유 최초사례
- 알제리정부의 보증 없이 Sonelgaz 소속 배전회사들과 계약 체결된 최초 사례
- 발전전력은 SD Alger, SD Centre, SD Est 및 SD Ouest 등 Sonelgaz 소속 4개의 배전회사에 의하여 kWh 당 1.898DA(세금 제외가격)에 구입됨
- 총 투자액 US\$826백만 중 30%(US\$248백만)이 발전소 운영사 지분 보유업체들에 의하여 조달되고 나머지 70%는 알제리 국영은행들인 BEA, BNA, CNEP 및 CPA에 의하여 조달
- Souguer(Tiaret)과 Hadjret Enouss 간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연료 공급

□ 해외기업 투자실패사례: 중국 기업 ZTE Algérie와 Huawei Algérie, 2년간 알제리 공공조달시장 참여 금지

- 부패, 뇌물수취, 돈세탁 혐의
 - 2012년 6월 6일 오전, 알제 법원은 알제리 텔레콤(Algérie Télécom) CEO의 전직 고문인 Mohamed Boukhari와 알제리-룩셈부르크 이중국적자인 기업가 Mejdoub Chami, 그리고 두 개의 중국기업 ZTE Algérie와 Huawei Algérie에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있었던 '부패, 수취, 돈세탁' 혐의와 관련된 판결을 선고했음.
 - 피고인 Boukhari와 Chami에게는 모두 18개월의 징역형, 500만 디나르(약 6만7000달러)의 벌금형, 그리고 이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자금의 몰수가 선고됐음.
- ZTE와 Huawei, 공공조달사업 참여 2년 간 금지
 - 이들 두 중국기업 ZTE와 Huawei는 법인으로 각각 300만 디나르(약 4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공공조달 사업 부문 참여가 2년간 금지됐음.
 - 도주한 중국 기업의 책임자 3명 Dong Tao, Chen Zhibo, Xiao Chuhfa는 불법수취 혐의가 인정됐으며 권석재판에서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됐음.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
 - 알제리 사법당국이 기업, 더욱이 알제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에 공공조달 사업 부분 참여를 금지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혐의: 해외 계좌를 이용한 뇌물 제공, 수수
 - 이 사건은 동-서 고속도로와 관련 소송 담당 판사가 Mejdoub Chami의 룩셈부르크 계좌와 사업체를 조사할 목적으로 룩셈부르크 사법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의뢰한 이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음.
 - 수사 결과 Boukhari와 Chami는 알제리 텔레콤과 두 중국기업 ZTE Algérie와 Huawei Algérie가 체결한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거래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음이 드러났음.
 - 룩셈부르크에 신탁업체를 소유한 Chami는 해외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유령업체를 설립했음. 유선 전화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들 중국 기업은 이를 이용해 Boukhari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대가성 수수료를 지급했음. 이 당시 Boukhari는 알제리 텔레콤 CEO의 고문으로 재직했었음.
- 두 중국기업 발뺌
 - 두 중국 기업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 역시 도주 중인 자사 전직 간부들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함. Huawei의 책임자는 'Huawei Investment'는 'Huawei Algérie', 또는 모기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음.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알제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변환경, 신변안전, 교통문제 등으로 시내중심인 히드라(Hydra), 엘비아(El Biar)지역을 선호하는데 해당 지역은 외곽지역에 비해 부동산 임대가격이 2배 정도 비싼 편이다. 주택과 사무실 임차료는 수요대비 공급부족으로 적정한 가격이 형성 되지 않아 부동산 수준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4인 가족 기준 40평형대 월 임차료는 3,000달러 내외로 매우 비싼 편인데 이런 현상은 과거 안전문제로 동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많았고 외국인에 주택을 임대한 임대주들이 가격을 담합해 부동산 임대료를 높인 결과이기도 하며 최근 암시장이 유명무실화되어 알제리 디나르화가 미달거나 유로화대비 20-30% 절상된 효과를 가져와 임대주들은 디나르화로 임차계약을 선호하면서 주택가격이 대폭 인상된 배경이다.

주택이나 사무실 임대 시 중개 복덕방 소개료 사전확인, 전화라인 유무, 예비물탱크 크기(하절기 수도물 공급제한), 주차장, 가스 및 전기공급, 주변 안전문제 등 제반 사전 체크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후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확인과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아랍어)공증이 필수적이며 아랍어 계약서를 영문/불문으로 재공증하여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상 중개수수료로 1개월 분 임차료를 지불한다.

임차계약기간은 1-2년 계약에 1년 임차료를 일시에 선불하는 것이 임차 관행이다. 알제리는 각종 공과금이 보통 2-3개월 후에 청구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지불영수증 및 미터기를 확인해야 한다.

나. 교육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인 수도 알제리에는 영미계의 Int'l School이 없는 관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현지학교(아랍어 및 불어로 교육)나 프랑스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으나 중, 고교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인근 모로코, 튀니지, 프랑스등 제 3국에 유학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2년 9월 불란서학교가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지인 학교는 모두 국립이며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따라 아랍어로 교육하고 있다. 다만, 4학년부터 불어를 수강, 8학년부터 영어 수강이 가능하다. 최근 아랍어/불어 교육을 병행하는 현지 사립 초등학교가 다수 건립되어 운영 중이나 교육시설 및 수준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다. 체류증

알제리에 장기 거주하려면 국내에서 장기 복수비자(3개월-5개월)를 발급 받은 후 비자만료 전까지 거주지 관할경찰서에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현지 투자(회사설립)하는 방법과 현지 고용계약(Work Permit)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Registre de Commerce), 건강 진단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1년 유효의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라. 전화 신청

외국인명의의 전화라인을 신청 하려면 최소한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체류증(Carte de séjour)사본 및 거주증명서(주택임차 계약서사본)와 알제리 통신공사(Algerie Telecom) 소정 신청양식과 신청 보증금이 필요하다. 한편 전화신청 후 라인개통에는 회선 부족으로 수개월 동안 대기하여야 한다.

마. 은행구좌 개설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은행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현지에서 외부로 송금 시 2-3개월이 걸리고 현지화인 디나르 환율의 변동 등으로 현지은행(Bank Extérieur d'Algerie)에 Convertible 구좌를 개설하고, 프랑스 파리 소재한 한국외환은행에 유로화 구좌와 미화구좌를 개설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현지은행으로 송금받아 집행하고, 기타 본국 송금 등은 외환은행에 FAX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현지는 Credit Card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으며 현지에서 항공권을 구입시 반드시 CEDAC Cheque (US\$를 현지화로 바꾼 Cheque 구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현지화 구좌(CEDAC Cheque) 개설이 필요하다.

바. 차량구입

알제리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알제리시에는 택시 이외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 알제리에는 국산차는 물론이고 유럽산 자동차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취발유 가격이 저렴하고 차량보유에 따른 보험료 등 및 차량유지비가 저렴한 편이나 자동차보험서비스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서비스에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도 활발한 편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수 도 있으나 중고차 시세가 고가인 편이고 부품조달도 문제로 차량구입시 현지 A/S편의성과 부품조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알제리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편으로 주요 부품마모도가 심한편이며 운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형차를 제외한 중형차의 경우 유럽 등 타국가에 비하여 차량가격이 고가인 편이며 국내시판 자동차가격이 국제가격의 1.5-2배에 달해 한국에서 차량을 이삿짐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차량 구입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고가로 신차구입이 경제적이다. 7-8월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그다지 무덥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은 선택사항이며 도로가 무척 협소하여 소형차를 선호하고 있고, 변속기는 거의가 수동이며 자동은 거의 없다.

사. 운전면허증 취득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지에서 거주비자 (Residence Visa) 취득 후 국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수일 내에 10년 유효기한의 알제리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구비서류로는 운전면허 신청서 원본 1부(아랍어로 작성), 여권용 사진 3매,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불어나 아랍어로 번역한 후 주 알제리 한국대사관 공증 필요)과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아. 생활여건

알제리는 아프리카 최북단 지중해연안에 위치하여 기후 등 자연조건은 혹서기인 8월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편이나 지난 1992년 이후 시작된 무장이슬람과격세력에 의한 외국인 테러 등 치안상의 문제로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최근 테러가 진정되어 현지활동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외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 있어 기본 인프라, 여가시설 및 학교문제 등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알제리는 외국인 생활여건이 인근 모로코, 튀니지 등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경제전문 조사기관인 EIU가 발표한 자료(2005년)에 따르면 세계 127개 도시의 생활여건을 평가한 결과, 알제리는 조사대상 127개국 중 126위에 랭크되어 외국인 거주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 발표자료에 따르면 생활 여건이 가장 나쁜 도시는 알제리의 알제와 파푸아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였다. 이번 조사는 EIU가 세계 127개 도시들의 ▲안정성 ▲의료서비스 ▲문화와 환경 ▲교육 ▲인프라 등 5개 항목에 총 40개의 평가 기준을 적용, 생활 불편도를 계량화한 것이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알제리 국토면적의 10%에 불과한 북쪽 지중해 연안지역에는 전체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화하고 비가 내리는 전형적인 지중해식 기후를 보이나 최근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알제리의 전형적인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안지역은 가장 습한 지역으로 연간 강우량이 800-1,000mm 정도이며 7-8월 여름 평균기온은 30℃이고 11-2월 겨울철 평균기온은 12℃내외이다. 여름에는 지역 언어로 Chehili라 불리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남쪽 사하라에서 아틀라스 산맥을 넘어 북쪽으로 불어온다. 남으로 갈수록 기후는 더 건조해 지며 고원지대와 사하라 Atlas의 연간 강우량은 200mm내지 400mm를 넘지 않는다.

알제리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사하라 사막지대는 바람이 많은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낮에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10도 이하로 낮게 떨어져 일교차가 심한데 이런 일교차 현상은 온도의 극적 변화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습기가 없기 때문이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수도 알제의 경우 동절기(11-3월) 최저기온이 영상 8-12도 내외이며 하절기(6-9월) 최고기온의 경우 영상 28-32도로 7-8월과 12-2월에는 냉난방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알제리 기후표

Month	Mean Temperature °C		Mean Total Precipitation (mm)
	Daily Minimum	Daily Maximum	
Jan	5.9	16.5	80.0
Feb	6.4	17.3	81.8
Mar	7.0	18.5	73.4
Apr	9.0	20.4	61.1
May	12.0	23.5	39.9
Jun	15.6	27.0	16.7
Jul	18.5	30.6	4.6
Aug	19.1	31.2	7.4
Sep	17.1	29.2	34.2
Oct	13.7	25.1	76.0
Nov	9.6	20.7	96.4
Dec	7.0	17.2	115.2

자료: www.worldweather.org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알제리는 우리나라보다 8시간이 늦은 KST-8시간으로 한국이 정오(12시)일 때 알제리는 당일 오전 4시이다. 이슬람국으로 유럽에서 하절기(3월말-10월말)에 시행하는 섬머타임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알제리는 프랑스 파리와 동일 시간대이나 섬머

타임이 시행되는 하절기에는 프랑스보다 1시간이 늦어지므로 동 기간 중 파리 등 유럽 중간 경유지를 통해 알제리로 출입국 할 경우 1시간 시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 도착 시간 등을 로컬시간으로 재확인하는 등 유의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관공서와 공공기업, 은행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4시까지 근무하며 일반기업 및 상점의 경우 17:00까지 근무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휴무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목요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은행의 경우는 금, 토요일이 정기휴일이다. 금식월인 라마단(Ramadan)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들이 단축(8시-2시)근무 하므로 오후에는 상담이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2년도의 라마단(Ramadan) 기간은 7월 20일경에 시작되어 8월 18일경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도량형

1) 도량형

알제리는 1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아 각종 규격 및 표준이 프랑스제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사회, 경제시스템이 프랑스의 복사판이다. 도량형은 프랑스식 미터법이 일반적이다. 즉 거리에는 미터, 무게에는 그램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무게: g, kg, ton
- 길이: cm, m, km

2) 전기규격

소형주택에는 단상 220볼트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형주택 및 건물, 공장 등에는 삼상 380볼트가 공급되고 있다. 전기 주파수도 50HZ로 한국과 다소 다르며 각종 플러그나 콘센트의 규격 도 유럽 즉, 프랑스식 표준을 따르고 있어 한국과 다소 달라 출장 시 휴대용 어댑터를 지참하는 것이 노트북 사용 등에 편리하다. 간혹 전기공급상의 문제로 세탁기등 모터가 부착된 국내가전제품의 경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라. 출입국/비자

1) 입국비자

한-알제리 양국간에는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한 알제리 방문자는 입국비자를 주한알제리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취득에는 서류접수 후 근무일 기준 7일이 소요됨.

□ 일반여권 소지자 - 알제리 입국 비자 취득 조건

여권 유효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대사관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한 알제리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비자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비자정보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http://www.mae.dz/visa/ang_form.pdf : 일반비자 신청서
- http://www.mae.dz/visa/ang_press.pdf: 취재비자 신청서

□ 관광비자

알제리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호텔예약증명서나 알제리에 거주하는 특정 알제리인으로부터 초청장과 숙박편의 제공 보증서(동 숙박보증서는 알제리 내 행정 기초단체인 면(APC)으로부터 공증 필요)을 입증해야 된다.

□ 비즈니스 입국비자 - 상용비자

비즈니스 입국비자 즉, 상용비자는 현지 KOTRA 무역관이나 알제리 측 비즈니스 거래 선이나 파트너 업체의 초청장(Invitation Letter)을 첨부해야 하며 초청장 내용에는 피 초청인의 인적 사항(회사명,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만료일)와 알제리 방문목적과 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비자 종류	구비 서류
관광 비자	신청서 현지 체류 예정호텔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영문작성 일정표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여권용 사진 4장 알제리 사람의 초청장 또는 호텔 예약증
상용 비자	신청서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여권용 사진 4장 후원사의 서류

Embass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Algeria (주한 알제리 대사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6
전화번호	794-5034/5 / 영사업무: 5036
Fax	794-5040
근무시간(영사과)	매주 화, 수 9:30-11:30 / 13:30-16:00 (비자 신청 접수는 오전, 비자 발급은 오후)
국경일	11월 11일(National Day)
Internet Address	http://www.algerianemb.or.kr/

2) 출입국

□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 입국수속
 - 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은 기내에서 배포하는 출입국신고서(CARTE DE EMBARQUE

MENT/ DEBARQUEMENT) 를 작성하여 입국 심사대(IMMIGRATION)에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 심사 후 출구로 나온 후 수하물을 찾으려면 되는데 수하물에 하얀 분필이 칠해 있으면 세관 검색대상이다. 공항 세관통관 시 휴대품 검색 등 통관 절차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과도한 샘플 등은 과세 대상이다.

○ 세관신고

- 현금 \$2,000이상을 지참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 후 검색대를 통해 나오면 바로 원편에 있는 세관신고 사무실에서 외환신고를 해서 관련 증빙서 (DECLARATION DE DEVICES)를 받아야 출국 시 외환을 휴대하고 출국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비즈니스 출장 시 샘플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인보이스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출국수속

- 공항에 도착하면 입구 검색대를 통해 들어간 후 원편으로 들어가면 에어알제리 등 각 항공사별로 출국창구(CHECK-IN COUNTER)가 있다. 보안체크등과 수속창구가 많지 않아 비행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하물을 부치고 좌석 배정을 받은 후 여권과 비행기표, 출국카드를 작성해 서류심사(CONTROLE DE DOCUMENT) 창구에 가서 확인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은 후 탑승을 위해 출국심사창구를 거쳐 세관을 거쳐 탑승장으로 이동한다. 이동 후 비행편에 따라 배정된 대합실(SALLE) 에 들어가 탑승하면 된다.

○ 예방접종

- 현지에는 풍토병이 없어 말라리아 등 예방접종 및 방역은 필요가 없다.

○ 교통편

- 알제공항에 도착하면 주요호텔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되니 공항 출구 앞에 위치한 호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운행정보를 문의하면 된다. 이외 주간에는 공항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이용해도 무방하나 야간에는 사전에 거래선 등에 연락하여 픽업을 부탁하는 것이 안정상 바람직하다. 알제공항에서 알제시까지 20여킬로 떨어져 있고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외 공항버스 등은 운항이 되지 않고 있다.

○ 주의할 점

- 입국 시 외화반입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나 출국 시는 U\$ 2,000이상 반출 시에는 환전증명서나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체크를 위해 비행기 출발시간 1시간 30분전에 체크인창구가 마감(Closing)되니 비행기출발시간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마. 환율/환전

1) 통화단위 및 종류

알제리 디나르(DA/Dinars Algerian)가 알제리 공식통화로 시중에 통용되며 미달러화나 유로화는 환전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다. 지폐는 1,000, 500, 200, 100DA권이 동전은 100, 50, 20, 10, 5, 1DA와 가 유통되고 있다. 100쌍팀(Cts)이 1디나이다.

2) 환율체제

알제리는 공식적으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통제하고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은 없는 편이며 알제리 중앙은행에서 자국통화에 대한 주요 외화인 유로, 미달러화 등 환율을 매일 고시하고 있다. 한편 환율체제는 외환통제상 이중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제리수출업체의 경우 수출대금의 50%는 외환법 상 현지화로 교환해야 하는데 시중환율보다 4~5% 높은 우대환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3) 환전

알제 국제공항("후아리 부메딘"/ Houari Boumedine Int'l Airport)내에 유일하게 있는 공항환전소나 알제 시내에 소재한 특급호텔 출납창구(Cashier)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시중 은행에서도 유로, 달러화 등 국제결제 통화는 자유롭게 환전을 할 수 있다. 현재 대미기준 환율은 U\$1=DA72수준이며 환전시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이나 호텔환전소마다 다소 상이하다.

한국이나 여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은행이나 호텔환전소가 취하는 수수료(Commission)은 적은 편이나 알제 시내 곳곳에 산재한 비공식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환전소(Black market)에서의 환전환율은 미달러 현지화 교환 시 U\$1=DA90, 현지화로 미달러 매입 시 U\$1=DA92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호텔이나 은행보다 약간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알제리 정부에서 금융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암시장에서의 외환 불법환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알제리경제사정 호전에 따른 알제리 디나르화 가치상승으로 환율 격차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불법환전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신용카드 사용

알제리는 금융 산업의 낙후로 상거래 관습상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 15,000디나르(약 200불)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알제리에서는 여행자수표는 중앙은행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며 불편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특급호텔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로 현지화나 외화인출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호텔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은행 기준환율보다 약간 불리한 환율 (U\$1=DA70미만)로 디나르화 기준 호텔비를 미달러화로 환산되어 수수료등이 부가되어 카드 사용대금이 청구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항공편

우리나라와 알제리간에는 직항 항공노선이 운항되지 않고 있다. 인근 유럽 주요도시인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로마), 독일(프랑크푸르트), 영국(런던), 스페인(바르셀로나)이나 중동의 터키(이스탄불), 이집트(카이로), 카타르(도하)를 경유하여 알제리로 오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알제리로 오는 항공편은 AIR FRANCE가 편리한 편이며 에어알제리의 경우 샤를 드골공항 인근인 르와씨(Roissy)에서 매일 출발하는 노선과 오를리공항에서 매일 3편이 운행되고 있다. 최근 루프트한자(LH)가 주3회 운행되고 있어 동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중간에 1박 이나 공항을 이동하지 않고 알제로 바로 들어 올 수 있고, 카타르항공(QR)의 경우도 도하를 경유하여 알제리에 들어오는 항공편을 매일 운행하고 있다.

2) 취항 항공사 리스트

2005년 이후 알제리정세가 안정을 찾고 고유가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유럽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알제리노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알제에 취항하는 국제 항공편은 Air France, British Airways, 루프트한자, Alitalia등 8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에어 알제리/ Air Algérie: www.airalgerie.dz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Bruxelles- Alger	매주 금, 월	13h 45	
Barcelone- Alger	매주 수	23h 40	
Madrid- Alger	매주 금, 월 매주 토, 화	18h 20 13h 20	
Genève- Alger	매주 목, 토, 월	13h 50	
Istanbul- Alger	매주 토	19h 10	
Londres- Alger	매주 금, 일, 화	13h 50	
Rome- Alger	매주 목, 토, 월	12h 20	
Marseille- Alger	매주 수, 금, 토, 월 매주 목, 일, 화	13h 50 17h 35	
Casablanca- Alger	매주 수, 금 매주 일	11h 30 11h 20	
Paris- Alger	매일 매일	12h 25 09h 10 17h 30 20h 05	파리 드골공항 파리 오를리공항 (ORLY L'OUEST)

에어 프랑스/ Air France: www.airfrance.fr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Paris- Alger	매일 2회	09h 30 20h 00	

에어 모로코/ Air Maroc: www.royalairmaroc.com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Casablanca- Alger	매주 토, 월, 금, 목	08h 20	

터키 항공/ Turkish Airlines: www.turkishairlines.com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Istanbul- Alger	매주 토, 월, 화, 수, 목	12h 25	

이태리 항공/ Alitalia: www.alitalia.fr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Rome- Alger	매일	11h 55	
Milan- Alger	매주 토, 월, 목	13h 25	

튀니지 항공 Tunis Air: www.tunisair.com.tn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Tunis- Alger	매일	15h 30	
	매주 일	13h 00	

카타르 항공 Qatar Airways: www.qatarairways.co.kr

운행구간	운행요일	항공시간	비 고
Qatar- Alger	매일	7h 20	
	매주 월, 화, 목, 토	2h 20	

○ 예약방법

- 알제리 내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구입하려면 항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거나 에어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 후 구매할 수 있다. 항공권 구매 시 결제는 신용카드나 현지화 현찰의 경우는 은행에서 공식환율로 환전한 증빙서를 지참 하여야 구입할 수 있다. 항공요금은 유럽 등 제3국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행일정 오래전에 일자를 고정해 구매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단, 알제리 국내선 항공권은 외국에서 예약이 안되며 현지에서 예약 후 구입해야 한다.

3) 시내교통

□ 택시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정류장과 노선표시가 잘 안내되지 않아 외국인이 탑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지하철은 현재 건설 중으로 2012년 이후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택시이나 택시가 별로 많지 않아 호텔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나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공항에는 공항택시가 있는데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비싸다. 한국과는 달리 시간거리 병산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한다. 대부분의 택시운전사들은 영어구사가 불가능하다. 택시는 주로 프랑스나 한국산 중소형차이다.

□ 국내교통

알제리는 국토면적이 광활하나 국내교통편(철도, 고속버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 주로 항공편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제리에 AVIS, HERTZ 등 국제적인 렌터카 회사가 진출되어 있지 않아 렌터카를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못하며 현지 로컬 렌트카 회사가 수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운전하기에는 교통사정과 치안상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 방문객의 경우 개인택시를 임차해 장기 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수도 알제와 지방거점도시인 오랑, 아나바, 콘스탄틴, 바트나 등에는 국내선이 매일 1-2편 취항하고 있으나 연발착이 잦아 당일로 다녀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선을 방문하기 위한 지방도시 출장 시 우리나라에서는 AH(에어 알제리)국내선 항공편을 예약할 수 없으며 현지 거래선이나 KOTRA무역관등을 통해 예약한 후 현지 도착 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 우편

알제리에는 우편서비스제도가 낙후되어 국내우편은 별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우편의 경우 알제 시내 우편물도 최소 10일 이상 소요되며 분실되는 경우도 잦아 대사관 등 외국 기관에서는 긴급한 국내우편물이 있을 경우 개인택시를 고용하여 직접 배달시키는 실정이다.

알제리로 발송하는 우편물과 소포류는 EMS(Express Mail Service)가 요금대비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 다국적 특사우편회사인 DHL이 시장을 독점해 왔으나 최근 Fedex, UPS가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며 서비스 및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용 방법은 특사 운송사로 전화하면 문서를 픽업하는 서비스가 있으며 알제리에서 특사 배달 시 한국까지 3일정도 소요된다.

특사운송사	요율(1킬로그램)	전화	팩스	담당자
DHL	문서: 약 \$110 소포: 약 \$115	(213-21)23 01 01/ 23 04 04	(213-21)239555/ 23 95 94	Mr.BRADAI Rafik (Marketing Manager)
FEDEX	문서: \$85 (10%할인가)	(213-21) 69 33 33	(213-21)63 33 33	Ms.BACHA Mahira (Commercial)
EMS	문서, 소포 \$25	(213-21)42 30 93/ 42 30 94	(213- 21) 42 30 93	Mr.BOUHARIZ (responsable assistant)
UPS	문서 \$70	(213-21) 23 04 60/ 23 00 33	(213-21) 23 03 04/ 23 05 40	Ms.ZIZOUA Hania (Commercial)

□ 국제통신

알제리에서 통신서비스는 알제리우정국에서 관리해 오다가 상업적인 통신서비스 분야는 국영기업인 알제리 텔레콤(Joint stock company)에서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 통신 라인이 부족하고 설비 노후화로 통화품질이 양호하지 못하며 자주 끊기는 수도 있어 열악한 편이며 사용요금은 고가이다.

한편 알제리에서 한국으로 국제직통전화를 할 경우 에는 00 + 82 + 지역번호 + 전화번호를 누르면 되고 수신자 부담전화 제도는 없으며 국제 전화카드도 사용하지 못한다

□ 국내통신

2003년 기준으로 Fixed telephone line 보급율이 인구 1,000명당 66회선으로 보급이 열악한 편(이집트 104, 모로코 41회선)으로 알제리정부는 오는 2006년 말까지 120회선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으나 한국에서 알제리로 전화를 할 경우 회선사정으로 연결이 잘 안되는 등 통신사정이 열악한 편이다. 한편 이동통신(Cellular line) 가입자수는 이동통신시장 개방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해 총 가입자수 1,000만명을 돌파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기지국과 회선부족으로 이동 통신사간 통화에 어려움이 있고 통화량이 많을 경우 걸리지가 않는 불편한 점이 있다.

□ 인터넷

인터넷은 ADSL 인터넷서비스(최고속도 1메가)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월 가입비가 U\$500에 달해 대중적인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특급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공항과 호텔 내에서 무선인터넷이 서비스되고 있어 인터넷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시에는 외국인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비즈니스호텔이 제한되어 있어 인근 마그레브 국가인 모로코, 튀니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고 호텔수준에 비해 가격이 2-3배 고가로 유럽과 거의 같은 요율이다. 외국인 방문객이 단기간 체류하기에는 안전문제 등 현지사정상 아래 호텔 정도가 추천될 수 있다. 호텔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성수기에는 호텔예약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가격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호텔 예약을 저렴하게 하려면 KOTRA 무역관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하면 호텔 및 예약시기에 따라 20-30%내외의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알제리 내 호텔은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는 국내 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호텔명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E-Mail	객실료(DA)
El Djazair	24,Avenue Suoidani Boudjemaa-Alger	23 09 33-37	69 35 08 69 11 56	www.hoteleldjazair.dz hoteleldjazair@wissal.dz	싱글 22,000
El Biar	1er Bld.du 11 Decembre 1960,El Biar,Algiers	91 60 30	91 18 20	na	싱글 7,100 트윈 7,600
El Aurassi	Boulevard Frants Fanon-Alger	74 82 52	71 72 87	www.el-aurassi.dz aurassi@yahoo.com	싱글 32000
Hilton Alger	Pins Maritimes, El Mouhamadia-Alger	21 96 96 20 10 10	21 96 94	www.hilton.com self_algiers@hilton.com	싱글 35,000 트윈 39,000
Sofitel	172, Rue H.Ben Bouali- Alger	68 52 10 - 18	67 31 42	www.accorhotels.com H1540@accor-hotels.com	싱글 26,260 트윈 26,260
Sheraton	Club des Pins-Alger	37 77 77	37 77 00	www.sheraton.com sheraton-cdp@djazair-connect.com	싱글 26,000 트윈 30,000
Mercure	Route de l'Université- Bab Ezzouar- Alger	24 59 70	24 59 10	www.accorhotels.com sauvageotfrançois@accor-hotels.com	싱글 21,000 트윈 21,000

주1: 한국에서 호텔로 연락할 경우 국가번호 (213)+ 알제 지역번호(21)를 눌러야 함

주2: 호텔예약 시 성수기, 비수기 요금에 따라 차이, 가격은 제세 포함, 조식 별도.

2) 대표 먹거리

알제리의 음식은 웰빙 건강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식과 아랍전통식이 혼합된 독특한 음식 문화를 보이고 있다. 올리브유, 토마토 등 각종 야채와 해산물로 대표되는 지중해식단과 양고기와 민트차로 알려진 아랍전통식이 혼합된 음식문화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먹거리는 ‘메슈이(양고기 통구이)’가 있다. 고원 지대인 젤파 지방 초원의 약초(허브)를 뜯어먹고 자란 양의 껍질을 벗기고 각종 향신료를 발라, 기름이 짝 빠지도록 통째 하루 내내 굽는다. 잔치 음식인 메슈이는 라마단이 끝나 영양 보충을 하거나 귀한 손님이 오면 차려내는 음식으로, 모두 둘러서서 손으로 양고기를 뜯어 먹는 것이 이곳의 풍습이다.

또 북아프리카 마그레브권에서는 “쿠스쿠스”를 즐기는데, 양고기와 야채를 큼지막하게 토막내 뿔은 밀과 함께 찌낸 요리이다. 역시 라마단 후 온가족이 모여 먹는 음식으로 고기나 야채 한

덩어리에 밀을 굴려 묻힌 후 손으로 먹는다. 음료로는 뜨겁게 마시는 민트차를 즐긴다. 사막의 더위를 날려 주는 이 음료는 달착지근하면서도 끝맛이 시원하며 위에 좋고 소화에 탁월하다. 또한 알제리는 이슬람국이지만 포도주 생산지이기도 하다. 알제리산 적포도주 “뀌베 드 프레지당”은 세계 포도주 컨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질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간혹 보관이 잘못된 제품도 있으나, 잘 고르면 훌륭한 수준의 것을 맛볼수 있다.

알제리인의 식생활에서 메슈이, 쿠스쿠스, 민트차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인 만큼 방문 시 적어도 한번쯤 맛을 보는 것이 좋다.

3) 식당

알제시에는 외국인 구미에 적합한 프랑스, 이태리, 레바논, 터키식 유명식당이 10여곳 영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방문객의 입맛에는 적합하지 않은 편으로 위생과 교통, 안전 문제상 호텔 내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입에 맞는, 정식 영업중인 한국식당이나 일본식당은 없고 중국식 레스토랑만 유일하게 2곳 영업하고 있어 우리나라 방문객들이 먹거리가 부족한 편이나 프랑스/알제리 퓨전식과 일부 해산물 전문식당은 다소 고가이나 방문객에게는 수준급 식당으로 추천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알제 외곽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사전에 예약하면 한국음식을 맛 볼 수 있다.

알제시 주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명	주소	연락처(전화/이메일)	비 고
Auberge du Moulin	24 Bd Abane Ramadane, Cheraga, Alger	T:021-36 08 43 aubergedumoulin @caramail.com	프랑스/알제리식 식당, 1인당 30-40불 소요 예약필수
Le pavillon de Confucius	24,Av.Suoidani Boudjemaa- Alger	T:021-23 09 33 www.hoteleldjazair.dz hoteleldjazair@wissal.dz	El Djazair호텔에 부속되어 운영 되는 중국식당
Le Sauveur	Port El Djemila, Ain Benian	T:021-81 99 82	해산물 전문식당
한국식당 (게스트하우스)	Lotissement <F> Villa No. 48 DRARIA Alger Algeria	213-21-35-5918/19 213-64- 37- 6095 hybs0987@hanmail.net	사전예약 점심 1인당 \$13 저녁 1인당 \$20-25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기간

알제리 정부기관 및 국영은행 등 관공서의 민원업무 등 사무처리 관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준하는 원칙과 문서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리 관행은 융통성이 없으며 수동적이며 업무처리 기한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 초까지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의 습성으로 관공서에는 행정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와 관련 급행료 등 금품을 바라지는 않는 편이나 최근 들어 민원과 관련 로비가 생겨나고 있다. 보통 당일 처리되는 간단한 계약서 공증과 1달 이상 소요되는 자국민의 여권발급업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투자관련 외국업체의 민원은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고 있으며 알제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개혁추진으로 민원업무 처리기간도 다소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알제리 관공서의 업무처리 관행은 대체로 관료적이며 번문옥례(레드 테이프)가 많고 배타적이다. 최근까지 외국인이 알제리 관공서에서 신속히 일을 처리하려고 하려면 현지인을 대동하여 로비를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관련공무원 로비 시 실무자에서 담당 국장까지 로비를 해야 하는 점이 어려운 점이다. 알제리 공무원들은 자존심과 업무 프라이드가 있어 뒷전에서 누르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전방위 로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원칙과 신념으로 일을 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방문 최소한 1주일 전에 서면(방문자 인적사항, 방문목적등 명기)으로 면담을 신청하고 방문 시에는 가급적 정장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약속시간 전에 도착해 대기해야 한다. 유력기관 고위층일 경우 긴급한 외부약속으로 출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방문 수시간 전에 약속시간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공휴일

1) 공휴일 지정방식

공휴일은 양력에 의해 일자가 고정된 국경일(National Holidays)과 이슬람력에 의해 매년 일자가 변동되는 종교휴일(Religious Holidays)로 구분되고 있다.

알제리는 여타 이슬람국가와 마찬가지로 금, 토요일이 주말이며 휴일이다. 시중은행과 일부 사기업의 경우 목요일의 경우 오전(08:30-12:30)에만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부분 기업들이 목요일 휴무 내지 격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 은행권은 유럽, 미국계 은행과의 외환송수신 업무를 위해 목요일 영업을 하며 대신 토요일 휴무한다.

이슬람력에 의한 종교휴일은 알제리 정부에서 해당휴일 전날 달이지는 시간대를 정확히 관측한 후 공식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휴일일자를 바로 수시간 전에 공식 발표하기 때문에 휴일전일 당일이 휴일여부를 두고 일부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2) 출장지양 기간

알제리는 오랜 기간 동안의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아 사회제도가 프랑스의 복사판이다. 따라서 휴가문화(Vacance)가 발달하여 7월말부터 8월말까지는 여름 휴가기간으로 일부 민간기업, 경제관련 단체들은 집단 휴가를 실시하여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동기간 중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휴가기간으로 담당자부재 및 단축근무 등으로 사실상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슬람국가에서 매년 한 달여간 일자가 당겨지면서 시작되는 라마단 안식절은 이슬람교도들이 전통적인 금식기간으로 단축근무 등으로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므로 출장 시 이기간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2년도의 경우 7월 20일경에 시작될 예정이다.

2012년도 알제리 국경일 현황

구분	일자	비고
신년	2012. 1. 1	
노동절	2012. 5. 1	
독립기념일	2012. 7. 5	
혁명기념일	2012. 11. 1	

2012년도 알제리 종교휴일 현황

구분	일자	비고
El Mawlid Ennabaoui (예언자탄신일)	2012. 2. 4	
Aid El Fitr (라마단 종료일)	2012. 8. 19	2 일간
Aid El Adha(희생절)	2012. 10. 26	2 일간
Mouharram(무슬림 신년)	2012. 11. 15	
Achoura(보시축제)	2012. 11. 24	

주: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종교 공휴일은 이슬람력에 따라 매년 일자가 변경, 유동적임

차. 여행시 유의사항**1) 위험지역**

1990년대 초부터 10여년간 지속된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테러는 국내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소로, 대외적으로는 알제리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 외국인 투자유치 등 알제리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난 2005년 9월말 실시한 국민대화합헌장(Charter for Peace & National Reconciliation)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사실상 테러가 종식된 것으로 알제리정부는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최근 테러발생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비즈니스맨의 알제리 방문 러시를 이루고 있다.

단, 만일의 사태를 대비 테러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방출장시는 육로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우리 대사관이나 현지 KOTRA와 유기적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최근 수도 알제 이외 오랑, 콘스탄틴, 아나바, 바트나 등 지방에 소재한 주요 상업 도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출장 시는 가급적 항공편을 이용 하거나 육로 이동 시는 현지인을 대동하여 주간에 이동하는 것이 좋다.

테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을 방문 시 경유하는 것과 심야 단독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서방국의 경우 알제리의 치안 상태는 위험수준으로 평가해 자국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여행 자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팁관행

알제리에서 서비스요금을 지불 시 팁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팁을 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알제리인의 경우 자존심과 사회주의 경험으로 외국인에게서 잔돈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외국인 방문 잦아지며 호텔, 식당가 등 서비스업계에서 팁 관행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와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에 100디나르(약 미화 1-2불)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호텔투숙 시, 침실 청소 시 머리맡 눈에 띄는 곳에 침대 1개당 50디나르 정도를 놓아두면 좋다. 레스토랑 등에서는 서비스료가 음식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음식값의 5% 정도를 팁으로 줄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3) 문화적 금기사항

알제리는 이슬람국가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편이며 라마단 기간 등 종교휴일을 제외하고는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 주류가 판매되는 개방된 문화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등 유럽국과 문화적인 교류로 특별한 문화적 금기사항은 없는 편이나 이슬람 기본 예절 예를 들면 인사나 식사 시 왼손은 불결한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돼지고기 등 금기시 하는 내용이 있다.

4) 응급

알제리 방문 중 비상 의료사태 발생시 지역별로 소재한 병원 응급 연락번호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고 의사소통상의 문제 등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약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응급병원의 지역별 연락처

- Samu 09 (Blida): 025-41-09-09
- Samu 16 (Alger): 021-23-50-50
- Samu 23 (Annaba): 038-86-23-23
- Samu 25 (Constantine): 031-64-12-12/64-13-13/64-14-14
- Samu 31 (Oran): 041-40-31-31

카. 유용한 연락처

1) 한국기관 연락처

- 대사관
 - 주소: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39, Avenue Mohamed Khoudi, El Biar. Alger, Algerie
 - 전화: 213-21-793400/793401/793402
 - 팩스: 213-21-793404
 - 이메일: jowi07@mofat.go.kr
- KOTRA
 - 주소: KOTRA(Section Commercial de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01, Rue Hamdani Lahcene les crêtes « A », Hydra 16016 Alger Algérie
 - 전화: +213-21-694203/694194
 - 팩스: +213-21-694209
 - 양인천 무역관장: 휴대폰 +213 661 55 75 84, 이메일 icyang@kotra.or.kr

2) 주요 국영기업

- Sonatrach (hydrocarbons)
 - 주소: 10 Rue du Sahara Hydra, Algiers, Algeria
 - Phone: 213 (21) 60 70 00
 - Fax: 213 (21) 60 19 49
- Sonelgaz (power and gas utility)
 - 주소: 2 Bd Krim Belkacem, Algiers, Algeria
 - Phone: 213 (21) 64 45 55
 - Fax: 213 (21) 61 13 14
- ENIP (petrochemicals)
 - 주소: Zone Industrielle BP 215, Skikda, Skikda, Algeria
 - Phone: 213 (38) 95 88 62
 - Fax: 213 (38) 75 61 46
- SIDER (steel)
 - 주소: Chaiba, Commune sidi Amar BP 342, Annaba, Algeria
 - Phone: 213 (38) 85 10 11
 - Fax: 213 (38) 83 89 57
- SNVI (Industrial vehicles)
 - BP 153, Rouiba, Boumerdes, Algeria
 - Phone: 213 (21) 85 19 70
 - Fax: 213 (21) 85 73 45

3) 경제단체

- 상공회의소(CAIC: Chambre Algerienne du Commerce et de l'Industrie)
 - 주소: Palais Consulaire, Place des Martyrs, Algiers, Algeria
 - Phone: 213 (21) 57 44 44
 - Fax: 213 (21) 62 99 91
- 경영자협회(ACE: Association des Chefs d'Entreprise)
 - 주소: Villa le Minaret, 4 Rue Isidore Pouget, Les Tagarins, Algiers, Algeria
 - Phone: 213 (21) 63 89 29
 - Fax: 213 (21) 63 91 88
- 알제리 경영인 총연합 (CAP: Confederation Algerienne du Patronat)
 - 주소: Hotel Aurassi, Niveau C, Bureau 7, Algiers, Algeria
 - Phone: 213 (21) 64 70 20
 - Fax: 213 (21) 64 10 41

- CGOEA (Confederation Generale des Operateurs Economiques Algeriens)
 - 주소: 27 Rue Ferhat AEK Staoueli, Tipaza, Algeria
 - Phone: 213 (21) 58 28 51
 - Fax: 213 (21) 81 43 53
- CNPA (Confederation Nationale du Patronat Algerien)
 - 39 Rue Rahmoune Dekkar El Biar Algiers, Algeria
 - Phone: 213 (21) 79 37 95
 - Fax: 213 (21) 78 84 98

4) 비상연락처

- 경찰긴급연락: 17
- 병원 구급차 호출: 021 66 09 08
- 응급(SAMU) 호출: 021 67 16 16
- 화재신고: 14
- 전화번호 안내: 19
- 특수경찰(Gendarmerie): 021 62 11 99

5) 기타 연락처

- 전기(Electricity) 고장: 021-68 55 00
- 가스(Gas) 고장신고: 021-68 44 00
- 수도 서비스: 021-28 67 67
- 공항(비행기 도착문의): 021-50 60 00
- 렌트카(Car Hire)
 - Rapid Car: 021-74 82 52(공항 021-50 95 12)
- 차량고장시 서비스: 021-66 66 66(Garage Matam), 021-65 72 72 (Roi du depannage)
- 소화물 및 문서발송
 - DHL: 021-23 00 31
 - FEDEX
- 주요항공사
 - Air Algerie: 021-28 11 12, www.airalgerie.dz
 - Air France: 021-73 16 10
 - Alitalia: 021-72 73 56
 - Royal Air Maroc: 021-74 45 20
 -

타. 관광명소

지중해와 안달루치아의 문화가 어우러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다양한 기후와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닌 무궁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북쪽으로 지중해, 서쪽의 모로코부터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알제리는 그간 정치적인 사유로 관광자원개발 분야에 투자를 하지 못해 관광산업은 동 지역 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 알제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현지에서 로마유적지 등 관광지 등을 둘러보고 그 실태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나 사하라사막과 지중해연안지역의 절경 등 향후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 무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알제(Alger) 및 인근 주요 관광지

□ 알제(Alger)

알제 시가지는 해안에서 계단처럼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알제만을 무대로 하는 원형 극장의 관객석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알제시의 하얀 건물과 푸른 지중해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알제에서는 태양이 뜨면 이슬람교도들이 카펫을 펴놓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활이 시작된다. 알제의 태수인 Mustapha Passa의 바위 위에 솟은 하얀 삼각형의 성을 배경으로 하여 제작된 영화 '망향'의 무대였던 곳이 알제이다.

○ 볼만한 곳

- Casbah(카스바)

- 카스바는 오토만 터키가 이곳에 알제를 건설하였다.
- Casbah는 깊게 뿌리박힌 공동체의식을 엿볼 수 있는 전통적 도시 구조 유적과 고대 모스크, 성채 및 오토만 저택 궁전 등의 유적이 남아 있다. (1992년 UNESCO문화 유산으로 등재)

- Palais des rais(Bastion 23, 바스티용 뱅 트르와)

- 15세기 오토만시대의 건축으로, 첫 번째 건물은 오토만 스타일의 천장과 모자이크로 색상이 매우 아름답다. 부속건물은 해군 및 선원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투박하다. 최근까지 수산부 건물로 사용되었다.

- Dar Hassan Pacha(다르 하산 파샤)

- 알제 총독이었던 Hassan(1791-97)의 옛궁전으로 1791년 건축되어 후에 프랑스 총독의 겨울별장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종교성 부속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 Hammam Sidna(하맘 시드나)

- 16세기에 건조된 공중목욕탕으로 지금은 거의 파괴되었고, 형체만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전형적인 전통양식을 보존해온 건물로 유명하다.

- Dar Mustapha궁(다르 무스타파)

- 1797년 건축된 궁전으로 동 건물의 벽면은 50만개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타일 문양이 아름답다. 그러나 1948년 프랑스 총독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조, 지금은 알제리 국립도서관이다.

- Notre-dame d'Afrique(성당, 노트르담 다프리카)

- 1846년 리옹 출신의 Pavy추기경이 Lyon의 Notre-dame성당과 동일한 형태로 건축. 이 성당 내부에는 기도문에 “Notre-dame d'Afrique(성당)는 기독교인을 위해, 이슬람 교도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동판을 새겨놓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알제시의 높은 곳에 위치,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Makam Ech-Chahid(순국선열묘지)

- 과거 군대 요새로 활용하였으며, 92m의 높은 총흔탑을 건립하여 알제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지이다. 바로 발 아래에는 식물원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 Musee national du Bardo(바르도 박물관)
 - 박물관은 알제리 전통 복식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건물은 오토만 양식이다. 특히 박물관내의 정원은 건물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 Musee national des Antiquites(유물 박물관)
 - 안달루시아 형태로 된 건물로 입구 5개실은 알제리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을 전시 하고, 지방 박물관에 전시해오던 귀중한 다수 유물을 최근 이곳으로 재배치 전시 하고 있다. 특히 Icosium실은 대부분 Cherchell(옛로마제국 총독부 도시)에서 발견 된 유물 전시관으로 개조하였으며, 알제리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세심 하게 준비해 놓았다.
- Musee national des Beaux-Arts(국립 미술관)
 - 근현대 알제리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Rodin, Maillol, Bourdelle 등 조각, 데생 등의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다.
- Musee national de la Nature(국립 자연공원)
 - 40ha에 달하는 자연 공원으로 1832년 개관하여 90년 테러 시기에 폐쇄하였다가 최근에 재 개관하였다. 약 3000 여 종의 꽃들이 아름답다. 오랜 폐관으로 공원 개보수 공사가 한창이나, 알제 시내 유일한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알제 인근 관광지(유적지)

알제리 지중해는 하얀 건물이 포도덩굴 밑에 가려져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알제리의 아름다운 지중해 해안을 만드는 파이범의 유칼리 나무, 떡갈나무, 사헤르 강 유역의 채소밭과 과수원 등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지중해 연안에는 오래된 도시가 많은데 Tipaza, Cherchell, 동쪽으로는 Zamira, Timgad 등 훌륭한 로마시대의 문화유적이 있다. 알제리 해안에는 아랍인이 정착하기 전 Berber인이라 불리우는 토착민이 살고 있었다. 약 2,700년 전에 카르타고가 토착민과 교류를 하기 위해 연안과 육지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북아프리카의 최초의 도시 건설이었으며, 지금의 Annaba, Bejaya, Alger, Tennesses 등이다.

○ 볼만한 곳

- Sidi-Fredj (천혜의 해수욕장)
 - Alger서쪽에 위치한 제랄다의 모래밭은 금빛으로 빛나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서쪽의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성한 인타그리트도 훌륭하다.

□ Cherchell 유적

로마시대에 북부아프리카지역은 2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 즉 Tingitane(현 모로코)과 Cesarea (현 세르셀) 나뉘어져 있었으나, 현재의 알제리는 Cherchell에 위치한 총독부의 통치하에 있었다. Cherchell지역은 로마 Auguste황제가 A.D25년 누미디아 왕 JUBA2세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로마군의 병참기지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 볼만한 곳

- Amphitheatre(원형경기장)
 - Juba2세 때 축조된 원형경기장은 형태가 독특하고, 로마에 실존하는 원형 경기장 보다

크기 면에서 더욱 웅장하다. 최고 15,000명을 수용하며, 길이 100m X 폭 45m 로서 검투사 경기 및 사나운 동물경기를 주로 연출하였다.

- Theatre antique(고대원형 극장)
 - 극장규모는 130X72m로서 1세기 때 건축. Cherchell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 Thermes(공동목욕탕)
 - 당시 Cherchell에는 3개의 공동목욕탕이 있었으며, 시내 동부, 중부에 위치한 목욕탕은 소실되고, 현재 서부 1개 공중목욕탕은 115X70m 규모로 잔존해 있다. 이는 로마시대의 또 다른 병참기지였던 동쪽의 Timgad에 있는 Thermes보다 더 크다. (2실의 냉탕과 1실의 온탕이 있으며, 특히 2개 공간의 휴게실이 있다.)
- 순교자 광장(Place des Martyrs)
 - 과거에는 로마의 광장이라 불리었으나, 서기 40년에 있었던 로마군과의 전쟁 때 희생자를 기리기 위하여 지금은 순교자의 광장이라 부른다.

□ Tipaza 유적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카르타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로마의 정복 이후 모리타니아 왕국(현재의 모로코 북부) 정복을 위한 군사 전략기지로 변모하였으며, 모리타니아 왕릉을 비롯하여 토착민 기념물, 비잔틴, 초기 그리스도교, 로마, 페니키아인들의 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다. 70ha달하는 Tipaza(로마)유적지는 1982년 UNESCO의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카뮈(Camus) 작품의 Noces(결혼)에서 인용한 페네키아 상인의 주 무대(escalier)이며, 누미디아 왕조 JUBA2세의 중심도시였으나, Tipaza는 비로소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 크게 번창하였다.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2km 달하는 외부 성곽이 축조되고, 특히, 아프리카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Tipaza는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Basillique를 세운 ST. Salsa는 현재까지 성인으로 추앙 받고 있다.

- 볼만한 곳
 - Musee de Tipaza(박물관)
 - 박물관 규모는 소형이나, 내부 소장품은 희귀한 귀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석관요, 로마시대 화폐, 로마시대의 장식품, 생활용품 등)
 - Mausolee royal et Tombeau des chretiens(왕족묘 및 기독교인 묘)
 - Tipaza 남쪽 13km에 위치한 알제리 최대의 기독교인 묘지와 원형둘레가 60m, 60개의 지주로 건축된 모리타니아 왕족의 무덤으로도 유명하다.

□ Tlemcen 유적

알제리의 서쪽해안에 위치한 Oran에서 1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Tlemcen은 알제리 유적의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 볼만한 곳

- Ndroma(드로마)

- 과거 중세의 모로코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Mouwahid 왕국의 수도로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프랑스 식민지배 기간 약탈과 파괴로 인해 그 아름다움이 사라 지고 없다.
- 한편, Tlemcen은 중세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였던 유적이 도처에 남아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성벽의 탑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9세기에 건축된 것이다. 건축양식에서 지붕의 기와색인 적갈색과 황토색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도기의 유약색은 올리브의 녹색과 어울린다. 교외에 있는 계단식 밭은 때때로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다.

13세기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십자로의 역할을 했다. 향신료, 옷감, 카펫 등의 상품과 이문화가 유입되었으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현재 도시 중심지역인 Haddar 라는 곳에는 여러 기술자들이 대대로 살고 있어 수세기에 걸쳐 전수해온 터키 슬리퍼와 낚시 제품의 기술이 아직도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Tlemcen에 있는 Mosque는 스페인의 Moor양식을 모방해 세워진 건축물인데, 72개의 원주와 돔, 레이스처럼 화려하게 조각한 대리석 장식의 벽등이 훌륭하다. 이것 외에도 Tlemcen 진입 부분에 위치한 El Youbad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sidi Bou Medinou Mosque 도 스페인 Moor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사당도 있어 이 역시 순례지로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Tlemcen 인근에는 Mansa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Tlemcen의 번영을 시기하던 현재의 모로코 Fes에서 번창한 마린 왕조의 이브 야쿱(재위기간 1259 ~ 1286년)이 만든 인위적 도시로서, 처음에는 Tlemcen을 함락하려고 8년간이나 공격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근처에 '승리'의 의미인 Mansa라는 도시를 재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Tlemcen의 반격으로 대부분 의 건물이 부셔져 버렸다. 그러나 30년 후에 다시 재건되어 16세기까지 이어져 왔으나 터키인의 침공으로 다시 파괴되는 비운의 도시이다.

□ 북부의 유적지

Oran주변의 도시는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크게 발전하였으나, 알제리 제2의 경제도시로서 지금도 그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오랑의 동남쪽에 위치한 Maskra와 El Guesna는 알제리 독립투사인 AbdelKader의 유적지이다. Tiaret라는 고지대의 지방에는 가축과 곡식이 풍부하다. 알제리 동부의 Kabylie지역은 해안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형태의 구릉과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은 남으로 갈수록 천연의 모래 사막이 펼쳐지는데, 그 비중은 알제리 총면적 240만km² 중에 202만km²이다. 이 사막의 종류도 다양하여 단지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Tademait고원은 공처럼 둥근 자갈이며, Tanezrouft사막은 500km나 이르는 평원으로 이어져 있다. 현재의 마른 개울은 1만년 전에는 큰 강이었고 강의 주변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며 살았지만, 지금은 단지 선사시대에 사용했을 화살촉이나 괄이, 망치, 주발 등이 흩어져 있어 선사시대의 박물관일 뿐이며, 지금도 바위 벽에는 당시의 생활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림이나 조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 불만한 곳

- Tamanrasset

- 고도 1400m에 위치한 타만라세트는 사하라 중계무역으로 형성된 인구 10만명의 알제리 최남단 최대의 도시이다. 인근 말리 Gao와 니제르의 Agades의 토산품을 물물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사하라 사막이 관광중심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급 호텔(1개)과 다양한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한시적인 직항편이 개설되어 세계각국으로 미 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Louis Amstrong(달에 첫발을 디딘 우주과학자)는 Tamanrasset 밤하늘의 별을 보고 “왜 인간들이 달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달에서 쳐다본 아름다운 지구보다 Tamanrasset의 밤하늘이 더욱더 아름답다”고 실토함.

- Tassili du Hoggar

- 니제르 국경 250km를 접해 있는 Tassili고원지대는 1970년대 흑서와 비가오지 않아 자주 받은 땅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곳은 천혜자원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최근 많은 유럽, 일본 관광객들이 낙타를 타고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관광 명소 이다.

- Djanel

- 알제에서 1700km떨어진 자네트는 다른 어떠한 지역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를 독특한 전경을 보이고, 특히 저녁 해질 무렵의 노을을 한마디로 장관이다.

- Tegharghart(우는 젓소라는 의미)

-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괴암 절벽이 바람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소가 우는 소리와 똑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중 한 절벽은 소가 눈물 흘리는 모습과 같이 물이 흘러 내린다고 한다.

- Tassili N'ajjer

- 고도 2500m 위치하고, 타실리 나제르의 고대 동굴벽화는 선사시대 동국예술의 중요한 사례로서 15,000여개의 그림, 조각등 있으며, 특히 B.C.6000년경부터 기원 1세기까지의 사하라 지방의 인간생활의 진화과정, 동물이주, 기후변화 등을 나타내 주고 있다.
- 침식된 사암이 바위숲을 형성하여 뛰어난 지형적, 자연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2년 UNESCO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주요 쇼핑센터

알제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유통산업이 낙후되어 현재까지 대형 할인매장 등 쇼핑센터가 없으며 각 지역에 산재한 구멍가게 수준의 상점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2010년 6월 알제리 최초로 시내 외곽지역에 백화점의 초기모델 성격의 쇼핑몰이 개장하여 알제리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사고 있다. 대형슈퍼마켓, 극장, 볼링장, 헤어샵, 외국유명 의류브랜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나 2010년 9월 말 현재 아직 입점하지 않았고, 현재는 대형슈퍼마켓과 볼링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4) 특산품

알제리를 대표하는 수공예품 등 고유의 특산품은 내세울 것이 없는 실정이다.

대추 야자와 알제리산 포도주(Cuvee de President)은 2005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 포도주 경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제리 공항 면세점에서 대추야자 1kg(약 5불) 포장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적포도주(1병 약 6불)는 시중 주류 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2012 알제리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전시회

- 개최기간: 2012. 3.07 – 2012. 3.10
- 개최장소: PALAIS DES EXPOSITIONS
- 전시규모: n/a
- 전시품목: 계측제어기기, 에너지, 전기, 전자
- 주최: fair-trade messe und Ausstellungs GmbH & Co.KG
- 담당자: 한국 사무소/ (주) 인터페어스
- E-MAIL: fairs@interfairs.co.kr
- 전화: 02-2635-6481

□ 2012 알제리 건설장비 박람회

- 개최기간: 2012. 03.09-2012.03.12
- 개최장소: PALAIS DES EXPOSITIONS
- 주최: Reed Expositions France-Batimat
- E-Mail: contact@safex-algerie.com
- 전화: +213 21210123/30

□ 2012 알제리 정보통신박람회

- 개최기간: 2012. 4. 18 – 4. 23
- 개최장소: PALAIS DES EXPOSITIONS
- 전시규모: 6000 s/m
- 주최: SAFEX
- E-MAIL: contact@sicom2011.com
- 알제리 정보통신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 2012 알제리 국제 의료용품 전시회

- 개최기간: 2012.04.018- 2012.04.20
- 개최장소: The prestigious Convention Center Oran
- 전시규모: 12,000m² (2009년 기준)
- 전시품목: 병원 및 의료용품 전반
- 주최: DZ Event
- 담당자: M.Abdelaziz Ali
- E-MAIL: info@dzshow.org
- 전화: +213-(0)21 36 84 89

□ 2012년 알제리 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박람회

- 개최기간: 2012.05.06 – 2012.05.10
- 개최장소: PALAIS DES EXPOSITIONS
- 전시규모: 25,000 s/m

- 전시품목: 건축자재, 인테리어 설비/ 자재, 건설기계/장비등
- 박람회 성격: 알제리 최대의 건축, 건설 전문전시회
- 주최: BATIMATEC EXPO
- E-MAIL: batimatec.expo@gmail.com
- 전화: +213-(0)20 34 77 03

□ 2012 알제리 프린팅 및 패키징 전시회

- 개최기간: 2012.09.25-2012.09.27
- 개최장소: PALAIS DES EXPOSITIONS
- 전시규모: 800 s/m
- 전시품목: 인쇄, 출판, 종이, 포장산업
- 주최: Fairtrade
- 담당자: M.Daniela Mancic
- E-MAIL: info@fairtrade-messe.de
- 전화: +49-(0)62 21-45 65-16

□ 2012 수환경기술전시회

- 개최기간: 2012. 12. 19-2012.12.21
- 개최장소: PALAIS DES EXPOSITIONS
- 전시규모: 5,000 s/m
- 전시품목: 수처리 기술/설비, 수자원 개발 서비스/설비 등 수환경 기술/설비/장비 전반
- 주최: Reed Expositions
- 담당자: Anne-Lise SAUVETRE
- E-MAIL: anne-lise.sauvetre@reedexpo.fr
- 전화: +33-(0)1 47 56 50 00

□ 2011 알제리 플라스틱&고무 제품 전시회

- 개최기간: 2012. 07. 24-2012.07.27
- 개최장소: Hotel Hilton-Alger
- 전시규모: n/a
- 전시품목: 플라스틱, 고무제품
- 주최: Eurl fairtrade expo
- 담당자: Ms Kahina Behloul
- E-MAIL: kbehloul(at)gmail.com
- 전화: +213-21-484016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기관명 및 설명	홈페이지 주소
알제리 관세청 홈페이지 (불문/ 품목별 관세율 등 조회)	www.douane.gov.dz
투자개발청 홈페이지 (영문/불문)	www.andi.dz
에너지광물자원부 홈페이지(영문/불문)	www.mem-algeria.org
Sonatrach 홈페이지	www.sonatrach-dz.com
Sonelgaz 홈페이지	www.sonelgaz.dz
알제리 국토개발 환경관광부 홈페이지	www.matet.dz
알제리 교통부 홈페이지	www.ministere-transports.gov.dz
알제리 건설부 홈페이지	www.mtp.gov.dz
알제리 철도청 홈페이지	www.sntf.dz
알제리 철도투자공사 홈페이지	www.anesrif.dz
알제리 상공회의소	www.caci.dz
알제리전경련(회장: Mr. HAMIANI Reda)	www.fce.dz
WTC(WorldTradeCenterAssociationAlgeria)	www.ite-exhibitions.com
알제리 주재 프랑스 상공회의소	www.cciarf.org